

2020
겨울

생협 평론

41

길잡이 대지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4
— 김찬호(편집위원장)

특집

기후위기와 사회적경제

[좌담] 생태적 회복을 위한 큰 그림, 그리고 작은 실천 12



김현주 송정화 이상현 차유미 김찬호

생태적 전환의 근본 방향 37
: '자력 경제' 넓히기

— 이일영(한신대학교 경제학 교수)

지구 살리기,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해야 할 때 50

— 이진백(〈라이프인〉 편집장)

제로웨이스트(zero-waste)가 대체 뭐야 66

— 김아리(제로웨이스트샵 지구 대표)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와 강조되는 환경 지표 75

— 이주희(SAPENet 자원센터 국제팀장)

주민이 만들어가는 에너지자립마을 88

— 김소영(성대골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이사장)

이슈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과 사회적 약자 104
: '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에 달려 있다'
— 김동훈(라이프라인코리아 대표)

생협 zoom in 벌써 일 년 118
— 김성광(작가)



| | | |
|----------------|---|-----|
| 기획 연재 | 생협평론이 만난 사람 | |
| | ‘협동의 도시 진안’을 꿈꾸는 진안협동조합연구소 소장, 한명재 — 우미숙(『생협평론』 편집위원) | 120 |
| | 주요 개념 길라잡이 | |
| | 사회주택(Social Housing)의 이해 — 남철관(나눔과미래 지역활성화국장) | 131 |
| 서평 | 즐겁고 자유로운 비거니즘의 10가지 이야기 : 이라영 외 9인, 『비거닝』 — 이미옥(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이사) | 139 |
| | 권위적인 어른이 될 것인가, 권위 있는 어른이 될 것인가? : 파울 페르하에허, 『우리는 왜 어른이 되지 못하는가』 — 김현숙(『생협평론』 편집위원) | 144 |
| | | |
| 협동조합 소식 | 일본생협의 플라스틱 감축은 지금 — 이은선(SAPENet지원센터 가치확산팀) | 150 |
| 청년의 소리 | 온라인에서 효과적으로 연결되는 5가지 방법 — 서동재(한살림연합 조직지원팀) | 156 |
| | 정기구독 안내 | 192 |
| |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 161 |
|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발행물 목록 | 182 |

생협 평론

계간 2020년 겨울 제41호 **퍼낸날** 2020년 12월 20일 **퍼낸이** 고영희 **편집위원** 강윤경 김아영 김현숙 우미숙 조금득
조현경 주세운 황명연 **편집위원장** 김찬호 **코디네이터** 이은정 **퍼낸곳**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등록번호** 구로, 바
00038 **등록일** 2016년 4월 5일 **주소** 07317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전화** 02-2060-1373
이메일 icoop-institute@daum.net **디자인편집** 잇다 **인쇄** 아람P&B **ISSN** 2093-987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도서 문의 (주)알마**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1길 8 | 전화 · 02-324-3800

대지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김찬호

편집위원장

나는 바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계산이 되기 전에는

나는 비의 말을 새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측량이 되기 전에는

나는 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해석이 되기 전에는

나는 대지의 말을 받아 적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부동산이 되기 전에는

나는 숲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시계가 되기 전에는

이제 이들은 까닭 없이 심오해졌습니다

그들의 말은 난해하여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측량된 다음 삶은 터무니없이

난해해졌습니다

내가 계산되기 전엔 바람이 이웃이었습니다

내가 해석되기 전엔 물과 별의 동무였습니다

그들과 말 놓고 살았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소용돌이였습니다

—백무산, 「나도 그들처럼」, 『거대한 일상』, 창비, 2008.

새소리가 들려오는 숲속을 걷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왜 동물들은 바이러스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까? 사실은 그들도 감염이 되지만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 집단들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유지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의 무리를 이루는 개체 수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가장 가깝다고 하는 침팬지들도 함께 살아가는 집단의 규모가 100마리를 넘지 않는다. 그에 비해 인간은 문명과 도시가 발생한 이후 수십만 명 이상이 군집을 이루어 서식해왔고, 이제는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 속에 통합되어 있다. 그 결과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곳에 곧바로 영향을 준다. 코로나 팬데믹은 그런 조건 속에서 일어났다. 효율적 생산과 풍요로운 소비를 위해 구축된 글로벌 연결망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문명과 자연의 이분법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생물도 무생물도 아닌 바이러스가 그 경계를 해체하고 있다. 코로나는 인류의 생존이 지구환경의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음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그 엄연한 사실을 망각하고 끝없이 자기를 확장한 결과의 반작용

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것은 더욱 위중한 파국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머지않은 듯하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다. 코로나는 기후재앙,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등과 맞물리면서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비극은 망각에서 비롯되었다. 만물은 서로에게 존립의 근거가 되고 인간은 무한한 순환의 한 고리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다. 이제 생명의 뿌리를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 백무산 시인은 우리의 무의식을 더듬으면서 존재에 대한 원초적 기억을 건져 올리고 있다. 바람과 비와 별과 대지와 숲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런데 자신이 부동산으로 계산되고 시간으로 측량되면서 그 말들이 몹시 난해해졌다고 고백한다. 모든 것이 효율의 논리로 환원되면서 우리의 귀가 막혀버린 것이다. 이에 자연은 마침내 재난으로 호통을 치기 시작한 것 아닐까.

기후위기는 절박하게 다가온다.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는 탄소 배출을 10년 안에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조너선 사프란 포어 Jonathan Safran Foer의 『우리가 날씨다』라는 책에 따르면, 그 목표치를 달성한다 해도 1억 4300만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하고 4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며 모든 동물종의 절반, 모든 식물종의 60%가 절멸 위협에 직면한다. 파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감내해야 할까. 경제는 어느 정도의 충격을 각오해야 하는가. 코로나로 세상이 멈추면서 지구가 조금 깨끗해졌는데 그 결과 줄어든 탄소가 8%라고 한다. IMF 금융위기 때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줄어든 탄소는 14%라고 한다. 탄소 배출을 절반이나 줄이려면 어떤 고통을 각오해야 할지 짐작이 간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경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번 호의 <특집>은 그런 질문을 중심으로 기획되었는데, 관련된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원고 다섯 편을 실었고 여러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일영 교수는 생태적 전환의 핵심을 자력 경제라고 보면서 자급의 씨앗을 심어가는 사례들을 소개한다. 물의 보존과 자급을 위한 인도 민중의 운동, 쓰레기 환경문제를 자급적 관점의 틀로 해결해가는 독일의 어느 콤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울러 일정 규모의 자원을 공유자산으로 확보하여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면서 도시 안에서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을 결합하는 스마트팜 ‘그린’의 사례도 다루고 있다. 스마트팜이 성공하려면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야 할 뿐 아니라, 공간, 기술, 노동력, 시장을 연결하고 운영하는 주민들의 주체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시사적이다.

이진백 편집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네 개의 생협연합회가 벌이고 있는 실천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 의미를 풀이한다. 자원순환(퇴사립) 운동, 플라스틱 등 포장재 줄이기, 각종 제품에서 친환경 소재 사용의 확대, 전기에너지 사용 절감, 캔들나이트 등 다양한 시도를 벌이고 있다. 생산과 유통과 소비가 하나의 시스템 속에 통합되는 생협이기에 그 영역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운동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기업에게도 영향을 주어 동참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있었다. 환경 친화적인 경제를 지향하면서 탄생한 생협들이 펼쳐가는 소비자기후행동이 앞으로 어떤 진로를 밟아나갈지, 그 과정에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자.

김소영 이사장은 성대골의 에너지자립마을 실험의 역사와 흐름을 소개한다. 10년 전에 도서관 중심으로 시작된 마을공동체 운동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전환 실험과 에너지 협동조합 등의 일을 벌여왔다. 운동이 일시적 캠페인으로 그치지 않도록 동네 일자리 창출로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잡은 것이 인상적이다.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이 ‘리빙랩’ 프로젝트인데, 지역 주민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스스로 지식 생산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향후 지역운동의 새로운 좌표가 될 듯하다.

김아리 대표는 자신이 창업한 제로웨이스트샵의 배경과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웨이스트'라는 단어에 쓰레기와 함께 낭비라는 뜻이 함께 내포된 것을 깨달으면서 이 운동에 눈을 뜨게 된 대목이 흥미롭다. 그가 생각하는 제로웨이스트샵은 단순히 낭비를 줄이는 물품의 유통에 그치지 않고 대안적 라이프스타일을 보급하는 복합공간이다. 필자는 윤리적인 과제를 어떻게 사업적으로 풀어낼지, 이러한 시도들이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필연적인 삶의 양식으로 정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을 털어놓고 있다. 『생협평론』의 <특집>에 처음으로 초대된 1990년대생 필자의 청신한 목소리를 들어보자.

이주희 팀장은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서 환경 지표가 어떤 위상을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스위스의 미그로와 스페인의 XES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사회대차대조표 Societal Balance Sheet를 통해 카탈루냐 지역 전체 사회연대경제의 현황과 발전 정도를 발표하고 참여 조직들이 계속해서 내부 개선을 통해 사업과 활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미 많은 대기업들에서 지속가능성이 경영보고의 기본이 되고 있는데 반해 사회적경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리드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의 다양성으로 인한 표준화의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데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이 글에서 짚어내고 있다.

<좌담>에서는 동물병원, 제로웨이스트샵, 소비자운동, 연구소 등에서 오랫동안 사회적경제를 고민하고 실천해온 네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다. 우선 현장에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절실하게 부딪히는 문제는 무

엇인지, 일반 시민들은 어떤 정도로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지를 돌아본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실천해온 여러 경험에서 무엇을 점검하고 배워야 할지를 논의하고, 앞으로 우리가 주도해갈 수 있는 정책의제와 그것을 원만하게 풀어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생각해본다. 경제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세밀한 변화를 도모해가야 하는 사회적경제가 기후위기를 너무 무겁지 않게,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공감을 만들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구상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 자세를 평가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 보고서에서 한국은 61개국 중 58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코로나 대응에서 ‘K-방역’으로 부러움을 산 것과 대조를 이룬다. 우리에게 저력은 있는가.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구상은 충분히 실효를 거둘 것인가. 기후위기는 경제의 패러다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의 리모델링을 요구한다. 그와 함께 삶의 양식을 총체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문명사적 과제다. 내부 순환형 공생경제의 구축, 환경정의와 경제정의의 양립, 건축과 도시계획의 녹색화,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창출, 물질 소비가 아닌 삶의 나눔으로 누리는 행복 등 다양한 목표가 제시된다. 그러한 프로젝트에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결합할지 깊은 천착이 필요하다.

날로 심각해지는 여러 재난 속에서 우리는 대지의 신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귀가 열릴 수 있을까. 시인은 회상한다. “내가 계산되기 전엔 바람이 이웃이었습시다/ 내가 해석되기 전엔 물과 별의 동무였습시다 / 그들과 말 놓고 살았습시다/ 나도 그들처럼 소용돌이였습시다”. 자신이 소용돌이였다니. 소용돌이는 혼돈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지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문명의 잣대로 계산되고 해석되지 않은 만물의 원형질 같은 것이다. 그것은 곧 생명의 원천이기도 하다. 존재의 바탕을 더듬어 드넓은 연결망을 자각하는 것. 못 삶들의 공생적인 웰빙을 도모하는 것. 바로 지금의 시대정신이다.

특
집

기후위기와 사회적경제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재난과 올여름의 유례 없는 긴 장마는 지구가 당면한 생태적 위기를 실감하게 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담론과 논평은 많지만 『생협평론』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혁신 창업가, 생활인(생협조합원)들이 혁신기술과 사회혁신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담아본다.

생협 평론

좌담

생태적 회복을 위한 큰 그림, 그리고 작은 실천

_____ 김현주, 송정화, 이상현, 차유미, 김찬호

생태적 전환의 근본 대책 : '자력 경제' 넓히기

_____ 이일영

지구 살리기,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해야 할 때

_____ 이진백

제로웨이스트(zero-waste)가 대체 뭐야

_____ 김아리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와 강조되는 환경 지표

_____ 이주희

주민이 만들어가는 에너지자립마을

_____ 김소영

좌담

- 참 석 **김현주**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
송정화 제로웨이스트샵 송포어스 대표
이상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차유미 참여하고 행동하는 소비자의 정원 사무처장
- 사 회 **김찬호** 『생협평론』 편집위원장

생태적 회복을 위한 큰 그림, 그리고 작은 실천

때 2020년 11월 5일(목) 오전 10시
 곳 아이쿱신길센터 2층 마실

사회(김찬호) 기후위기가 언제부터 체감되기 시작했는지 돌아켜보니,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과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이 실천과 대책을 주장해왔지만, 일반적으로 경각심이 확산된 것은 최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너무 늦었죠. 비유하자면 병이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는데 통증

은 별로 없어서 방치하다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할까요. 한국은 특히 ‘기후 악당’으로 불리고도 있는데, 코로나와 이번 여름비를 계기로 의식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 『생협평론』에서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경험과 고민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석해주신 분들은 이제까지 어떤 활동과 경험 속에서 기후위기와 만나셨는지 자기소개를 겸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전공은 환경사회학, 정치생태학이고 물과 에너지 문제 등을 공부하고 연구해왔습니다. 사회적경제와 연관해서는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우리동네햇빛협동조합 이사를 비롯해서 여러 조직에 활동가나 이사로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여정부 때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에너지 쪽 팀장을 맡게 되고 이후 원전, 탈핵 관련 일을 해오다가 기후위기에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에 참여하게 되면서 사회적경제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계속해서 생태적 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저는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이하 우리동생)에서 창립 준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동생에서 일하기 전에 일하던 단체에서 평화기행에 참여하면서 원폭과 탈핵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와 10년째 반려를 하고 있고 우리동생에서 일하다 보니 조합원들과 같이 배우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먹는 동물’과 ‘내가 입는 동물’, ‘내가 반려하는 동물’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환경과 기후 문제에도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안에서 먼저 사무와 생산,
배송 등의 사업에 사용되는 물품들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품들로 대체하고
환경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송정화 제로웨이스트샵 송포어스 대표

송정화 제로웨이스트Zero-Waste 샵이자 비건 카페인 송포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환경으로 업을 삼을 수 있는 일을 찾아오다 제로웨이스트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문제와 기후위기 등 여러 지구 환경문제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해 제로웨이스트와 채식을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판매할 상품을 선택할 때도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소비되는지, 쓸모가 다한 후 어떻게 될지까지, 그 제품의 생애주기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차유미 저는 성남아이쿱에서 활동을 했고 이사장을 퇴임하고 나서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연대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소비자운동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활동연합회 해산 이후 ‘참여하고 행동하는 소비자의 정원’(이하 소비자의정원)이라는 시민단체 결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의정원은 건강한 먹거리,

“전 지구적인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쉽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
지역 커뮤니티에서 하는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차유미 참여하고 행동하는 소비자의 정원 사무처장



소비자 알권리(GMO 완전표시제), 플라스틱 문제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에 지부가 있습니다. 소비자나 정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정부,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활동하고 있지만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먹거리나 GMO, 플라스틱 이런 문제가 모두 기후위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여서, 좀 더 깊숙이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을 펼쳐보고자 소비자 기후행동으로 새롭게 활동을 펼쳐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정원에서 활동하면서 또 생협의 조합원으로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궁금증으로 작년에 성공회대학교에서 AMP(사회적경제 리더과정) 공부를 했는데 어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알면 알수록 어렵고 고민되는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 기후위기의 심각성이나 현황에 대한 정보는 언론에서 자주 다루고 있고 책도 많이 출간됩니다.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의 문제도 있지만, 먼저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이제는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편차 내지 온도 차가 있을 듯합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직업·연령·성별에 따른 체감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말씀해주세요.

김현주 우리동생은 기후위기와 직접 연관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조합원이고, 물론 동물과 함께 산다고 해서 모두가 환경문제에 민감한 것은 아니지만, 동물과 함께 생활하다보니 인간 세계 외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다른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들이 조합 사업과 활동에 중요한 축이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굶어서 뼈쩍 마른 북극곰이라던가, 산불에 그슬린 코알라 등의 영상으로도 심각성을 접하게 되고, 또 기후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동물을 보면 집에 있는 반려동물이 생각나서 더 공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과 반려하는 분들이 기후위기와 동물복지가 맞닿아 있는 점을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반려인들 중에는 젊은 층이 많고 SNS를 적극적으로 하다보니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을 사용한다거나 다양한 실천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육식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늘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채식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회 반려인들이 늘어나면 이런 연대 의식이 더 확대될 거라고 기대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육식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것은 고무적

“공장식 축산이 사육과 생산 과정에도 문제가 많지만, 축산 환경으로 인한 동물 전염병과 살처분을 하면서 일어나는 환경문제 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김현주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통계를 봤는데 1만 년 전에는 지구 상에서 사람과 가축을 합친 체중이 동물 전체의 체중에서 0.1%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97%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소라고 합니다. 소의 개체 수는 사람보다 훨씬 적지만 위낙 체중이 많이 나가서 그렇죠. 소고기를 먹는 문제를 재고해보는다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도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차유미 올해 저희 단체에서 플라스틱 다이어트라는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온라인이나 SNS 정도로만 활동하다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알기가 어려워서 답답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시민 스스로 실천하는 ‘자원순환 실천협약’을 추진했습니다. 그 시작으로 성남에서 성남시, 지역 아이쿱생협, 공익재단과 함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이 재활용되어 순환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참여는 아직 미미하지

만 텀블러, 장바구니 사용과 함께 재활용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실천에 따른 결과를 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편리하게 사용했지만 회수는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실천이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현재의 편리함이 크다보니 이 소비가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다소 둔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가 지금 바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축적되어온 것인데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소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상현 올해 세계기상기구(WMO)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많이 줄어 4월 초 일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기도 했지만, 놀랍게도 전체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졌고 기후변화는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기후변화는 인간의 경제활동이 다소 줄었다 해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시베리아 영구동토층에 있던 메탄가스 등이 이미 노출이 되었고 지구 자체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학자들은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10년 정도, 비관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7년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잘할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전 지구적
시장경제에서 벗어나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내에서 순환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정도 남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저는 시민보다 정치인들의 무관심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린뉴딜 등의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내놓은 장기저탄소 발전전략 등 많은 전략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를 실행해도 파리기후협약에서 요구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5°C를 맞추려면 현재 경제를 1992년 수준으로 돌려야 합니다. 10년 안에 탄소량을 1992년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데, 성장 위주로 돌아가는 현실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있고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경제성장 주의가 만연하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농민들은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기후스트라이크^{Climate Strike}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이 그 심각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지금까지 해온 경제 발전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기후 문제에 둔감하고 그에 따른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그린뉴딜을 디지털 기술이나 환경 산업을 육성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정



김찬호 「생협명론」 편집위원장

치가 유권자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리드하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의 경우 '15분 도시'라는 도시계획을 강력하게 시행하여,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편안하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 걸어서 15분 거리 안에 학교와 직장, 의료와 상점 등 각종 편의 여가시설을 제공한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정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유미 저도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지난 선거 때 각 정당들의 공약들을 살펴보았는데 기후위기를 다룬 것이 거의 없었고 이번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럽긴 합니다.

김현주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생활인의 한 사람으로 최근 들어 점점 편리함에 눈을 돌리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보다 체력이 떨어져서 전기자전거를 한 번 타보고 나니 그냥 자전거는 타기가 힘들고(웃음), 주변에서도 식기세척기나 건조기 같은 가전제품들이 점점 필수 아이템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올여름 긴 비에 빨래방의 건조기 덕을 보게 된 후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들의 편리함을 실감하게 되면서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또 사람들이 점점 바쁘고 가사노동 할 시간이 부족한 와중에 가사 및 돌봄 노동 부담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 식기세척기 등 여러 가전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제로웨이스트 같은 라이프스타일이 '힙'해지는 반면,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몰라서라기보다, 체력이 떨어지거나 일에 치여서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점점 에너지 사용 제품들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송정화 요즘 제로웨이스트 운동은 사회 전반에서 ‘힙’한 주제로 여겨질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샵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대체로 플라스틱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 문제, 공장식 축산과 육식,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 등의 지구 환경문제에 두루두루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 실천의 사례가 되면서 ‘지구를 생각하는 생활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주변에 전달하고 확산하느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부모님 등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묵묵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시는 분들은 거의 달인 수준인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본 바로는 자녀 세대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부모님을 설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가족들이 가장 어렵구요(웃음). 그리고 지구 환경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이번 미국 대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많은 환경 정책들이 후퇴했지만 바이든은 파리기후협정으로 다시 복귀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두 대통령 후보가 기후 문제에 정반대의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지지자들 중 다수가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여긴다는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보여준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미 지구는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은데,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상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인식이나 관심이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샵을 찾아오는 소비자들이 저에게 와서 재활용이나 환경문제 등에 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지만, 저도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나 지자

체,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그린' 관련 정책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더 많은 예산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알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사회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는 동기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직접적인 이익 또는 손해가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아니면 의무감이 생기면 변화하게 되죠. 환경과 관련한 문제는 이 가운데 세 번째와 가장 관련이 많은 듯합니다. 아직까지는 당위적이고 계몽주의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환경사회학적으로 보자면 기후 문제는 가해자는 불특정 다수인데 피해자는 특정 지역이나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모든 인류가 피해를 입게 되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어떤 실천을 하고 있고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신지, 지금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송정화 설거지나 청소 등에 쓰이는 천연 수세미를 공급받고 있는데 올해는 긴 장마로 인해 수확량이 작년에 비해 반 이상 줄어든 농장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산 수세미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수세미뿐만 아니라 고구마, 사과 등 다른 농작물도 비슷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가장 먼저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뒤늦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최근 <플라스틱의 모든 것 The Story of Plastic> (2019)이라는 다큐를 봤는데, 이 다큐에서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석유 찌꺼기이고 이것을 자원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석유 대기업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권장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쓰이고 플라스틱을 만들 때 사용되는 첨가물들이 환경호르몬 등의 문제를 또 일으킵니

다. 현재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되는 소재도 이전보다 질이 낮은 플라스틱으로 딱 한 번 재활용이 됩니다. 소비자들이 분리배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분리수거 관련한 노동자들이 건강상의 위험을 받으면서까지 일해도 우리나라에서 수거된 플라스틱은 질이 떨어져 저품질의 단섬유나 솜으로밖에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실(장섬유)로 만든 옷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전량 일본에서 수입되는 플라스틱을 원재료로 하여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는 가성비 높고 질 좋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플라스틱 생산기술을 가진 나라인데, 재활용은 10~15%도 되지 않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아까 '기후 악당' 이야기도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 1인당 탄소배출량은 4위입니다. 파리기후협약 이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마이너스 10%를 달성했는데 우리나라만 2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전 지구적으로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일인데 정부도 시민도 기업도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합니다.

차유미 지금 소비자의정원에서 하고 있는 '플라스틱 다이어트 캠페인'은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총량은 줄이고 재활용은 높여보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재활용률의 수치는 높는데 실제로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은 열심히 분리배출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재활용이 되고,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 총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자원순환 기본계획' 같은 것을 만들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구현되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환경부와 플라스틱 생산업체 등과 포럼을 진행했었는데, 정부에서는 PP, PE, PS, PET, PVC 같은 기존의 포장재 재질 표시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

통, 어려움으로 변경하고 ‘어려움’ 단계의 제품이 줄어들기를 기대했지만, 실제 이렇게 바꾸는 생산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생산공정도 바뀌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포장지가 위생 문제 등과 관련되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이쿱의 경우 소비자 조합원들이 플라스틱 포장을 줄이자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면서 수미김이라는 김 생산업체가 소비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플라스틱 트레이를 뺀 김을 생산했습니다. 새로운 생산설비를 만드는 데 수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구매해서 매출이 늘었고 이후에 다른 대기업도 트레이를 뺀 김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또 선물용 상자의 플라스틱 손잡이도 종이로 바꾸고 종이상자도 사탕수수로 만든 친환경 재질로 바꿨습니다. 소비자가 의견을 내면 생산자는 적극 수용하고, 소비자도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매로 힘을 실어주는, 소비자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례입니다. 친환경 소재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고, 적극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주 반려동물과 기후위기 관련해서 재미있는 해외 사례가 있는데, 개똥을 퇴비화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반려견 산책을 하다보면 배변을 하게 되는데 이것 치우지 않으면 하천으로 흘러가고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산책을 할 때 배변을 하면 보통 비닐에 싸서 버리게 되는데 생분해 비닐을 사용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종이봉투도 나왔지만 가격도 높고 수분 처리 문제로 대중화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농무부에서는 ‘개똥 퇴비화 핸드북’을 만들기도 하고, 미

국, 영국, 캐나다에서는 개똥을 전기에너지로 바꾸어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2017년 캐나다에서는 공원에 개똥을 수집하는 통을 설치하고 이 통에서 발생하는 가스로는 전기를 만들고 부산물은 퇴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반응이 좋아서 이런 통을 설치한 공원을 5개로 증설했는데 시범 운영 기간(5개월) 동안 수집기 한 개당 13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되었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630kg이 줄고 개똥 쓰레기 수백 리터가 처리되었습니다. 미미하지만 골치 아픈 배설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마술 같은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강아지뿐 아니라 고양이를 반려하는 사람들도 고양이 배설물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친환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사람의 배설물로 전기를 만드는 시도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헌 국내에서도 사람 배설물로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 화장실 이름이 ‘운동주’인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의미라고 합니다(웃음). 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 ‘똥본위화폐-本位貨幣, feces Standard Money, fSM’라는 쿠폰이 나오는데 이 화폐로 커피도 사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설비를 설치하면 개인주택에서도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동네햇빛발전소 이사이기도 한데 탈핵운동의 연장선에서 태양광협동조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비자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발전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외국에도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 전기요금보다 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더 높은데, 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높은 발전 생산단가와 전기요금 사이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초

기에 태양광이 확대되는 데 기여를 했지만 태양광이 늘 발전 가능한 게 아니고 날씨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재정을 계속 투입해야 해서 2012년에 없애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전기전력시장이 민영화되기 시작하면서 일정 용량 이상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 전기 생산량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할 의무를 지운 것입니다. 발전사업자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발전된 전기를 사와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사 오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은 경매 방식이고 최저가 입찰 방식이다보니 대규모 사업자나 우드펠릿(톱밥 등으로 만든 바이오 원료) 등의 사업자가 유리해서 이 제도 도입 이후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이 많이 도산했고 에너지협동조합들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한국형 FIT^{Feed in Tariffs},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다시 도입해서 30~100kW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고정가격으로 20년 계약을 해주는 것을 한시적으로(5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협동조합들이 태양광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제도가 불안정한 면도 있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점은 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산을 깎아서 무분별하게 태양광 시설을 만들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 부지 말고 공공시설물 옥상을 이용하면 좋은데 안전이나 관리 등을 문제 삼아 꺼리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사실 태양광에너지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최소 300kw 이상이 생산되어야 기본 운영이 가능한데 그만큼을 생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태양광발전과 관련해서는 오해도 많습니다. 태양광발전 시설 전체에서 올해 장마 때 손실된 것은 1%에 불과한데 태양광발전 시설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원전은 6곳이 멈췄습니다. 어느 것이 더 위험한지는 자명합니다. 물론 태양광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발전 시설 난개발이나 전기를 저장하는 리튬배터리를 전고체 배터리나 수소로 저장하는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일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사회 사회적경제가 많이 활성화되기는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실천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더 유리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김현주 반려인이다보니 사료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곤충 단백질로 반려동물 사료를 만드는 시도가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좋은 사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는 유명한 기업들이 있고, 한국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들에서 양질의 곤충 단백질 사료를 생산해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질 좋은 사료 생산은 물론 소비가 확대된다면 환경에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후위기 문제에서 육식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무조건 육식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전 세계 인구보다 가축 수가 7~8배가 많고, 온실가스의 16.5%가 축산업에서 발생하며, 축산업으로 인한 오수는 인류 활동으로 발생하는 오수보다 많습니다. 가축을 방목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목초지의 68% 이상이 파괴되고 매년 우리나라 토지만큼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 중 3분의 2가 가축을 키우고, 도축하고, 운반하는 등 육식과 관련되어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식 축산이 사육과 생산 과정에도 문제가 많지만, 축산 환경으로 인한 동물 전염병과 살처분을 하면서 일어나는 환경문제 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채식이 늘어나야 하는데 생협들이 이런 물품 생산에는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아이쿱에서

도 자체 공장을 세우면서 채식 라면과 채식 만두를 생산한 지 오래입니다. 한살림 같은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풀무원이나 오뚜기 같은 대기업에서도 채식 라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채식 도시락을 선보이는 등 많은 변화를 느낍니다.

차유미 기후위기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축산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들 수 있습니다. 소가 호흡하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트림과 방귀, 분뇨로 인한 메탄가스는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줍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육식을 하지 말자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식생활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식 위주 식단으로 질병도 많아지고 기후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니 육식에서 채식으로 조금씩 전환하는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이쿱생협에서도 치유와 힐링 정책을 펴면서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채식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치유하는 식단이 지구도 치유를 하니까요.

김현주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자들이 채식 물품들을 생산하고 소비자도 채식 물품을 소비하는 것, 모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반려하는 고양이가 완전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저라도 육식을 좀 줄이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비건이 될 수는 없으니까 한 명의 비건보다 육식을 줄이려는 사람 열 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식을 강요하지 않고 조금씩 줄이자는 이야기는 점점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 생협들이 식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오래전부터 기여해온 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먼저 체감하고 먹거리 부분에서 다양한 노

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생협 외에도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나 강점은 무엇일까요.

이상현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잘할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전 지구적 시장경제에서 벗어나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내에서 순환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먹거리 자체도 전 지구적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생협 등의 활동이 중요한 것이고요, 자율적인 영역을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역 내에서 경제적으로도 순환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사회적경제 조직만이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 하는데 핵심은 바로 ‘돈, 화폐’입니다. 지역화폐가 잘될 수 있으려면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1920~1930년대 유럽이나 미주에서 지역화폐가 아주 잘 작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스탬프화폐stamp script라고도 불렀는데 보유하고 있을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축적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이 갈 수 있게끔 잘 순환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성공하려면 화폐의 성격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역화폐가 자꾸 상품권 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데, 소비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자본 축적 기능보다는 순환 기능이 중심이 되는 화폐의 설계가 필요하고, 이전 지역화폐 운동의 쿠폰 정도 수준에서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화폐에 도전할 수 있는 화폐를 지역에서 만들어내고 유통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영역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역 단위 정도의 생산과 소비가 다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역화폐가 잘 유통될 수 있고 화석연료가 적게 사용되는 구조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

실 우리나라 경제가 화석연료 의존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일은 일자리 문제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석연료 의존 중심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합니다. 탈화석연료로 이동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생기는 노동의 재배치와 재배치를 위한 교육 등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노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한데, 임노동이 모든 노동이 아니므로 돌봄노동 등을 포함해서 노동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잘 평가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사회적경제가 고민해서 같이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주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생계를 위한 노동시간은 긴 반면, 나를 돌보기 위한 노동(가사노동 등을 포함해서)에 들일 시간은 부족하고 가정에서 돌봄노동 역할 분담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 가전제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체력 저하도 한 몫을 하구요(웃음). 분리수거도 시간이고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이 다 시간인데, 기본소득 같은 것이 보장되면 생계를 위해 나가서 하는 노동을 좀 줄이고 나와 가족, 지구를 돌보는 노동에 시간을 더 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화 앞서 말씀해주신 지역순환경제 이야기에 덧붙이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서울도 각 구마다 지역화폐가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역화폐로 기후위기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업체들을 지원하면 좋을 듯합니다. 또 지구를 생각하고 기후변화를 늦추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지

우기, 온실가스 감축 등에 동참하는 소비자에게 지역화폐로 직접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로웨이스트샵도 생존을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를 해야 한다고 조언해주는 분들이 많은데, 온라인 판매를 했을 때 생겨나는 택배 쓰레기 문제에 대한 고민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이런 오프라인 상점들이 살아남아야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기후변화 문제, 쓰레기 문제 등에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전에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런 문제에 관심이 적다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제로웨이스트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도 사내에서 그러한 감수성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안에서 먼저 사무와 생산, 배송 등의 사업에 사용되는 물품들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품들로 대체하고 환경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이 많이 확장되었고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김현주 인식 자체가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친환경적으로 기업 살림살이를 운영하려면 비용이나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보니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 제로웨이스트샵들은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나요?

송정화 오프라인 판매만 하는 곳도 몇 군데 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곳들이 더 많고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온라인 마켓들도 많아졌습니다.

차유미 작년엔 AMP 수업을 들으면서 서울 수도권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거의 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그런지 온라인이나 SNS 보다는 사람을 통한 판매가 훨씬 더 많다는 응답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사실 사회적기업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지원이 중단되는 시점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 내에서 힘을 가지고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시민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일본의 한 도시락업체 사례를 봤는데 여기는 매일 도시락을 다 완판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0%이고, 이렇게 되는 데 지역 내 회원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지역사회 안의 관계망과 지역 시민들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차피 올 변화가 재택근무나 디지털화 등에서 좀 더 빨리 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된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많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지요.

송정화 앞으로 코로나 말고도 주기적으로 더 많은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던데, 손님들과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기후위기를 인식

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찌면 많은 이들에게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회 정책의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정책뿐 아니라 사회적경제 내에서도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요.

차유미 요즘 ‘2020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FortNight)’ 행사 기간이어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공정무역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쉽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 지역 커뮤니티에서 하는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공정무역 도시 사업도,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일도 내 지역, 우리 동네로 가지고 들어와서 대응하는, 그런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상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공간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공간을 재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살기 좋게끔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파리의 ‘15분 도시’ 정책처럼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도시계획 등이 필요합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연구원이 2020 사회적경제 국제 포럼에서 ‘그린뉴딜 30분 사회적경제 서클’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역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을 펼쳐, 걸어서 30분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탄소 중립 사회를 준비하는 사회적경제 도시를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사실 도시 공간 재조정을 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 이용이나 부동산의 문제가 걸립니다.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자산 소득 격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나 커먼

즈 확대 등을 통해 토지 이용, 도시계획, 수도권 밀집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캠페인의 수준이 아니라 혁명에 가까운 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정치의 힘이 중요합니다.

김현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회의도 하고 교육 활동도 하고 있는데, 편리하고 좋긴 합니다. 다만 협동조합인으로서 고민인 것은 비대면 방식만으로 관계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는지, 비대면 방식이 어려운 계층이나 직접 만났을 때 생기는 온기나 관계 맺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고민입니다. 전염병과 관련한 정책과 관련해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얘기는 공장식 축산과 동물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문제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 원인은 동물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여서 생기는 원인도 있는데, 돼지들을 모두 죽이는 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구실로 개농장이나 돼지농장에서 쓰레기가 먹이로 유통되는 문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반려동물까지도 공장식으로, 너무 많이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는데 이 또한 생명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어려운 일을 계속해나가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요.

차유미 아는 게 병이라는 말처럼 알게 되면 아픔을 느끼고 스스로를 바꿔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부터 실천하면 가족들도 바뀌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저는 10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생활하는 편이지만, 기후위기를 실감하

면서 10년 후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알 수 없는 미래가 있다는 것이 무척 우울했습니다. 한편 사방에서 기후위기, 기후위기 하나까 때로는 홍보 문구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저희 단체에서도 기후위기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가 단순한 관심과 지지를 넘어 직접 참여하고 행동하는 캠페인을 중심으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소비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는 캠페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승정화 20대 때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은 있었지만 실천은 잘 하지 못해 마음의 짐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로웨이스트샵을 운영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스스로 실천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인 부분이 컸습니다. 제로웨이스트와 채식을 지향하는 생활을 하면서 분명하고 명확한 삶의 기준이 생겼고 저 스스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전에는 뭔가 찝찝하거나 죄책감이 드는 선택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현 저도 아는 것이 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위)에 ‘적정 원전 수’를 파악하라는 요청을 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끝장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입장의 지속위와 시민사회 대표 3명, ‘더 필요하다’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자부 대표 3명, 40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8~9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위원회와 시민단체 입장에 대해 전문가들이 바로바로 자료를 들이밀면서 조목조목 따졌고,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쳤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어린 조카 생각이 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탈핵운동을

계속했는데 아마 제가 아는 진실과 그들이 이야기하는 진실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고 실천하는 점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분노와 억울함 같은 감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분들 중에도 원자력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석탄화력의 문제가 더 심각하고 위험하다는 입장이신데, 그런 분들과도 논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김현주 저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고 배웁니다. 평화기행 때 원폭 피해자를 만나고 나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일본 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을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니 더 깊게 와닿았습니다. 또 후쿠시마 지역에 남겨진 반려동물과 그 반려동물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 또한 내 이야기 같았고요,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를 갔더니 서울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고압 송전탑이 얼마나 많던지, 에너지 문제가 피부에 더 와닿았습니다. 축산동물의 문제가 동물복지뿐 아니라 기후위기와 연관되어 있다고 믿는 친구가 보수적인 직장 회식에 가서도 상추에 밥만 먹으며 곳곳이 채식을 하는 것이나, 환경을 생각하며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뭐라도 조금씩 해봐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내 작은 실천이 또 누군가에게 미미한 영향이 되길 바라기도 합니다.

사회 인간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인데, 지금은 윗세대가 누리는 풍요의 엄청난 대가를 아랫세대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속 가능한 사회와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지금 가장 중대한 소임이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 비장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기쁨으로 하루하루 걸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일영

한신대학교 경제학 교수

생태적 전환의 근본 대책 : ‘자력 경제’ 넓히기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자력 경제’의 공간을 늘려가면서
도시와 농촌 양쪽에 충격을 줘야 한다.
생산과 소비 사이의 모순을 완화하려면,
도시와 농촌의 분리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 (...)
도시가 농촌을 포위·연결하여
생태적 전환을 촉진할
씨앗을 키워야 한다. ”

1. 토마토와 기후위기¹

토마토를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8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한 달 사이에 110%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아침 식사로 토마토를 즐겨 먹는데, 체감으로는 이 시기에 세 배 정도 가격이 똬 것 같다. 급기야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에 토마토를 빼고 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토마토가 귀해진 것은 변덕스런 기후 때문이다. 올여름 긴 장마와 태풍이 몰려왔고, 침수·산사태·강풍 피해가 심각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의 태풍 활동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빈도와 강도가 모두 증가했다. 미국 서부 산불 사태는 마치 화성 사진을 방불케 하는 풍경을 연출했고 무려 한 달 가까이 대기오염 경보 상태를 만들어냈다. 한반도 주변의 폭우나 미국 서부의 산불 모두 북극 기온이 높아진 탓이라고 한다. 재난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는 준엄하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또는 2℃ 아래로 유지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2018년 송도에서 열린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48차 총회에서는 1.5℃ 제한 목표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제로 상태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구온난화 2℃가 현실화되면 지구 전체에 존재하는 10만 5000종의 생물 중 상당수가 멸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토마토는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을까?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 국가 체

1 이 부분은 이일영, 「토마토와 스마트팜」(『경향신문』 2020.10.8.)에 의거함.

제에서는 1.5℃ 목표는 물론 2℃ 목표도 충족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체제 전체를 개선·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만 1900~2100년 사이에 지구 온도는 2℃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상당 기간 기후변화로 인한 혼란과 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토마토가 멸종되지는 않겠지만, 이전처럼 쉽게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후위기의 원인을 공격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후 위기에 적응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당분간은 극심한 기후변동과 재난 상황을 견뎌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토마토를 구해낼 수 있을까? 기후위기를 막을 근본적 방법은 무엇일까?

2. 자연의 착취를 막는 근본적 해법

기후 온난화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자연 착취적 산업화에 있다. 급속한 산업화는 자본주의 체제와 국가사회주의 체제 모두에 내재한 경제 원리에 의해 이루어졌다. 두 체제 모두 산업화를 통한 잉여의 축적을 추구했다. 생산과 소비 사이의 분리라는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는 한 자연 파괴의 경향을 차단하기는 어렵다. 자연의 착취와 파괴를 막는 근본적 해법은 자급-생존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마리아 미스와 반다나 시바가 엮은 『에코페미니즘』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자급적 관점^{subsistence perspective}’이라고 지칭한다. 물론 ‘새로운 세계’는 빅뱅이나 대혁명과 함께 오지는 않는다. ‘새로운 세계’는 사람들이 여전히 낡은 세계에 살면서도 새로운 씨앗을 심기 시작할 때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씨앗을 심기 시작했고, 주로 여성이 이 씨앗을 심을 거라는 것이, 『에코페미니즘』의 주장이다.²

그러면 어떻게 ‘자급’의 씨앗을 심을까? 『에코페미니즘』의 저자 마리아

미스는 두 가지 사례에 주목했다. 하나는 물의 보존과 자급을 위한 인도 민중의 운동 사례이고, 또 하나는 쓰레기 환경문제를 자급적 관점의 틀로 해결하고자 한 독일의 어느 콤포의 이야기이다.³

인도 카나뿌르 지역 민중의 발리라자 댐 운동은 대안적 개발, 대안적 물 관리법, 대안적 농업을 탐색한 사례이다. 이는 농업에 기초한 탈중앙화된 산업발전의 길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지만, 한국처럼 산업화와 도시화가 성숙한 곳에서는 이제 현실에 응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비해 독일의 쾰른공동체 사례는 선진 산업국가에서의 대안체제 운동의 길을 보여준다.

독일과 한국은 근대화 초입에서 매우 다른 출발선에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분단이 되었지만, 유럽과 동아시아의 사정은 달랐다. 그렇지만 어느덧 산업화, 도시화, 글로벌화의 수준에서 한국과 독일은 닮은 점이 많아졌다. 새로운 운동의 길을 개척하는 데 참고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쾰른 사회주의자조공동체SSK는 1970년대 학생운동에 뿌리를 두었다. 일군의 쾰른 학생운동가들은 부유한 산업사회의 노동계급에 대한 기대를 거두고 낙후되고 주변화된 집단들과 함께 콤포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들은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석탄 운반, 중고품 수집, 허드렛일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꾸려갔다. 정치 활동으로는 도시화와 철거에 항의하는 공유지 점거 운동에 앞장섰다.

이들은 1986년 체르노빌 참사 이후 환경문제의 중대성을 자각하고 일대 전환을 시도했다. 당시 운동의 지도자였던 로타르 고테와 매기 루케

2 마리아 미스(Maria Mies) ·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 1993,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 손덕주 · 이난아 옮김, 창비, 2020. 40~41쪽.

3 이하 마리아 미스, 『새로운 비전의 필요성 : 자급적 관점』, 『에코페미니즘』 참조.

는 ‘자급(subsistence)’ 개념의 전략적 의미를 재발견했다. 그들은 ‘자급’ 개념의 라틴어 어원 ‘subsistre’에 ‘가만히 서 있기, 멈추기, 고집하기, 저항하기, 물러서 있기, 뒤쳐진 채 남아있기’ 등의 여러 의미가 있고, 현재적으로는 ‘기본적인(최소한의) 생필품으로 살아갈 수 있음’ 혹은 ‘자력으로 존재하고 스스로를 부양하기’라는 의미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쓰레기 문제의 정치적·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기물 쓰레기에 대한 운동적 권리를 주장했다. 쓰레기 처리를 기업의 독점에 의존하는 데 반대하고, 지방정부와 계약하여 공동체에 의한 퇴비사업을 전개했다. 이들 중 일부는 더 나아가 자급농업을 시도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들은 황무지를 매입하여 개간하면서 생태적으로 의미 있는 일과 자연 속에서 협동하는 즐거움을 자각했다. 뒤이어 농장을 구입하여 실험적 유기농법을 실행하고 가축을 사육하기도 했다.

이러한 퀴른공동체의 시도가 지구를 치유하려는 근본적 접근법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생태적 시도가 도시와 농촌, 산업과 농업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퀴른공동체에서 실험한 ‘자급’ 프로젝트가 사회 전체의 관행적 생산과 관행적 소비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떠오르는 하나의 대답이 도시농업과 스마트팜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잘 활용하면 근본적 해결책의 현실성과 영향력을 더 높일 수 있다. 스마트팜 농업으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면, 소규모 공동체 안의 ‘자급 생존’이 광역 단위 생태계의 ‘자력(自力) 경제’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본다.⁴

4 『에코페미니즘』의 번역자들은 subsistence를 ‘자급’으로 번역했다. ‘자급’은 일정 범위 내에서 공급을 해결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퀴른공동체에서 이 개념을 사용했을 때는 ‘최소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과 ‘자력으로 살아가는 것’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염두에 두었던 것 같다. 경제발전과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생산과 소비의 수준은 높아졌고 경제활동의 영역은 더 확대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자력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더 중요해졌다고 본다. 따라서 subsistence를 ‘자력 경제’로 번역하는 것이 현실 적용성을 더 높인다고 생각한다.

3. 스마트팜의 현실과 가능성 : ‘그린Grinn’의 사례

스마트팜은 농가와 기업 양쪽에서 성장하고 있다. 스마트팜 논의는 농업에 기술 진보의 성과를 적용하자는 데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들어 전자산업 발전은 정밀농업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졌다. 정밀농업은 최적 지역, 최적 시기, 최적 처방에 바탕을 둔 농업생산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이었다.

스마트팜은 처음에는 실험실에서 시작되었다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농업 현장에 보급되었다. 농촌진흥청은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여 토마토 재배농가에 적용하고 있다. 1세대 스마트팜이 인터넷을 통한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에 중점을 두었다면, 2세대 스마트팜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고도화된 기술을 누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문제다. 어떤 농업인이 스마트팜을 경영할 것인가? 막대한 투자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소비자에 대한 판로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스마트팜이 해답을 내놓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투자비의 증가는 보조금을 증대시키고 농업경영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소규모 농가에서는 제한적인 기술 투자만 이루어질 것이고 이마저도 정부 재정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대규모 농가가 스마트팜을 도입하면 정부 보조의 규모가 더 커지고 소규모 농가와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도시의 시장 수요와 긴밀히 연결되지 않을 경우 과잉생산 파동의 진폭이 커질 수 있다.

퀵콘공동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전환하는 기술을 채용하는 생태적 전환의 전략 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한 사례에서 응용해볼 점이 있다. 활성화된 도시 지역공동체가 있다면, ‘자력 경제’의 공간을 만드는 씨앗으로 스마트팜을 활용할 수 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결성된 ‘도시재생기업CRC’의 주요 사업으로 스마트팜을 운영해볼 수 있다.

현재 앞서 스마트팜 운영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주체는 주식회사들이다. 필자는 2020년 9월 11일 한신대 캠퍼스타운 및 강북구의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서울 마곡지구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그린Grinn'의 도시농장을 견학했다. 여기서 자극을 받은 점은, 스마트 기술을 도시 생활의 '자력 경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자력 경제'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유통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린'이 뛰어난 점은 지구온난화의 위기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것을 기업 가치로 내세운 점이다. 농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10%를 배출하고 있는데, 배출가스 저감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도시농장은 병충해로부터 차단되어 농약을 투입하지 않고, 토양 산성화를 유발하지 않으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통제하여 지구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린'은 특수 LED가 장착된 수직형 농장에서 13종의 과채류와 엽채류를 생산 중이다. 수직형 농장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기존 스마트팜에 비해 공간비용, 유통비용, 노동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농장을 통제하는 ICT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국제 가격이 많이 안정되어서 수입해서 사용한다. 핵심 기술은 특수 양액을 이용한 생육 기술이다. 그린의 특수 양액은 토마토의 경우 생산량을 2배 증대시키고 아연 함량을 5배 증대시킨다고 한다. 또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중력을 이용하여 수경재배를 행한다. 세로 재배 방식은 공간도 줄이고 작업자에게 불편한 자세를 요구하지 않고 인건비를 낮추는 장점이 있다. 전체적으로 생산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시장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린'은 시설장비 판매를 통해 매출을 확대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다. 시설장비 판매는 농가가 받는 정부지원금을 통해 매출을 단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는 회사 운영에 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보조금에 의한 스마트팜 시설 과잉은 곧 생산 과잉으로 이어지

고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본다.

‘그린’은 기존 관행농업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다루지 않으려 하고 있다. 현재 대규모 농가들의 기술 수준이 매우 우수하고 정부 재정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스마트팜이 경쟁할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이다. 대신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소비자와의 근접성 때문에 농장의 유통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본다. 특수채소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서울과 경기도 시장 수요의 1% 정도는 도시농장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빈 공간을 활용하고 시설비를 낮추는 한편 1시간 이내 배송할 수 있는 이점을 갖추면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시설 플랫폼의 경우 국내 공급보다는 해외 수출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안정적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도시 스마트팜의 최대 문제도 역시 시장 문제다. 수요 예측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대목이다. 과잉생산이 되면 사업 자체가 위기에 빠지기 때문에 주력 품목에 대해서는 계획 생산, 계획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실수요 데이터를 축적하여 빅데이터를 형성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별 수요를 세밀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시 스마트팜은 레스토랑 같은 대형 수요처의 요구에 기민하고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육류, 치즈, 빵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채소는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레스토랑은 주방 인력의 숙련 문제에 항상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반가공 상태의 원재료를 선호한다고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스마트팜 운영을 위해 ‘그린’에서 배울 점은, 도시 안에서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지구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기술 채용에 대한 적극성과 기업가정신의 중요성도 실감하게 한다. 지역 주민들의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공간, 기술, 노동력, 시장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소를 연결·운영하는 주

체의 능력이 중요하다.

‘그린’의 CEO가 도시와 농촌을 넘나들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그는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료 무역 업무를 담당했다. 농업 부문에 뛰어들기로 하고 농촌에 들어가 2000여 평 정도를 임차해서 생산에 종사했다. 그러나 토지를 구하기 어려워 규모의 한계에 직면했다. 농촌의 소규모 농가로서는 생산과 소비의 괴리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도시의 수요에 부합하는 도시농장을 만들기로 했다.⁵

‘그린’의 CEO에게 지역 차원의 공공시설이나 공간을 이용한 스마트팜 운영의 가능성에 대해 질문해보았다.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 전문 기업 등이 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답이었다. 그러나 ‘그린’의 경우 투자자소유기업이므로 투자자의 이익을 존중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농업인, 기업가의 경험을 거처온 입장에서 보면, 공공기관이나 정부를 상대하는 것은 지속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다고 했다.

스마트팜이 개별 농업인이나 투자자소유기업에 의해 소유될 경우, 생태적 전환의 가치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결국은 개별 소득과 이익을 위해 운영될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근본적 방안은 생산과 소비를 결합한 경제의 영역을 확대해가는 것이다. 소비 수요는 도시에 있다. 자급의 영역을 확대하려면 생태적 가치를 정립한 도시 지역공동체를 작동시켜야 한다. 이들이 일정 규모의 자원을 공유자산으로 확보하고,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스마트팜을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적 도시농장이 생태적 전환을 위한 ‘자력 경제’의 씨앗이다.

⁵ ‘그린’은 2016년 잎채소 재배를 시작했는데, 이때는 노지재배와 하우스 재배를 병행했다. 2017년 가로수직 수경재배 시설을 개발했고, 2018년에 서울 마곡지구에 시범 시설을 개설했다. 2019년에 김포에 세로수직 수경재배 시설을 설치했고, 2020년에 다시 노지 농장을 확보했다.

(<https://www.griin.co/>)

4. 도시와 농촌이 연결된 ‘자력 경제’

그런데 도시농업만으로는 도시 안에서 ‘자력 경제’ 영역을 충분한 규모로 확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자칫 차관 속의 실험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린’의 CEO는 기업의 생존을 우선하기 때문에 관행농업과의 경쟁을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기존의 농업·농촌을 그대로 두면 생태적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시에서 농촌을 연결하여 생산과 소비의 모순을 극복하는 영역을 만들어가야 한다.

기존 농업·농촌의 변화 조짐은 잘 보이지 않는다. 농정에 관계하는 정부와 농업인들 모두에 ‘생산주의’ 경향이 구조화되어 있어 생태적 전환의 동력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다. 대농이든 소농이든, 정부의 재정자금을 형성하고 배분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현재의 농업 구조를 변화시킬 유인이 약하다.

‘생산주의’ 농업이 작동하는 현실을 실감나게 표현한 말이 ‘다방농사’와 ‘전화농사’이다. 1990년대 초반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앞두고 정부는 농업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이때부터 쏟아져 나오는 각종 보조금과 융자금을 얻으려고 농업인들이 읍내 다방을 이용하는 상황이 늘어났다. 지금의 대규모 농업인들은 상당수가 ‘다방농사’의 후예인 셈이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들은 이제 노인이 되어 직접 농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 농기계 가진 이에게 모내기과 수확을 맡기고 샅일꾼을 구하는 ‘전화농사’를 짓는다.⁶

현재 농정 전환에 필요한 제도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농민기본소

6 김정섭, 「다방농사에서 전화농사까지」, 『한국농어민신문』 2020.10.8.

득과 공익형 직접지불제이다. 그러나 이들 제도가 얼마나 생태적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⁷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농민’들에 한하여 소득 보조를 행하자는 주장이 많다. 지자체별로 소액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상대적으로 영세농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영세소농이라고 해서 반드시 더 생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고령화된 농가가 생태적 기준을 지키기는 더 어려울 수 있다. 또 농촌의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지 않고 농업경영 여부를 선별하는 것은 기본소득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노령층에서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직접지불제란 농업인의 일정 행동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간 직접지불제는 쌀농사에 편중되어 지원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래서 직접지불제를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연결시키는 것이 농정 개혁의 핵심 과제로 논의되었고, 이에 따라 2020년 예산에 공익형 직불제 예산 2조 4000억 원이 편성되었다. 정부와 농업계 사이에는 공익형 직불제 예산의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지만,⁸ 정작 중요한 문제는 공익적 기능의 개념과 실현 수단이다.

공익적 기능에 대한 외국의 논의가 많이 있지만, 한국 실정에 맞는 공익 개념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7 공익형 직불제, 농민기본소득, 토지 기본자산에 관해서는, 이일영, 「농업의 ‘탄소중립’을 이루려면」(『경향신문』 2020.11.5.)에서 논의한 바 있음.

8 정부가 2021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운용재정계획’에는 공익형 직불금 예산 2조 4000억 원을 5년간 유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 TF팀은 직불제 예산 규모를 2022년까지 5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농어민신문』 2020.9.8.

중 어떤 것이 공익적 기능인지, 농업이 환경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농업에는 친환경적 기능도 있지만 반환경적 기능도 있다. 선진국에서는 환경보호 관련 법규를 농업생산 과정의 농민들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이를 ‘교차준수’ 제도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농업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고 교차 준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⁹

농업 내부에 촘촘한 환경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오히려 근본적인 전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높은 토지가격 수준이 유지되면 농업·농촌은 외부로부터 폐쇄된 성이 될 수밖에 없다. 도시에서 이주한 청년들이 농지를 획득하기가 어렵고, 생산주의 농업에서 탈피할 동력이 형성되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농업의 농촌으로의 연결과 외연적 확장이 생태적 전환의 계기를 새롭게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도시에서 농촌을 연결하는 ‘자력 경제’의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 주체로서의 공동체와 핵심적 생산요소로서의 토지·시설·유통 인프라가 필요하다. 공동체의 발전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공유자원을 조성하고 공동체와 그 이용에 대한 계약을 맺도록 한다.

특히 생태적 전환을 주도하는 경영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지 기본자산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토지 기본자산은 두 가지 방향으로 조성한다. 한편에서는 공동체운동을 통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또 한편에서는 정부·지자체·농지은행·주택금융공사 등이 협력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¹⁰ 이 기본자산을 이용하여 도시와 농촌 양쪽에서 생태적

9 김태연·배민식, 「공익형 직불제의 의의와 과제」, 『농정연구』 제69호, 2019 봄.

스마트팜을 운영한다. 농촌의 경관 유지도 반드시 농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 농지로의 유지비용이 높은 곳은 다른 방식으로 어메니티^{amenity} 효과를 높이거나 재야생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자력 경제’의 공간을 늘려가면서 도시와 농촌 양쪽에 충격을 줘야 한다. 생산과 소비 사이의 모순을 완화하려면, 도시와 농촌의 분리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 농업·농촌이 독자적으로 생산과 소득 증대를 추구하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농업·농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전환의 속도는 너무 느리다. 도시가 농촌을 포위·연결하여 생태적 전환을 촉진할 씨앗을 키워야 한다.

10 이일영, 「기본소득에서 기본자산으로 : 동아시아형 뉴딜과 청년 기본자산제」, 『동향과 전망』 제110호, 2020.10.

이진백
<라이프인> 편집장

지구 살리기,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해야 할 때

“ 미래는 우리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이제는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고 묻기보다는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가?”를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위해, 지금의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해야 할 때이다. ”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일어난 기후위기

상상조차 못했던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류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더 이상 기존과 같은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못지않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이미 우리 현실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바로 ‘기후위기’ 문제다. 코로나19 이후 맞이하게 될 새로운 사회도 기후위기 문제를 결코 비켜갈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은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이다. 미국의 차기 리더가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의제로 언급할 만큼 기후문제는 이제 시대의 화두가 됐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019년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서 “수십 년 동안 인류는 지구와 전쟁을 벌여왔다. 이제 지구가 반격을 해오고 있다. 자연을 향한 우리의 전쟁은 중단돼야 한다.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은 점차 깨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올해 4월 22일 지구의 날 50주년 기념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는 더 심각한 환경 비상사태”라고 강조하면서, “기후 파괴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월 24일 국회가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공식 규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세계 16번째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언하는 국가가 됐다. 결의안은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라며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해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 상황’임을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서도 기후변화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 경제활동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잠시 수그러들었던 대기 중 온실가스^{GHGs} 농도 수치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이는 세계 기상 및 환경 관련 주요 기관들¹이 참여한 공동 프로젝트로 작성한 종합 보고서를 통해 공표됐다.

기후위기는 농업, 먹거리 위기와도 직결되어 있다. 일상적인 기후변화로 계절의 구분은 모호해진 지 오래고 절기에 따라 농사짓던 농부들의 지혜는 빛이 바래고 있다. 생산지에서도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은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해지는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조성해왔다. '계약생산-책임소비'를 핵심 운영 원리로 하여, 협동조합 안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두 주체가 서로 얼굴이 보이는 '호혜'적 관계로 거래하며 독자적인 시장을 구축해왔다. 친환경 생산자와의 계약생산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생협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이 어려워진 작황이 가져다주는 결과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영향을 받는 상황이니 이제 생존을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협의 실천

한국의 생협은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을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생협연합회 4곳의 사례를 소개한다. (가나다순)

1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세계기상기구(WMO), 유엔환경협약(UNEP), 유네스코(UNESCO), 정부 간 해양위원회(IOC), 전 지구 탄소프로젝트(Global Carbon Project, GCP)

1. 두레생협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강화하고 심각성을 깨닫게 하며 이를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레생협은 기후위기와 관련한 교육과 외부 강의 등을 제공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조합원들의 인식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두레생협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강의한 ‘플라스틱 시대에서 자원순환 사회로’ 특강을 기획하여 재활용을 위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부터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되는 추세 속 생협의 역할에 대해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연말에 열린 ‘두레 자원순환 토론회’에서는 자원순환을 위한 포장재 정책과 개선 방향, 자원순환 실천 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조합원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올해 6월에는 조천호 경희사이버대 특임교수(전 국립기상과학원장)를 초청하여 조합원 대상으로 특별 강의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두레생협은 2019년부터 두레생협 온라인몰에서 생활재를 주문할 때 스티로폼 상자에 포장하여 받는 대신 조합원이 집에 있는 아이스박스나 빈 상자를 집 앞에 두고 물건을 받는 자원순환운동 '마이박스 MY BOX 캠페인'을 시작했다. 또한 2020년에는 조합원들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바구니나 에코백, 종이백, 아이스팩 등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두레생협 매장에서 재사용하는 '생활의 재개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

으며, 배송 시 고풍수성수지^{SPA}가 아닌 100% 물을 사용한 물아이스팩을 사용하도록 정책을 바꾸었다.

두레생협은 “2011년 영국 환경청에서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고려하면, 에코백은 131번, 폴리프로필렌^{PP}백은 11번, 종이백은 3번 이상 재사용해야 비닐봉투 대체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며 “따라서 재사용되지 않는 장바구니는 오히려 지구온난화를 가속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²

2. 아이쿱생협

아이쿱생협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장 강도 높게 실천하고 있는 전략은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다. 지난해 7월 제2회 사회적경제박람회에서 아이쿱생협과 세이프넷은 ‘플라스틱 100% 재활용을 위한 약속’을 통해 플라스틱 저감,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이쿱은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거나 제자리에 머무르게 하고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들을 다양한 제품을 통해 실천 중이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기준 연간 790만 톤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30%가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이로 인한 폐기물이 더 늘어났다.

아이쿱 측은 “‘치유와 힐링’은 ‘개인의 건강’ 외에 사람이 더불어 사는 ‘지구 환경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 모든 생명은 생태계 안에서 유기적

2 2020년 ‘두레자원순환운동’ 2탄, ‘씩~다 모아주세요’ 〈생활의 재개발〉 캠페인 웹포스터 중에서.

3 세이프넷지원센터 가치확산팀,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자료.

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자연드림은 지구를 위한 치유와 힐링까지 고민하며 대안을 찾고 있다”며 “현대사회에서 지구를 병들게 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단연 ‘플라스틱’이다. 해양과 대기, 토양, 그리고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자연드림은 여러 대안을 찾아 실천하고 있다”고 플라스틱 쓰레기 절감 및 재활용 정책 추진 이유를 밝혔다.³

1) 트레이를 없애라

아이쿱은 먼저 상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 한 예로 괴산자연드림파크의 김공방 ‘수미김’ 제품에는 플라스틱 트레이가 들어가지 않는다. 트레이가 없으면 포장 과정에서 김이 부서지거나 기계에 걸리는 경우가 빈번해 제거하기 어렵다. 그러나 수미김은 2억 원을 들여 새 설비를 갖추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한 후,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절감한 플라스틱의 양은 약 13톤 수준이다. 트레이 제거에 대한 조합원 반응이 좋아 2019년 도시락김 판매량은 18년에 비해 2배 넘게 올랐다. 올해는 동원 양반김에서도 플라스틱 트레이를 없애는 등 다른 기업들도 플라스틱 포장재 줄이기에 나서고 있어 수미김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는 한발 앞선 혁신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수미김은 ‘2020년 자원순환 선도기업 및 성과 우수사업장 대상’ 공모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런 실천은 다른 상품으로도 확대 중이다. 자연드림 수산물을 공급하는 ‘남도수산’은 2019년 4월부터 생선류 포장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트레이와 겉포장 비닐을 제거하고 진공포장으로만 상품을 생산한다. ‘압착 유채유로 구운 생선류’ 시리즈 7종으로 7개월간 줄인 플라스틱 양은 약 5톤이다. 남도수산은 소포장 센터에서 사용하는 작업대, 중량컵 등의 플라스틱도 스테인리스 재질로 교체해 상품 포장을 넘어 생산 현장에서 플

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다.

자연드림에서 연간 90톤 가까이 사용되던 정육 트레이도 종이 소재로 교체했다. 교체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약 22톤의 플라스틱을 줄였다.

2) 플라스틱은 종이로, 스티로폼은 다회용 상자로

자연드림 카페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컵도 종이로 교체했다. 찬 음료 용기로 사용되는 투명한 플라스틱 컵을 종이컵으로 대체하고, 플라스틱 빨대까지 없애기 위해 음료의 뚜껑 형태를 변경해 3개월 동안 약 560kg의 플라스틱을 줄였다. 자연드림은 선물 포장, 물류 등의 부문에서도 점진적으로 소재 교체를 진행 중이다. 자연드림 '김' 선물세트의 경우 플라스틱 손잡이를 종이로 교체해 연간 약 164kg의 플라스틱을 줄였고, 물류센터에서 매장에 공급되는 스티로폼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상자로 교체해 연간 약 10만 개의 스티로폼 상자를 줄였다.

뚜껑과 몸체에 각기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이 사용돼 재활용이 번거로운 생수병에 대한 소재 전환도 시도할 예정이다. 자연드림에서 판매 중인 생수 용기를 페트PET에서 캔, 종이팩 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이팩으로 교체 시 페트병보다 가격이 2~2.5배 높아지고, 설비 가격도 9배 정도로 증가한다. 하지만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의 안전성과 플라스틱 절감을 위해 용기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3) 줄일 수 없다면 재활용

많은 제품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고 있지만, 완전히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이쿱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폐플라스틱은 혼합플라스틱 상품으로 재활용해 플라스틱 신규 생산량을 대체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은 최소 10단계 이상의 과정을 거쳐 재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또한 재질 분류 과정에서 많은 플라스틱이 재활용

되지 못하고 매립, 소각된다.

혼합플라스틱 기술은 자연드림 매장에서 불가피하게 사용된 플라스틱을 재질 구분 없이 재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분류, 파쇄, 세척 등의 중간 과정을 없애(기존 10단계 이상의 과정을 4단계로 축소) 생산 과정, 비용 면에서 효율이 높다. 아이쿱은 2019년 7월부터 혼합플라스틱 기술을 활용해 화분을 시범 생산했다. 현재까지 약 3만 개의 이상의 화분을 생산했고, 이는 약 10톤의 신규 플라스틱 생산을 대체하는 양이다. 아이쿱은 화분에 이어 다용도 바가지, 의자, 팔레트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재활용 단계의 간소화는 비용 외에도 세척, 소각, 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향후 혼합플라스틱 양산 시스템을 갖추게 될 ‘지구야 고마워’ 공방은 재활용에 사용되는 에너지까지 줄이거나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환경 손실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가정에서 세탁기에 쉽게 설치해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 개발도 진행 중이다.

아이쿱은 플라스틱 100% 재활용 계획이 “환경 문제에 대한 조합원의 오랜 관심과 생활 실천에서부터 시작됐다”며 “한 해 1.8톤 분량의 플라스틱 생수병 마개를 모으고(2g/마개 1개×약 89만 개), 20톤 분량의 우유팩을 매장으로 반납하고 종이 영수증 5톤 분량의 전자 영수증을 사용하는 등의 노력이 그 예”라고 밝혔다.

4) 소비자기후행동, 나와 이웃 그리고 지구를 위해

아이쿱은 2018년부터 ‘나와 이웃과 지구’의 ‘치유와 힐링’을 새로운 시대적 사명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준비와 도전적인 실험을 하고 있다. 피산과 구레 자연드림파크에 입주한 협동기업은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일상의 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은 전량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역사회 내에



구축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운송 수단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바꾸어갈 것이며 생물자원 기반의 포장 소재 개발 등 혁신적 기술개발에도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다. 아이쿱은 시대적 과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비자가 직접 행동하고 참여하는 ‘소비자기후행동’을 발족한다. 관계자는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아닌, 바꿀 수 있다는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실천이 필요하다”라며 “나와 이웃 그리고 지구를 위해 소비자시민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소비자행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관심을 넘어서, 평범하지만 위대한 기후 ‘행동’이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고 있다.

3. 한살림생협

한살림은 올해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기후위기 대응 및 자원순환 운동’을

끝났다. 실제로 한살림은 먹을거리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병과 공급 상자를 재사용하며, 안성물류센터와 가공생산지 지붕에 햇빛발전소를 세우는 등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2020년 핵심 실천 과제로 ‘밥 운동의 사회화’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정했다. 밥상과 농업, 생명살림의 경험을 살려서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지역살림, 지구살림 운동을 적극 펼쳐나가자는 것이다. 그동안 한살림은 농업살림, 밥상살림, 생명살림, 지역살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친환경유기농업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고, 초창기부터 조합원과 함께 재생비누 만들기, 장바구니 들기, 개인 컵 사용하기 같은 생활 환경운동을 해왔으며, 병 재사용, 옷 되살림, 우유갑 회수 등 자원순환 활동도 조직적으로 펼쳐왔다.

1) 덜 쓰고 덜 버리는 마음, 되살림운동

한살림은 일찍부터 ‘쓰고 버리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되살림의 가치를 생각하며 자원순환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되살림운동은 버려질 자원을 ‘순환’시키고 ‘재생’하여 새 생명을 불어넣어 ‘생명살림’을 구현하고 미래와 공존할 수 있는 길”이다. ‘폐식용유를 모아 재생비누 만들기’, ‘우유갑을 모아 재생휴지 만들기’ 등 한살림이 초창기부터 펼쳐온 생활 실천운동은 모두 되살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되살림운동은 조합원이 함께 제안하고 만들어왔다. 한살림은 조합원의 이런 활동들이 지속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으로 연결시켰다. 조합원과 한살림의 노력이 집약된 되살림운동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천일 것이다.

2) 공급상자 재사용

한살림은 물품이 생산지를 떠나 밥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연

에 부담을 덜 주는 방식을 고민했다. 유통시장이 모두 편리와 속도에 매달릴 때, 1997년부터 종이로 만든 공급상자를 재사용한 이유이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시대에 재사용성은 지키면서도 더 적합한 공급상자 운영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해나갈 예정이다. 2019년 한살림이 재사용한 공급상자 수는 상온용 68만 5604개, 냉장용 121만 6271개이다. 이는 종이 958.6톤 분량으로, 30년생 나무 1만 6298그루를 심은 효과이며, 연간 이산화탄소 10만 7567kg을 흡수할 수 있는 양이다. (국립산림과학원 표준탄소흡수량 기준 - 30년생 소나무 1그루 = 6.6kgCO₂ 흡수)⁴

3) 나무와 숲을 지키는 우유갑 되살림

한살림은 자원순환 실천의 하나로 2016년부터 매년 특정 기간 ‘우유갑 교환 행사’를 열어 우유갑을 수거했고 2019년부터는 일부 매장에서 멸균팩 수거사업을 진행해왔다. 자원순환 확산을 위해 올해 9월 7일부터 전국 230여 개 한살림 매장에서 우유갑과 멸균팩을 연중 수거한다. 한살림 매장에 ‘우유갑 되살림함’을 설치해 우유갑과 멸균팩을 연중 수시로 수거하고, 우유갑을 가져온 조합원에게는 한살림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살림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다. 한살림 매장을 통해 수거된 우유갑과 멸균팩은 각각 별도의 처리 과정을 거쳐 우유갑은 재생휴지로, 멸균팩은 핸드타월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한살림은 ‘우유갑 및 멸균팩 수거사업’으로 연간 우유갑 23톤과 멸균팩 3톤이 수거, 재활용돼 제 쓰임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절약한 종이만 해도 30년생 나무 520그루를 심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⁵

4 <한살림 소식지> 제639호, 2020.9.

5 한살림 보도자료, 2020.9.11.

3)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병 재사용

유리병은 보존성이 좋은 데다 재사용과 재활용이 모두 가능해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포장재이다. 그 가치를 중시한 한살림은 1990년부터 병 재사용을 시작해 현재 잼류, 젓갈류, 장류 등 50여 개의 물품 포장에 재사용 유리병을 적용하고 있다. 주류 회사를 제외하면 병의 크기, 중량, 모양, 색상 등을 6종으로 규격화하고 회수 시스템 및 세척 시설을 갖춰 규모 있게 재사용하는 곳은 국내에서 한살림이 유일하다.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라벨을 떼고 씻고 말려서 직접 가져오는 곳도 한살림 밖에 없다는 점이 조합원들의 큰 자부심이다.

4) 지구도 살리고 나눔도 실천하는 옷되살림

매년 의류와 신발이 6000만 톤 넘게 만들어지지만 이 중 70%는 제 주인을 만나지도 못한 채 쓰레기 매립장으로 간다. 나에게서 쓰임을 다한 옷이라도 버리지 말고 재사용하면 헌옷 1kg당 온실가스 7.52kg을 감축할 수 있다. 한살림은 2017년부터 옷을 되살려 지구를 살리고, 판매비용으로 국경 너머 파키스탄 지역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5) 자원순환의 가치를 담은 포장

2020년 <한살림 자주기준서>의 ‘한살림 포장재 사용기준’에 따르면 한살림 물품 포장은 생산자가 정성껏 생산한 물품이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변질 또는 오염되지 않는 ‘보존성’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포장으로 인한 폐기

물의 발생을 최소화해 환경적 부담을 줄이고 재사용 및 재활용을 실천하는 ‘친환경성’을 주요 방향으로 삼고 있다. 한살림 포장재는 쓰레기로 배출되는 양이 적도록 포장하고(Reduce), 일단 이용한 자원은 같은 형태와 용도로 다시 쓰고(Reuse), 분리배출이 용이한 포장 방식과 재질로 만드는(Recycle) 3R을 반영했다.

6)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 계획

한살림은 ‘기후위기’ 대응을 한살림연합, 생산자연합회, 지역 생협, 전문(지원) 기관을 포함한 한살림 전체 조직의 공동실천 의제로 채택하고 한살림 전 조직의 2021년 사업계획에 기후위기 대응 의제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세계 각국의 공동 목표로 등장한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Net-Zero}’를 한살림의 공동 실천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이행 전략은 2021년도에 수립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살림 2030년 실천 계획’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4. 행복중심생협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소박하면서도 원대합니다.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중심생협 조합원 선언문의 첫 구절이다. 행복중심생협이 생태 지향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합원들은 이러한 기본 철학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어가고 있다.

행복중심생협은 ‘전기 에너지 절약 실천 캠페인 및 체험수기 공모’와 가정 내 일반 전기밥솥이 차지하는 전기 사용량에 대해 알리고 압력밥솥을 활용한 요리법을 공유하거나 요리 경연대회를 여는 등 ‘착한 밥솥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불을 쓰지 않는 요리법 홍보 및 인증샷 올리기 캠페인

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천연 가습기나 수경재배 식물인 개운죽으로 화분을 만들고, 소등 캠페인인 ‘캔들나이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서울 창동 매장 카페에서는 현재까지도 월 1회 캔들나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환경위원회에서 진행한 지구 살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작된 ‘장수컵 캠페인’ 역시 자원순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이다. 캠페인 이름에는 ‘장수컵’, 즉 장바구니와 손수건, 개인 컵을 사용하여 일회용품과 비닐 사용을 줄이자는 뜻을 담고 있다.

더불어 2020년부터는 제로웨이스트zero-waste 실천 행동의 일환으로, 비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감자, 양파, 당근, 무 등의 생활재를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다행한(다 같이 행복한 선택)’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면 주머니를 매장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 재사용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행복중심 조합원의 슬기로운 생협생활

- 1 외출 전 필수품 3종(장·수·컵)세트를 챙깁니다.
- 2 일회용 봉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3 핸드드라이어나 종이수건 대신 손수건을 사용합니다.
- 4 음료를 마실 때 개인컵을 이용합니다.
- 5 테이크아웃 할 때 "텀블러에 담아 주세요"라고 합니다.



나의 선택과 실천이
환경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행복중심 장·수·컵 실천활동

외출 전 장바구니, 손수건, 개인컵을 챙기세요

내일의 기후위기, 오늘의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2020년도 국제 협동조합의 날 주제를 ‘기후행동을 위한 협동조합-Cooperatives for Climate Action’으로 선정하고,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3번째 목표인 기후 대응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강조된 ‘보편적 불평등’,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협동조합의 근본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생협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환경문제와 얽여 있을 수밖에 없다. 4개 생협연합회들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만들고 지구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생협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소비, 사회적경제를 선도하며 위기의 시대에 혁신적인 대안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1%에 머무르는 밀 자급률을 10%만 높여도, 수입 곡물 사료에 의존하는 축산업 구조를 바꾸고 마블링을 선호하는 과도한 육류 소비만 줄여도 땅과 사람과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들 한다. 미래는 우리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이제는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고 묻기보다는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가?”를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위해, 지금의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해야 할 때이다.

김아리

제로웨이스트샵 지구 대표

제로웨이스트^{zero-waste}가 대체 뭐야

“ 제로웨이스트가 단순한 트렌드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개념으로 만들어야 하고, 실생활 속에서 실천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이면서 쉬운 행동 요령을 제시해야 한다. 나는 그 중심에 제로웨이스트샵과 수많은 제로웨이스터가 있다고 생각한다. ”

내가 제로웨이스트라는 말을 처음 접한 것은 2017년이었다. 지금이야 힙한 트렌드가 되었지만 그때는 신조어나 다름없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항상 귀 기울이며 살아왔다고 자부하던 나에게조차 이 단어는 꽤 낯설었다. 숫자 '0'을 뜻하는 zero와 '쓰레기'를 뜻하는 waste의 합성어인 이 말은 그 자체로도 생소했지만, 정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삶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 때문에 더욱 멀게만 느껴졌다. 그저 나와는 관련이 없는, 정말 유별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지역 활동을 하는 친구에게서 이 말을 또 듣게 됐다. 그 친구는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삶이 가능한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지, 그리고 한 개인이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를 실천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등 그동안 의문으로 가지고 있던 질문들을 친구에게 쏟아냈다. 나는 이미 쓰레기 없는 삶이 불가능하다고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인지 다소 냉소적인 마음으로 따지듯 물었지만, 친구는 내 질문들에 대해 친절하게 답을 해주었다.

편리함을 위해 생산되는 수많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제품들, 이로 인한 환경오염, 고통 받는 동식물, 생태계 교란, 기후위기 등 익히 잘 알려진 환경 이슈에 대한 설명은 그리 새롭지 않았다. 워낙 잘 알려진 사실들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쓰레기를 안 만들고 사는 것이 가능한지였고, 친구는 의외의 답을 내놓았다. '불가능'. 방금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를 실천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친구는 쓰레기(waste)가 없는 (zero) 삶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waste를 '쓰레기'가 아닌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말로 waste라는 영단어에는 '낭비'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었다.

친구가 이야기한 제로웨이스트 라이프 스타일이란 쓰레기 없는 삶이라기보다 낭비 없는 삶에 가까웠다. 나는 그때야 비로소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채식에도 프루테리언, 비건, 락토베지테리언, 오보베지테리언, 락토오보베지테리언, 페스코베지테리언, 플렉서테리언 등 단계가 있듯이 제로웨이스트도 실천하는 사람에 따라 쓰레기가 아예 없는 삶을 사는 사람, 낭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사람 등 단계가 있음을 처음 알게 됐다. 그리고 나는 친구에게 손수건을 선물 받았다. 오늘부터 제로웨이스터Zero-Waster,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보라는 응원과 함께...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를 실천하다

그 친구를 만난 이후로 나는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를 실천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로웨이스트라는 개념을 소개하곤 했다. 아직도 가끔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플라스틱 제품을 쓰고 있지만 waste를 낭비를 뜻하는 말로 이해한 이후부터는 쓰레기를 아예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 재미있게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텀블러와 다회용 빨대를 사용하거나 배달대신 용기를 가져가 음식을 받아와 먹는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활동 위주였다.

그러다가 문득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같이할 때 더 재미있고, 동기부여도 될 테니까. 그리고 곧장 사무실 동료들에게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선물하고 함께해보자고 제안했다. 조금 유별난 사람 취급을 받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동료들은 내 우려와 달리 무척 반겼다. 사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 반박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

고 대부분 현재 환경오염이 심각함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차원에서라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 동료들도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흔쾌히 수락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의무’가 아닌 ‘재미’로 하자고 합의했다. 의무가 되는 순간 활동은 귀찮고 하기 싫은 것이 되어버릴 수 있기에 생각날 때만 실천할지라도 재미있고 압박감 없이 하는 것이 중요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재미있게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를 실천했다. 사무실 위치가 전통시장을 끼고 있었기에 주변에 먹거리가 생각보다 많았는데, 도시락 통을 가져가서 음식을 받아올 때면 ‘정말 신기한 사람들’ 취급을 많이 받았다. 반응은 칭찬을 하거나 이해를 못 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도시락 통을 건넬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비닐을 넣어 음식을 주시는 상인분도 계셨고, 왜 이런 번거로운 짓을 하느냐, 이런 거 가져오면 안 그래도 바쁜 상인들이 싫어한다며 난색을 표하시는 분도 계셨다. 반대로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다. 젊은 사람들이 참 대견하다며 덤을 주시거나 활동에 공감하며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로 바꾸는 분도 계셨다. 사실 이런 다양한 반응 덕분에 더욱 재미있게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소소하게 활동을 하다가 나는 중대한 사건을 만났다. 바로 플라스틱 대란이었다.

제로웨이스트 라이프가 주목받기 시작하다

한국은 주로 중국에 폐플라스틱을 수출해왔다. 그러다가 2016년 발표된 왕지우량 감독의 다큐멘터리 <플라스틱 차이나>가 이슈가 되면서 중국 내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큰 화두가 됐다. 2017년 11월 자국 내 환경오염을 막는다는 이유로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거부하면서 국

내에서는 플라스틱 대란이 일어났다. 당장 수출길이 막혔기에 막대한 양의 폐플라스틱을 쌓아둘 곳이 없어졌고, 가정에서 배출한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는 지자체도 생겨났다. 이때 운명처럼 제로웨이스트 활동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장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플라스틱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분별한 플라스틱의 양산과 사용이었기에 플라스틱을 대체하거나 사용을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활동이 자연스럽게 화두가 됐다. 그리고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플라스틱 관리 및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사회적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다. 그러나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 전반에 퍼져 있는 필수재였기 때문에 당장 플라스틱 없이 살기란 쉽지 않았고, 심지어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삶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나는 정보를 공유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처음으로 제로웨이스트샵을 열기로 마음먹었다.

제로웨이스트샵을 열다

당시 해외에서는 제로웨이스트샵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었다. 제로웨이스트샵에서는 플라스틱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을 소개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 벌크**bulk**, 대용량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무포장 제품이나, 벌크 제품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할 수 있으며 각종 자원을 재사용 및 재활용하는, 그야말로 낭비를 최소화하는 복합공간이었다.

나는 이러한 공간이 한국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 필

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보를 공유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만한 사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마음을 먹은 후부터는 정신없이 움직였다. 생각보다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제로웨이스트샵을 열기 위해서는 제품을 소싱 sourcing, 조달해야 하고, 소싱 과정에서는 원칙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원칙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으면서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이어야 했고, 또 제로웨이스트 자체가 개념이 낯선 만큼 접근이 어렵지 않은 제품과 공간을 구성해야 했다.

제품 소싱의 기본 원칙 첫 번째는 플라스틱 프리(plastic free)이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기존 제품을 재활용과 재사용이 쉽거나 생분해가 가능한 대체 소재로 전환된 제품으로 구성하고, 포장에서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을 줄인 제품을 선택했다. 두 번째는, 팜오일 프리(palm oil free)로 열대 우림 파괴와 토양 황폐화, 생물다양성 감소, 노동 착취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과 노동문제를 발생시키는 팜오일을 사용한 제품을 취급하지 않았다. 세 번째, 유해화학물질이 없는 제품이다. 화학 성분이 적고 성분이 단순하면서도 제 기능을 다하는 제품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불필요한 성분을 덜어내는 것 역시 제로웨이스트의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좋은 제품은 좋은 제작자에게서 나온다는 생각으로 환경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환경 관련 기부, 포장 줄이기, 성분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업체를 섭외하려고 했다. 현재 협력사의 40% 이상이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조직이다.

또 1인 가구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벌크 제품을 1g 단위로 소량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나 마끈 등을 제공하고 구매한 식품이나 물건을 담아갈 그릇이나 예코백 등을 직접 가져오는 것을 권했다. 현재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처음 카페를 겸해서 오픈했을 때는 친환경 소재 일회용 컵을 비치하기도 했는데, 제로웨이스트



트를 처음 접하는 손님이나 사전 정보 없이 들어온 분들이 당황하거나 곤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주민들이 거부감을 가지게 되거나 방문을 안 하게 되는 것보다는 오가면서 자주 들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고, 이후 카페를 이용하는 분들은 차츰 개인 텀블러를 가져와서 이용하게 됐다. 다른 제품들도 제로웨이스트를 어렵지 않게 시도해볼 수 있는 제품을 갖추려고 노력했다. 칫솔처럼 매일 사용하는 물건을 제로웨이스트 제품으로 시도해볼 수 있도록 독려하고, 다시 쓸 수 있는 스테인리스 빨대나 유리 빨대, 실리콘 빨대 등을 소개해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찾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제로웨이스트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제품을 써보고 ‘생각보다 좋고 사용할 만하다’, ‘기존 제품과 비교해도 불편함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윤리적으로 다가서야 할 개념을 사업적으로 푸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괜한 일을 벌인 것인 것은 아닌가 고민하며 포기할까 곱씹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재미있던 제로웨이스트 라

이프가 내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다행히 이맘때쯤 함께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하던 동료가 합류했고, 2018년 10월 우여곡절 끝에 ‘제로웨이스트샵 지구’를 열 수 있었다. 처음 생각했던 모습은 아니었지만, 원칙을 지켜 만든 자랑스러운 공간의 탄생이었다.



설렘과 걱정을 갖고 처음 연 제로웨이스트샵은 정말 파란만장했다. 도대체 여기가 뭐하는 곳이라는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고, 변화가나 도심지가 아닌 한적한 동네에 위치하다 보니 주변 어르신들의 애정 어린 참견도 참 많았다. 그만큼 걱정이 되면서도 신기한 공간이었나 보다. 동네 주민들은 주로 카페를 이용하며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구경하고 구매했다. 카페 영업을 종료한 후에도 지역 주민들이 매장을 찾고 제로웨이스트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접점에 대한 고민을 하며 ‘제로웨이스트 아카데미’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우여곡절 끝에 열게 된 ‘지구’에는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주었다. 타 지역에서 먼 발걸음을 하여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어느 순간부터는 방송사와 잡지 등에서도 찾는 공간이 됐다.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큰 관심을 받아 얼떨떨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활동에 공감한 덕분일 것이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지금까지 제로웨이스트샵을 이어오고 있다.

힙한 트렌드가 아닌 삶의 일부인 제로웨이스트

어느새 제로웨이스트샵을 연 지 2년이나 됐고 그사이 제로웨이스트라는 키워드는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됐다. 마치 MZ세대의 힙한 문화처럼 퍼지면서 그들만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처럼 소개되기도 하지만, 사실 제로웨이스트를 단순한 트렌드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요즘 친구들은 날씨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표시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위험에 상시 노출된 삶을 살고 있다. 이들은 자라면서부터 이런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병들게 한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해 누구보다 더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하는 세대이다. 그동안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며 단순히 외치기만 하던 기성세대와 다르게 실제적으로 삶에 녹여 행동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제로웨이스트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다. 오히려 삶의 일부이자 기후위기를 정면으로 느끼고 자란 세대가 할 수 있는 필연적인 선택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방식인 것이다.

트렌드처럼 취급받는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의 처지가 그렇다고 마냥 나쁜 것은 아니다. 트렌드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증명인 셈이니까. 다만 제로웨이스트가 단순한 트렌드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개념으로 만들어야 하고, 실생활 속에서 실천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이면서 쉬운 행동 요령을 제시해야 한다. 나는 그 중심에 제로웨이스트샵과 수많은 제로웨이스터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나름 우리 사회를 위한 작은 임팩트를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지구'를 열고 있다. 이제 제로웨이스트의 인기가 단순한 트렌드가 되어 식지 않도록 더 많은 분이 공감하고 행동해주었으면 한다.

이주희

SAPENet지원센터 국제팀장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와 강조되는 환경 지표

“ 사회적경제는 조직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에 맞춰 과거와 미래의 성과를 재정비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성 해결 방안을 표현할 수 있는 보고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다양성으로 인한 표준화의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데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업과 활동의 성격에 맞게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이 전 세계에 존재한다. ”

지구온난화와 환경변화를 거쳐 ‘기후위기’에 대한 긴급한 행동을 요하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S&P500 기업 가운데 58%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는 2011년 37%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¹ WBCSD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경제인회의 등이 발족하고 2015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관한 글로벌 정보(지역/국가별, 국제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를 제공하는 The Reporting Exchange²에 따르면 ESG³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관련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에서 2009년 700여 개에서 2019년 1700개로 증가했다.

이 외에도 UN의 SDGs⁴ 지속가능발전목표, B-Corp³, UNRISD 유엔사회개발연구소의 지속가능한 발전 임팩트지표 등이 개발 또는 개발 중에 있다.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진영 내부에서도 각자의 사업과 활동에 따른 목표들을 수립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경제 및 사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면을 점차 부각하고 있다.

국제 협동조합운동 차원에서는 ICA 국제협동조합연맹가 2016년 ‘협동조합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⁴ ICA는 가이드북 발간에 앞서 제7원칙 ‘커뮤니티에의 관여(Concern for Community)’라는 실천을 주도하는 협동조합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대한 과제를 가지고 있고 이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ICA 유럽생협지부인 유로 코업Euro Coop은 사람, 상품, 가치, 환경, 커뮤니티, 민

1 The Economist. <https://www.economist.com/business/2020/10/03/the-proliferation-of-sustainability-accounting-standards-comes-with-costs>
 2 The Reporting Exchange. <https://www.reportingexchange.com/>
 3 B-Corp. <https://bimpactassessment.net/>
 4 ICA, 협동조합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북(Sustainability Reporting for Co-operatives : A Guidebook). https://www.ica.coop/sites/default/files/publication-files/ica-sustainability-reporting-guidebook-1497476007.pdf?_ga=2.236632260.451149806.1605433478-1766597944.1602037522

주주의, 발전이라는 7가지 CSR⁵협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지표를 공개했다.⁵ 또한 ICA 유럽지부 코퍼라티브유럽⁶Cooperative Europe은 일찍이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이한 2012년에 ‘협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에 관한 브로슈어’를 발간하면서⁶ 지역경제 지속, 지속가능성 추구, 민주적인 통제, 사회적 효용의 4가지 주제로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했으며, 2020년 10월 19일 EU그린위크⁷EU Green Week 2020를 맞아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회연대경제 측면에서 보면 1997년 설립한 사회연대경제 투자기금인 RISA⁸캐백사회경제투자네트워크기금이 투자기금 신청 대상 조직을 위한 ‘사회적 경제기업 분석 가이드’⁷를 마련했다. 캐나다 밴쿠버의 신흥인 밴시티 Vancity, 밴쿠버신용협동조합은 2010년부터 GRI⁹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영국의 AccountAbility가 개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AA1000’을 기반으로 통합 보고서를 공개하면서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등의 성과 측정을 위한 틀 개발인 ‘Demonstrating Value’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기도 했다.⁹ 옆 나라인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JCCU는 SDGs에 맞춘 중기 방침 ‘2020-22’를 수립하여 SDGs의 지표에 따른 환경 목표 달성에 노력하고 있다.¹⁰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같

5 EURO COOP. <https://www.eurocoop.coop/coop-page/csr-7indicators.html>

6 Cooperative Europe. https://coopseurope.coop/sites/default/files/COOPERATIVE%20SOCIAL%20RESPONSIBILITY_leaflet_120606.pdf

7 사회적경제기업 분석 가이드(*Guide for Analysis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한국어판, 피에르 샤렛·플로드 도리옹 지음,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번역 발간, 2019. <https://www.svsfund.org/business/84>

8 Vancity. <https://annualreport.vancity.com/>

9 Demonstrating Value. <https://www.vancitycommunityfoundation.ca/projects/demonstrating-value>

10 JCCU. <https://jccu.coop/jccu/sdgs/>

은 새로운 운동이나 일자리 창출 등 사업, 활동, 운영 면에서의 녹색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적인 지역 관리, 지역 고용 창출 능력 등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지속가능성 보고는 점차 대기업들의 경영 보고서에서 기본이 되고 있는 데 반해 사회적경제는 아직까지 객관적인 지표나 보고를 통해 지속가능성의 리더라는 가시성을 완벽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경제는 조직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에 맞춰 과거와 미래의 성과를 재정비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성 해결 방안을 표현할 수 있는 보고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다양성으로 인한 표준화의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데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업과 활동의 성격에 맞게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이 전 세계에 존재한다. 그 대표로 스위스의 미그로 Migros와 스페인의 XES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매사업에 지속가능성을 가져오다 : 미그로 Migros

두 개의 대형 생협이 식품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위스에서 미그로는 스위스의 높은 물가를 해결하기 위해 고틀리에프 두트바일러 Gottlieb Duttweiler가 1925년 자본금 10만 스위스 프랑의 '미그로 주식회사'로 시작하여 1940년대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특이한 사례이다. 미그로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mi-gros(grossiste), '반^ㅁ도매'라는 뜻으로 초창기 높은 물가에 대항하고자 만들어졌으나 점차 사업을 확대해나갔다. 미그로는 2019년에 약 28억 스위스프랑(약 3조 5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10개 지역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위스 국민의 4분의 1이 조합원으로 가입

되어 있으며, 2012년도부터 시작한 제너레이션 M^{Generation M}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환경문제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1954년에는 난방연료 독점에 대항하여 Migrol을 설립하여 시장가격의 80%로 공급했고, 2010년에는 M-way라는 전기자전거와 전기바이크를 생산하기도 했으며, 2013년에는 스위스 최대의 태양에너지 패널을 배송센터에 설치하기도 했다. 친환경 물류와 관련해서 2014년 스위스에서는 처음으로 2대의 전기 운송차량을 시험했고, 환경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 트럭과 기차를 병행하여 상품을 운송하며, 지하 물류 및 운송 시스템에도 투자 중이다.

식품과 관련해서는 1974년에 M-SANO라는 유기농 브랜드로 스위스의 식품산업을 선도하기도 했으며, 1995년부터는 Migros Bio 브랜드를 가지고 유기농식품을 제공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지속가능한 팜유를 위한 협의회 RSPO에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로 스위스 내부에서 미그로와 6개 기업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 개선을 위해 지속가능성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창립부터 지금까지 술과 담배를 팔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미그로는 1944년 총 매출액의 0.5%를 문화 활동에 투자하는 것을 정관에 명시하고 성인 교육프로그램인 클럽스쿨^{Club School}을 만들어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발전기금인 인게이지먼트 미그로^{Engagement Migros}는 미그로 그룹의 자회사들이 수익의 일부를 기여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문화, 지속가능한 발전, 경제·스포츠 분야에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순환경제를 위한 민간 조직들의 활동이 활발한 스위스에서 사회적 기업가들의 네트워크인 임팩트 허브^{Impact Hub} 스위스 등을 중심으로 2019년 조직된 순환경제 스위스^{Circular Economy Switzerland}¹¹에 미그로의 인게이지먼트 미그로가 참여해서 스타트업 지원, 가구 폐기물 감소 및 순환, 순환도시 스위스 등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가장 최근에는 재

활용으로 만든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여 가정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1100 개 수거 지점에 모으는 프로젝트를 실시했고, 두 개의 플라스틱 재활용업체와 협력하여 100% 재활용 PET로 만든 시럽통 그리고 재활용 재료로 만든 세제 용기를 자체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다.

소매업계에서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보여주었던 미그로는 2019년 공식적으로 그룹 내 모든 조직과 기업에 적용되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미션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비전과 미션, 기본 준수 사항을 결집한 선언으로 “우리는 삶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만든다^{We make life more sustainable}”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상품 제공, 기후 보호, 순환형 재활용과 사회적 결속 증진 등을 선언하고 있다.

4개의 주제 아래의 15가지 필수 사항은 미그로의 모든 조직이 지켜야 할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의무이다. 공급망 내의 노동 기준, 동물복지 및 전 세계 어류·열대우림 보호가 포함되고, 2019년에는 모피·물장¹² 금지도 추가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 매년 발표되는 ‘가축복지지수 BBFAW’¹³ 보고서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난방 및 냉장에 대한 부분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선언문 아래의 모든 조직은 항공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를 상쇄해야 하고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며 기후 친화적인 차량 이용 가이드라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선언문 개발 과정에서는 2015년 UN이 채택한 SDGs도 포함했으며, 2019년에는 SDGs에 따른 미그로의 공헌을 분석한 보고서를 별도로 발표했다.¹⁴ 목표 달성을 관리하기 위해 미그로는 KPI^{핵심성과지표}를 활용하

11 Circular Economy Switzerland. <https://circular-economy-switzerland.ch/>

12 Mulesing, 배설물이 묻어 구더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의 엉덩이 부분 살을 마취 없이 도려내는 것.

13 BBFAW(Business Benchmark on Farm Animal Welfare). <https://www.bbfa.com/>

여 지속가능성 영역에서의 진전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의무 사항이 지켜지고 전략적 사업 단위에서 개별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미그로 그룹의 중앙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진행 사항은 내부 의사결정자들에게 보고하며 일부는 공개되기도 한다.

매년 연차보고서에는 지속가능한 상품에 대한 판매 수치와 더불어, CO₂ 배출량, 전체 에너지 사용, 태양에너지 사용, 철도 사용, 리사이클 비율을 함께 공개한다. 독일의 ESG 평가기관인 ISS-oekom은 2009년부터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발표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평가된 243개 소매업체 중 미그로 그룹이 업계에서 최고의 결과를 달성하여 지난 2018년에 이어 2019년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소매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¹⁵ GRI를 기반으로 발표하는 종합 연차보고서에는 별도로 지속가능성 보고서¹⁶를 발간한다. 경제, 생태, 사회적 공헌과 진척도로 범주를 나눠, GRI의 300번대 환경 분야인 에너지, 원자재, 유해물질 배출, 생태계에의 영향을 공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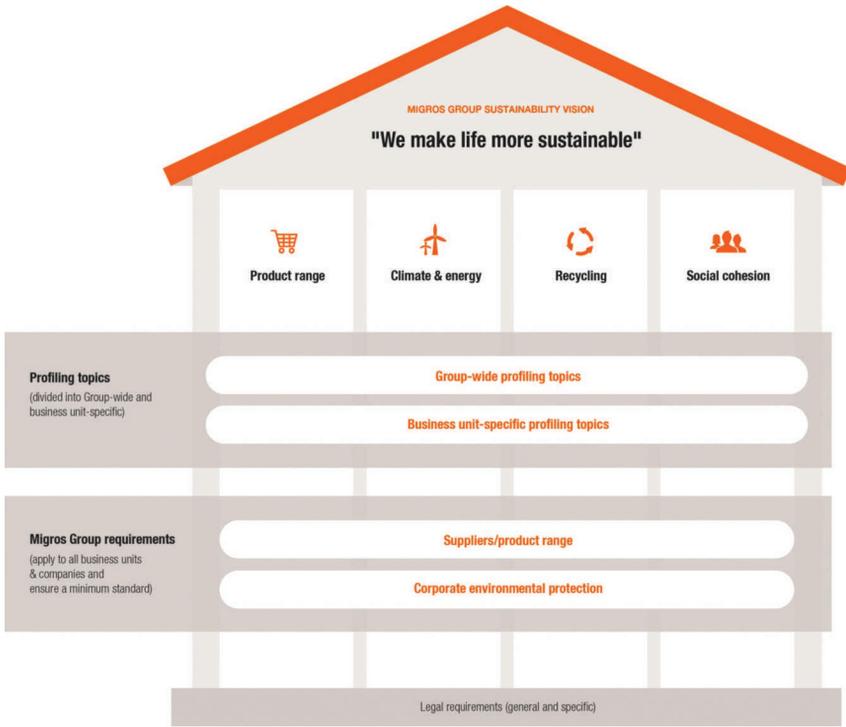
일부를 소개하자면, ‘301-3 재활용한 제품과 포장재’에서는 쓰레기의 양과 분류, 재활용 비율, 포장재 전환에 따른 쓰레기 절감량 등을 보고하고 있다. 2019년에는 시럽병을 100% 재활용 PET로, 플라스틱병을 유리병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보고했고, 2015년에는 100% 재활용 PET로 만든 스프레이 상품으로 그해 ‘스위스 패키지상’¹⁷을 받았다.

14 미그로 SDGs 현황 보고서. https://generation-m.migros.ch/dam/jcr:c9579f89-8e79-4e87-8192-365971b29084/2019_Migros_SDG.pdf

15 ISS-oekom. <https://www.issgovernance.com/library/esg-review-2019/>

16 미그로 지속가능성 보고서. <https://report.migros.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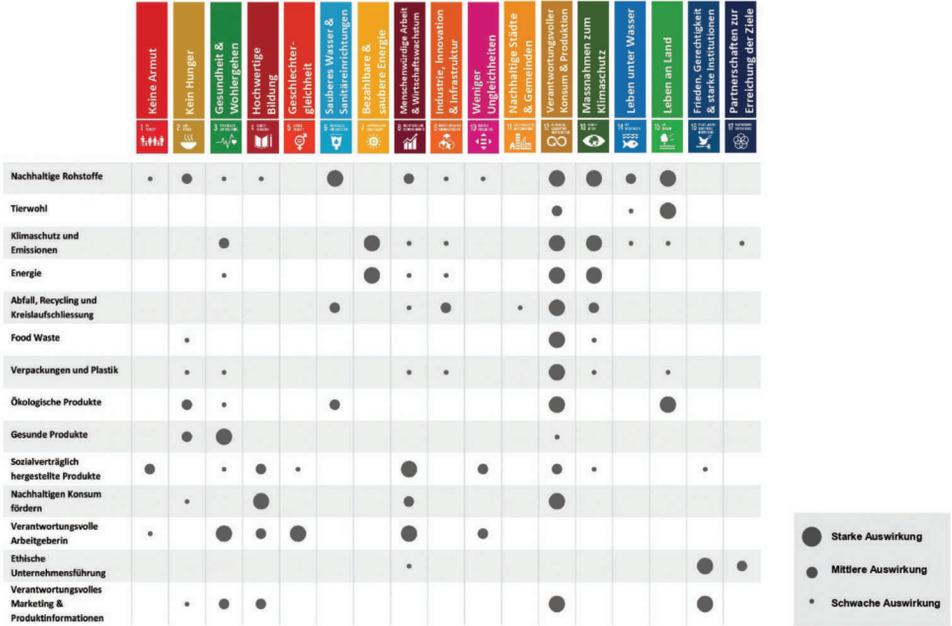
17 Swiss Packaging Award. <http://swisspackagingaward.ch/>



미그로 지속가능성 보고서(<https://report.migros.ch/2019/en/overview-of-migros/environment-commitment/sustainability-management/>)

두 번째로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파리기후협약에 근거, 2020년 전략에 이어 새로운 기후 및 에너지 전략 2030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매장과 물류 등 사업군별로 에너지 총 사용량, 에너지 종류, 온실가스 규약^{Greenhouse Gas Protocol}에 따른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태양광 발전량을 연간 보고하고 있다.

운송과 관련해서 현재 바이오가스, 수소, 전기와 같은 대체원료 차량을 시험하고 있으며, 비행기 운송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기부하는 단체 MyClimate¹⁸와 협력하여 2018년도부터 CO₂ 배출량을 상쇄



Migros-Genossenschafts-Bund, Direktion Nachhaltigkeit Migros-Gruppe, März 2020

미그로 SDGs 현황 보고서(https://generation-m.migros.ch/dam/jcr:c9579f89-8e79-4e87-8192-365971b29084/2019_Migros_SDG.pdf)

하고 있다. 항공 운송으로 발생하는 CO₂당 일정 금액을 미그로의 자체 기후보호기금인 My climate fund에 적립하고 이 기금으로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 등의 6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상세히 보고하고 있다.

18 Myclimate. <https://www.myclimate.org/>

XES의 사회대차대조표

17년 전 브라질의 사회연대경제에서 영감을 받아 설립한 카탈루냐연대경제네트워크 XES, Xarxa d'Economia Solidària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가 속해 있는 카탈루냐주의 400여 개 이상의 협동조합, 단체, 재단 등의 회원 단체로 구성된 상위 조직이다. 2008년부터 참여 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매년 사회대차대조표 Societal Balance Sheet를 통해 카탈루냐 지역 전체 사회연대경제의 현황과 발전 정도를 발표한다.¹⁹

사회대차대조표는 일종의 참가 회원들의 자발적인 보고 도구로서 매년 보고를 통해 각자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발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와 비교할 수도 있는 자기비판의 도구이기도 하다. 카탈루냐 지역의 사회연대경제가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내부 조직의 기능을 확인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는 자료를 통해 카탈루냐 지역 전체 사회연대경제의 기반을 제시할 수 있어 외부에 사회연대경제의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다.²⁰

XES는 2008년 참여에 동의한 단체들과 사회대차대조표를 설계했다. 4년간 GRI, EFQM^{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의 자체 평가 모델 그리고 EMAS^{EU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의 국제 표준 모델을 검토한 결과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카탈루냐 고유의 평가 틀을 만들 수 있었다. 첫해에는 17개 단체만 29개의 지표를 적용하여 제출했으며, 2015년 말에는 21개 지표로 줄인 대차대조표와 보다 폭넓은 대차대조표, 두 가지 중 단체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100개 지

19 연간 사회적대차대조표 보고서. <https://mercatsocial.xes.cat/ca/pdf-estat-mercat/>

20 XES. <https://xes.cat/es/comisiones/balance-social/>

표와 50여 개 지표로 이루어진 두 가지 평가 틀을 사용하고 있고 사회대차대조표 작성에 유용한 기술 가이드도 발간했다. 대차대조표는 직원과 소비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작성하게 되어 있어 다양한 관점이 포함될 수 있다. 초반엔 카탈루냐에서 사용되었다가 이후 스페인 전역으로 확대되어 스페인어, 바스크어 등으로 번역되었고, 2018년 기준 스페인 전역에서 450여 개 조직이 이 대차대조표를 사용하고 있다.

사회대차대조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UN의 SDGs 목표들과 비슷한 척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경제, 민주주의, 평등, 환경, 사회적 공헌, 양질의 일, 전문성, 자원봉사 등으로 범주를 나누었다. 환경에 대한 항목과 관련해서 참여 단체가 에너지 절약 정책 또는 행동 계획을 가지고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지난해와 비교하여 제품 구매 시 책임소비 여부, 환경기준 마련, 재활용 종이 및 산림인증 종이 사용,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을 도모한 사업 관행, 폐기물 관리, 물 소비 절약 및 효율성을 위한 노력 여부, 운송 수단 및 대체 수단,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여부, 지속가능 생산을 보장하는 사무용품 사용 및 위생 그리고 청소제품 사용, CO₂ 발생 환산 수치, 공정무역이나 유기농 상품 사용에 대한 수치를 함께 보고하고 연간 XES가 전체 카탈루냐 단체들의 평균적인 개선 정도를 매년 보고한다.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총 226개 조직(이 중 완전판은 125개 조직, 간략 보고는 101개 조직)이 참여했으며, 이는 2015년 72개 조직에서 3배 상승한 것이다. 이 중 9개 조직은 XES가 규정한 최소 평가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통계에서 제외되고 XES가 매년 실시하는 카탈루냐사회연대경제 박람회 Mercado Social에 참가할 수 없다. 환경 항목에 있어서는 참가 조직의 97%가 책임 있는 구매를 하는 반면, 33%만이 환경 행동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물 소비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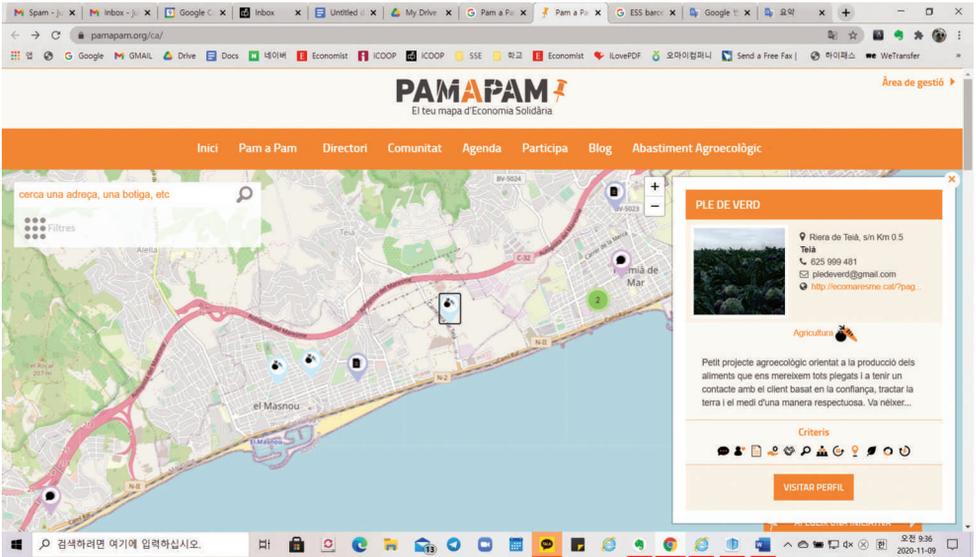
또한 팜아팜(Pam a Pam) 팀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추가하여 카탈루냐 지역 사회연대경제의 영향력을 측정하고 있다. 지역 네트워크의 가시성에 크게 공헌한 팜아팜은 SETEM과 공동으로 만든 온라인 플랫폼으로, 카탈루냐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정무역을 비롯한 연대경제 활동과 사업을 맵핑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통해 사례를 발굴하고 지정한다.²¹

자원봉사팀이 단체를 방문하고 15가지 질문(사회적 영향, 공정한 판로, 투명성, 사회적 통합, 협력, 네트워크, 경제 운영, 환경에의 영향, 성평등, 지역 밀착, 운영 참여 및 자유 프로그램 등)으로 설문을 진행한다. 평가는 5단계로 이루어지며 연대경제의 가치관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측정할 수 있으며 결과는 지도에 표시한다. 2019년 기준 지도에는 카탈루냐 전역에 850개 이상의 단체가 맵핑되어 있으며, 현재는 연간 2만여 명이 방문한다. 팜아팜은 각자의 거주 지역, 마을에 어떤 활동이 존재하는지 바로 표시가 가능하여 지역에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 또한 제공한다.

이렇듯, XES의 사회대차대조표는 참여 조직들이 계속해서 내부 개선을 통해 사업과 활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또한 사회연대경제가 SDGs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기도 한다. 이들이 측정하는 지표는 사회연대경제의 타 조직들의 벤치마크가 되어, 2017년부터는 지표 일부가 바르셀로나 시청의 신규 공공 조달의 기준에 통합되기까지 했으며, 2017년 5월 17일 바르셀로나 시의회가 이끄는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지자체 네트워크 발족의 동력이 되어 XES와 지자체 간의 협력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사업들이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²²

²¹ Pam a Pam. <https://pamapam.org/ca/>

²² <https://xmess.cat/>



<https://pamapam.org/ca/>

참고 문헌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홈페이지

- Jordi Estivill, *Invitació a l'Economia Solidària : Una visió des de Catalunya*, XES, 2018.
- *El Balance Social de la XES : 10 años midiendo el impacto de la ESS en Cataluña*, UN Inter-Agency Task Force on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2019.
- Gabriel Salathé-Beaulieu, *Sustainable Development Impact Indicators for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tate of the Art*, UNRISD, 2019.
- *Sustainability Reporting for Co-operatives : A Guidebook*, ICA, 2016.
- 『生協総研レポート』No.83, CCJ, 2017.2.

김소영

성대골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이사장

주민이 만들어가는 에너지자립마을

“ 리빙랩은 기후위기, 핵발전소의 위험,
미세먼지 문제 등을 야기하는,
대규모 중앙집중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전환’ 시민운동에 기여할 수 있다.
(...) 이를 통해서 기존의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전환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활동의 시작

2010년 서울 동작구 상도3·4동 성대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어린이도서관 만들기 운동이 일어났고, 그해 10월 주민 주도의 민간 도서관이 설립되었다. 성대골이란 명칭과 마을공동체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그다음 해 2011년은 성대골에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공동체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진 해이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차츰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2주 후인 3월 26일 '지구촌 불끄기' 행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9월 우리동네 녹색아카데미 '착한에너지 지킴이'로 거듭나기 프로젝트는 성대골의 '에너지전환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5번의 워크숍과 4번의 기초 강좌가 진행되었고, 전북 임실 에너지자립마을 사례 견학을 다녀왔다. 성대골 활동가들은 착한에너지 지킴이가 되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절전소를 만들어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성대골어린이도서관 한쪽 벽에는 성대골절전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70여 가정과 상가 10곳의 전기에너지 사용 현황이 그래프로 표시가 되는 절전 운동이 시작되었다.

2012년 에너지전환을 위해서 본격적인 실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 시기 성대골의 활동은 에너지 절약을 중심에 두면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첫 번째로, 에너지 절약과 전환 실험에 관한 활동들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공동의 노력으로 아껴나가는 절전소 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공동체 공간인 마을학교에서 단열을 강화하면서 대안 에너지를 이용하는 겨울나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절약 문화·교육이다. 착한에너지지킴이들은 합창단을 구성해서 노래를 부르고, 에너지 콘텐츠를 활용해서 축제를 진행했다.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 덕분에 에너지를 줄이는 착한 가게들이 생겨

났다. 얼핏 생각하면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에너지 절약을 문화적으로 쉽고 흥미롭게 재구성해냈다. 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에 환경 동아리를 만들어 직접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도 함께 전개했다. 에너지 절약을 직접 실천하면서도 에너지 절약을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이끌어낸 것이다. 또한 2012년은 성대골이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에 시범마을로 참여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2012년 마을학교 겨울나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에너지 단열과 적정기술을 가지고 전환 실험을 진행했다. 대안에너지를 이용한 적정기술을 직접 이용해보았으며, 단열 시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환경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생각하게 되었다.

2013년은 그러한 생각과 염원을 조금 더 구체화해나갈 수 있었던 해였다. 마을기업 마을닷살림의 추진은 하반기부터 점차 실현되기 시작했다. 마을의 각 가정마다 주거 환경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닷살림협동조합을 구상하여 만들었고, 상도4동 햇빛발전협동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또 다른 중점 사업이었던 에너지 카 ‘해바라기(현재는 해로)’도 마을에서 직접 제작했다. 1톤 트럭을 개조해서 에너지 카페로 만들어 축제 때마다 이용하게 되었고, 태양광을 이용하여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만들어 홍보 효과를 톡톡히 했다. 또한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국가인 독일에 함께 견학을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오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동네 에너지 일자리로 활동의 지속성 확보

2014년 성대골의 에너지전환 운동은 마을기업 마을닷살림협동조합의 등장으로 새로운 전환을 맞이한다. 우선 물리적 측면에서 운동의 구상과 논의, 계획 수립의 공간이 어린이도서관에서 에너지수퍼마켓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운동의 내용에 있어서도 마을기업으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마을기업으로서의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중점적인 사업의 내용이었다. 대표적으로 성대골 경로당 등대 프로젝트, 에너지수퍼마켓 온라인쇼핑몰 만들기 등이 그것이었다. 이와 함께 에너지/기후변화 강사 양성과정을 직접 추진했다. 불과 2011년만 하더라도 외부 전문가로부터 강의를 받던 마을이 이제 직접 전문 강사를 섭외하고 강의 들을 사람들을 모집하는 등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체가 된 것이다. 이렇듯 2014년은 성대골 공동체의 에너지 운동이 점차 전문화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해였다.

성대골 공동체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학교 에너지 교육이 점차 정착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유지해나갈 기반을 다지게 된다. 그러한 활동 중 하나로 2014년 10월 에너지&기후변화 강사 양성과정이 있었다. 기본과정으로 열렸던 이 강사 양성과정은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냈다. 개인에게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학습과 자기계발의 기회인 동시에 경력 단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족감을 얻는 효과가 있었고, 성대골 공동체는 새로운 활동가들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강사 양성과정을 제공하면서 외부에서 찾아와 강의도 듣고, 성대골로서는 에너지 교육 조직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었다. 2015년은 이러한 역할을 더욱 확대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강사 양성과정을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가과정으로 나누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그리고 2014년 기본과정을 수료한 분들 중 일부는 2015년 3월부터 국사봉중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찾아가는 에너지교실과 찾아가는 에너지수퍼마켓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각종 행사에 에너지 카페 차량이 직접 찾아가는 활동을 조금 더 세밀하게 구성하게 되었다. 또한 제4회 에너지자립마을 축제부터는 성대골 공동체뿐만 아니라 기존 마을공동체 주체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다양한 주체가 함께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에너지전환 운동이 상도3동과 4동에서 공동의 주제로 이해되는 것으로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부터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꾸준히 추진해왔던 각종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 마을 축제들이 점차 마을 내부에 스며들게 된 것이다.

성대골 에너지전환 리빙랩 Living Lab

리빙랩은 ‘살아있는 연구실’ 혹은 ‘생활연구소’로 불린다. 사용자나 지역 주민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주체로 참여하면서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론이다. 리빙랩은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살고 있는 사용자, 정부/지자체의 정책결정자 그리고 관련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리빙랩은 기후위기, 핵발전소의 위험, 미세먼지 문제 등을 야기하는, 대규모 중앙집중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전환’ 시민운동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이 문제가 많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주민들이 여러 기술·정책전문가, 공무원, 기업 등과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실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지속 불가능한 에



너지 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전환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사실 성대골에서 리빙랩 활동에 대한 고민은 2015년 2월에 처음 시작되었다. 성대골 활동가들은 ‘주민(사용자) 주도형 혁신 플랫폼’이라는 리빙랩 개념이 성대골 에너지 활동의 주민 주도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성대골 에너지전환마을은 앞으로 진행할 5년간의 실험과 방향을 잡기 위한 방법론으로 리빙랩을 선택하게 되었다. ‘성대골 주민과 함께 도심 속 에너지전환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과제가 중심이 되었고, 그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리빙랩을 활용한 것이다. 2015년 서울시 혁신기획관 공모사업 과제인 성대골에너지전환 리빙랩 프로젝트는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5년 사업을 마무리할 즈음 사람들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실험이

나 활동보다 리빙랩이라는 방법론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2016년 리빙랩 활동에서는 리빙랩이라는 방법론보다는 리빙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즉 주민 주도의 에너지전환에 더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리빙랩의 주체인 마을연구원들이 마을 활동의 재미와 가치를 알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고, 이를 통해 마을연구원들의 잠재적 역량을 끌어내고자 했다. 현장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의견은 성대골 에너지운동에 매우 소중하고 큰 의미가 있었기에, 마을연구원들이 미니태양광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물과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의견을 내도록 하는 데 집중·반복·강조했다. 그 덕분에 2016년 리빙랩을 마무리하는 시점에는 리빙랩이라는 방법론보다는 태양광, 마을연구원, 그룹별 활동 내용 등 리빙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진의 목적이 성대골에 가장 강한 이미지로 남게 되었다.

주민들이 리빙랩에 참여하면서 적극성과 주도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을 모두 받아 함께 논의하고 실행하면서 주민 의견이 성공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리빙랩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된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은 향후 리빙랩/주민 참여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성대골에서 리빙랩을 통해 만든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1) 2016~2017년 도심 속 미니태양광 수용성 제고

• 미니태양광 DIY

마을연구원들이 직접 미니태양광을 설치해보는 DIY 과정을 거치면서 사용자 입장에서 미니태양광의 기술적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DIY는 그 자체로도 설치 인건비를 줄이고 DIY라는 재미를 곁들인 새로운 시도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미니태양광 기술에 대해 직접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마을연구원들은 미니태양광 업체인 마이 크로발전소와 함께 DIY 키트를 개발해보고 미니태양광 기술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해내기로 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배란다형이 아닌 옥상거치형 미니태양광에 한해 DIY가 진행되었다.

• **우리집솔라론**

소비자들은 미니태양광 제품에 선택 목돈을 투자하기 쉽지 않다. 미니태양광 업체도 처음 들어보고, 제품도 생소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미니태양광 비용을 없애고, 매월 전기요금을 아낀 만큼 상환하는 방식의 금융상품을 디자인했다. 마을연구원 포커스그룹 금융팀은 디자인한 금융상품을 동작신협에 제안을 했고, 동작신협이 수용하여 성대골에만 존재하는 무이자 태양광 금융상품인 ‘우리집솔라론’이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집솔라론 상품구성

| | |
|--|---|
| <p>우리집솔라론 600</p> <p>원래 130만원인데도, 70만원 서울시보조받고 나머지 60만원 우리집솔라론으로 해결하세요. 한 달에 3만원의 18개월간 상환하세요</p> | <p>600W</p> <p>3000원 4000원 5000원</p> |
| <p>우리집솔라론 900</p> <p>원래 189만원인데도, 96만원 서울시보조받고 나머지 93만원 우리집솔라론으로 해결하세요. 한 달에 4만원의 18개월간 상환하세요</p> | <p>900W</p> <p>3000원 4000원 5000원</p> |

솔라론 신청 **지정업체 상담 및 설치** **상품구성별 월상환** **02 826 6300**

신청문의: 02-826-6300
신청기간: 신청대상
독상이 있는 동적구민

* 신청조건이 아닌 신청 시 본인 동의 필요
* 계약조건: 신청가능, 계약기간, 독상이 있는 동적구민
* 2017년까지 서울시 태양광미니발전소 지원을 받으신 분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상품이며, 계약금액 600W/900W상품의 20%인도 지원으로 설계된 상품입니다
* 솔라론 600은 서울시(96만원) 지원금 포함, 솔라론 900은 미니크로발전소 제품을 채택합니다
* 서울시 보조금은 2018년도 기준이며, 보조금 소진시까지 변동하여 솔라론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동적신협이 금이 소진될 때까지 솔라론 신청을 받으려, 이후에는 본상환에 따라 순번에 의해 진행됩니다

• **교육·홍보**

마을연구원 포커스그룹 중 교육·홍보팀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위한 태양광 인형극을 기획, 제작하고 마을 주민들 눈높이에 맞춘 홍보 리플렛도 만들었다. 그 결과로 상도4동 20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공연, 학부모&교사 교육, 태양광 설치 등의 성과가 나왔다.

(2) 2019년 도전하자! 도농협동에너지전환마을, 상상하자! 성대골 전환센터

• 전환센터 구상과 설립

2019년 성대골 리빙랩을 주제로 진행된 전환센터가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데 집중을 했다면, 2020년 전환센터는 구체적인 설계부터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그리는 작업을 했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기후위기에 가장 관심이 높은 청소년들과 그 과정을 진행할 예정인데, 마침 지원 사업 제안이 들어와 계획을 정리해서 지원했고 선정이 되었다. 사랑의 공동모금회 나눔샘 지원 사업으로 예산은 크지 않지만 청소년, 마을 주민들과 전환센터 로드맵을 그리기에는 충분한 비용이다. 참여할 청소년은 영등포중학교 기후 동아리, 성남고등학교 3학년 전체, 국사봉중학교협동조합 학생조합원으로 총 200여 명이다. 약 6~7개월간 어떻게 진행을 할지 학생대표, 교사, 마을활동가로 구성된 기획팀이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성대골 10대 청소년 마을연구원의 리빙랩 참여 사례가 알려져 서울시 교육청에서 생태전환교육 리빙랩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 사업에 신청한 학교가 64곳이라니 놀랍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 도농협동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2019년 1월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완주군 고산촌마을 이장님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처음에는 도시형인 성대골이 어떻게 농촌형 마을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싶어 막연했다. 도시는 농촌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곳이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원동력도 농촌에 있다. 에너지전환을 이루기 위해 대도시는 소비만 하고 지역에 크나큰 피해를 입히며 대형 발전소를 지어 송전탑으로 멀리까지 보내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지역에 분산시키는 에너지

분권이 이루어지고 도시로 집중되는 사람과 자원도 분산되어야 한다.

2019 성대골 리빙랩 과제 중 하나로 도농협동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완주군 고산촌마을, 하동군 하남마을 두 곳과 교류가 시작되었다. 제주도 월평마을도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에너지자립마을에 관심이 있어 몇 분이 성대골에 다녀갔다. 월평마을은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해야 행정에서 관심을 가진다는 생각으로 방문했지만, 고산촌이나 하남마을은 이장들이 먼저 관심을 보인 경우였다.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현장 중심에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사업을 주도해야 지속할 수 있고 책임감도 가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고산촌 이장과 하남마을 이장은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 인식과 전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성대골은 그동안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원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

성대골의 에너지협동조합들

(1) 성대골 에너지전환 운동의 중심, '마을닷살림협동조합'

2013년 11월에 설립되어 에너지수퍼마켓을 거점 공간으로 성대골 에너지전환 운동을 이끌어왔던 마을닷살림협동조합은 2018년 10월 8일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절망에 가까울 정도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활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18년 10월 1~5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진행되었던 IPCC 총회에 성대골 주민들과 청소년들 포함 청소년기후소송지원단, 청소년기후소송단 등 150여 명이 몰려가 기자회견, 퍼포먼스, 시위를 진행하며 1.5°C 보고서가 채택

되길 바랐다. 현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만 기후위기 속에 인류의 멸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암담한 목표이고 미션이었다. 성대골은 그동안 해오던 에너지전환 운동을 좀 더 확장해서 지역사회의 전환을 위한 상상을 시작했고 거점공간을 에너지수퍼마켓에서 성대골전환센터로 옮겼다. 이제 목표는 2030년 탄소배출 50% 감소, 2050년 탄소배출 제로 성대골이다.

(2) 지역 학교들이 에너지운동으로 연계되어 만든, ‘국사봉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2012년 3월 성대골 공동체는 마을 인근의 국사봉중학교와 장승중학교에서 1년간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국사봉중학교에서는 1학과 2학기 모두 ‘환경동아리’를 맡아 수업을 했고, 장승중학교에서는 가을에 접어들면서 교장선생님의 요청으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24개 반에 2시간씩 수업을 진행했다.

2014년 3월부터 에너지 교육에 큰 변화가 생긴다. 2014년부터 두 학교에서 정규 교과로 편성되어 수업을 하게 된 것이다. 오로지 기후변화와 에너지라는 주제가 공교육 현장에서 국내 최초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특히 변화된 점은 2012년 국사봉중학교 절전소 만들기 프로젝트를 환경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시작했다면, 2014년은 국사봉중학교 에너지자립마을 프로젝트(과목명 : 에너지자립마을)를 진행했다. 2학년 6개 반 180명의 아이들과 한 학기 동안 정규수업 34차시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청소년 에너지 매니지먼트 과정, 여름방학 적정기술 캠프, 에너지 분야 진로 체험, 저에너지하우스 만들기, 생태에너지 축제 등으로 구성되었다. 아이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에너지 진단과 적

정기술을 체험하고 에너지전환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와 에너지 자립을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저에너지하우스와 같은 실습 프로그램은 핸드마을기술센터에서 진행했다. 공교육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독특한 수업 내용과 방식은 국사봉중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 성대골 공동체, 그리고 다른 에너지전환을 꿈꾸는 주체들이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다.

2015년에도 한 학기 동안 에너지 교육과정이 진행되었다. 2012년부터 시작된 국사봉중학교와 성대골 마을과의 관계는 이제 점점 굳건해지고 있고, 2015년 가을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2015년부터는 2014년 10~12월 강사 양성과정을 마친 분들이 강사가 되어 교단에 섰다. 강의 내용도 기후변화와 에너지뿐만 아니라 직조와 베틀,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주제를 함께 다루고 다양한 적정기술을 이용해서 실습도 진행하는 등 내실 있게 구성되었다.

성대골의 에너지전환 운동은 에너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국사봉중학교로 이어져 생태에너지 사회적협동조합이 탄생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9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와 함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창립을 준비하고 성대골에서는 지역활동가로서 참여해서, 2016년 2월 87명의 조합원으로 출범하게 된다. 이 협동조합은 동작구에서 유일하고 서울시에 서도 얼마 안 되는 교육부가 인정한 사회적협동조합이다. 학교 생태매점에서는 지역의 친환경 먹거리를 판매하고 북카페 운영, 사회적 공유와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이렇게 성대골에서의 수년간의 에너지 운동이 지역 내 중학교에서 생태에너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에너지 교육을 함께하면서 그 노하우를 서울 전역의 학교로 확대하는 데 기여를 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매년 150여 개 학교에 에너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2012년부터 꾸준히 지역과 함께 에너지전환 활동을 진행했던 국시봉중학교는 햇빛발전소를 설립해 학교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시키는 성과를 만들었다.

학교 옥상을 임대해 33kW 용량을 지역 주민,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함께 출자를 통해 비용을 마련하고 설립까지 긴 여정을 함께했다. 성대골에 두 번째 에너지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이다. 한 해 15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되고 사회적협동조합이라 대부분의 수익은 지역 복지에 지원되고 있다. 3년째 상도4동 거주 독거노인 100세대에 김장 나눔, 졸업식 때 조손가정 학생 20명에게 장학금 수여 등 공유경제, 나눔과 복지 등 현장 교육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

(3) 성대전통시장과 함께 만든, '성대골에너지협동조합'

성대골 세 번째 에너지협동조합인 성대골에너지협동조합은 2018년 8월 25일 성대골 에너지전환마을 활동가, 전통시장 상인회, 지역 금융, 관련 기업 및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창립했다. 조합의 주요 사업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전력중개사업에 도전하는 것이다.

성대골에너지협동조합은 정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ESS에너지저장장치 운영 사업', 그리고 '전력중개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산업부가 지원하고 성대골에너지협동조합이 참여하는 '동작시민 가상발전소' 사업에서도 'ESS 공유/운영사업', '태양광 프로슈머사업', 그리고 '전력중개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2019~2020년까지 지역 에너지신산업 예산 규모는 22억 5100만 원이다. 그중에 50%가 민간자본이고 나머지 50%가 산업부, 동작구청(서울시에서 지자체 몫의 50% 지원)이 지원한다. 민간자본 확보가 문제였다. 다행히 성대골은 동작신협과 지역의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연대해서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도시에서 마을 활동을 해오던 주민

들이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미션이다. 그렇게 사업 예산이 확보되니 수 억
 처 발굴이 기다리고 있었다. ESS를 설치할 경제성 있는 기관(건물)을 찾
 아야 했고, PV(Photovoltaic, 광발전)를 설치할 규모 있는 옥상이 필요했다. 설
 비 투자를 조합에서 하고 전기 자가 소비와 판매 수익을 나누는 방식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경제성이 낮아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선뜻 나설 이유가 없었다. 결국 관계망을 총동원해야 하는 것이고 이 역
 시 지역 활동가들의 몫이 된다. 그렇게 자금과 수요처가 확보되어 설비가
 들어가더라도 남겨진 과제는 적지 않다. 그렇지만 성과물은 에너지전환
 의 최전선에서 전력 산업 변화의 중심에 시민들이 있기를 바란다.

(4) 마을기술네트워크와 함께 준비 중인, '우리집 그린케어 협동조합'

2015년부터 꿈꾸며 추진해오던 마을기술자 네트워크 결성이 2019년 10
 월 15일 마을기술자 간담회를 통해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 처음에 어떻
 게 운을 뚫까 고민도 많았고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과정이 잘 전해지고 공
 감되길 바랐다. 상도3·4동에 현장 조사로 찾은 업체 35곳 중 개인 사정
 과 현장 일로 일정이 맞지 않아 12곳 정도 참석을 해주셨다. 기술자 분야
 는 인테리어, 전기, 설비, 열쇠, 새시, 타일, 건축자재 판매였다. “건축할
 때 에너지효율에 투자하지 않았고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도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집이 많다. 노후화된 건물들은 도시의
 경관도 해치고 있다.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도시 경관과 에너지까지 고려
 해서 그 비용을 감당하라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하자 모두 공
 감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 짐작을 했고
 마을기술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도 했다. 동네 자영업 형편과
 대부분 1인 사업자로 고령화되는 어려움도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사연들을 듣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저희도 입단식 한번 해요’라고 마을기술자 한 분이 말하고, 누군가 ‘이름을 마을기술네트워크로 하자’고 하니, ‘이름 좋네’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것이 하나로 묶이게 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분들은 모두 마을기술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동의했다. 성대골 전환센터를 거점으로 지속적인 모임도 제안을 했다. 그분들의 기술과 봉사 정신이 모여 마을과 기술이 만나는 연결점이 형성되었다.

소소한 집수리부터 Net-Zero 빌딩까지 누구랑 의논하고 어느 업체에 맡겨야 할까? 이런 고민은 현재 소비자의 몫이다. 적합한 비용도 알 수가 없어 지불하고도 깔끔하지 않다. 기술 실력도 미리 알 방법이 없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 집수리학교, 비교견적서나 시공업체를 추천하는 앱 등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행정이나 민간에

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건물 노후화를 늦추고 긴급 공사, 방치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등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 동체 단위로 고민을 해보려 한다. 건물주, 세입자, 부동산, 시공업체, 건축설계 사무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친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자발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정보가 생성되는 플랫폼을 설계해서 구축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마을기술자 간담회에 참석해서 공감이가 높았던 분들로 프로젝트 기획팀을 구성했다.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스튜디오 하숙, 이름없는 건축사무소, 한꾸밈인테리어, 타일연구소, 덕성종합설비공사, 부동산까지 총 9명이 참여를 했다. 기획팀은 2020년 서울시 전환랩 공모에 지원을 했고, '2050 탄소배출 제로를 향한 마을기술네트워크와 우리동네 전환센터'라는 사업명으로 선정이 되었다. 건축물 부분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가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실험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했고,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주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 실험 가구들은 마을기술자네트워크, 외부 자문위원 등과 함께 성대골 건물 실태와 현황에 맞는 단계별 시공 기술, 제품 등을 제안받고 협의를 거쳐 공사까지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사업비에서 지원금도 있지만 가구별 총 견적에 20% 이상 자부담도 있는 조건이었다. 또한 마을기술자가 강사가 되고 집수리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수강생이 되는 마을기술학교도 진행 중에 있다. 마을기술자 네트워크에서 강사에도 전해보겠다는 분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두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2020년 12월 말이 되면 마을기술자, 마을기술학교 수강생, 자문위원 등이 함께 협동조합을 창립할 계획이다. 우리 동네 건축물 탄소 배출 감소는 우리 동네 기술자와 함께 진행되길 바라고 동네 일자리로 명맥이 이어지길 바란다.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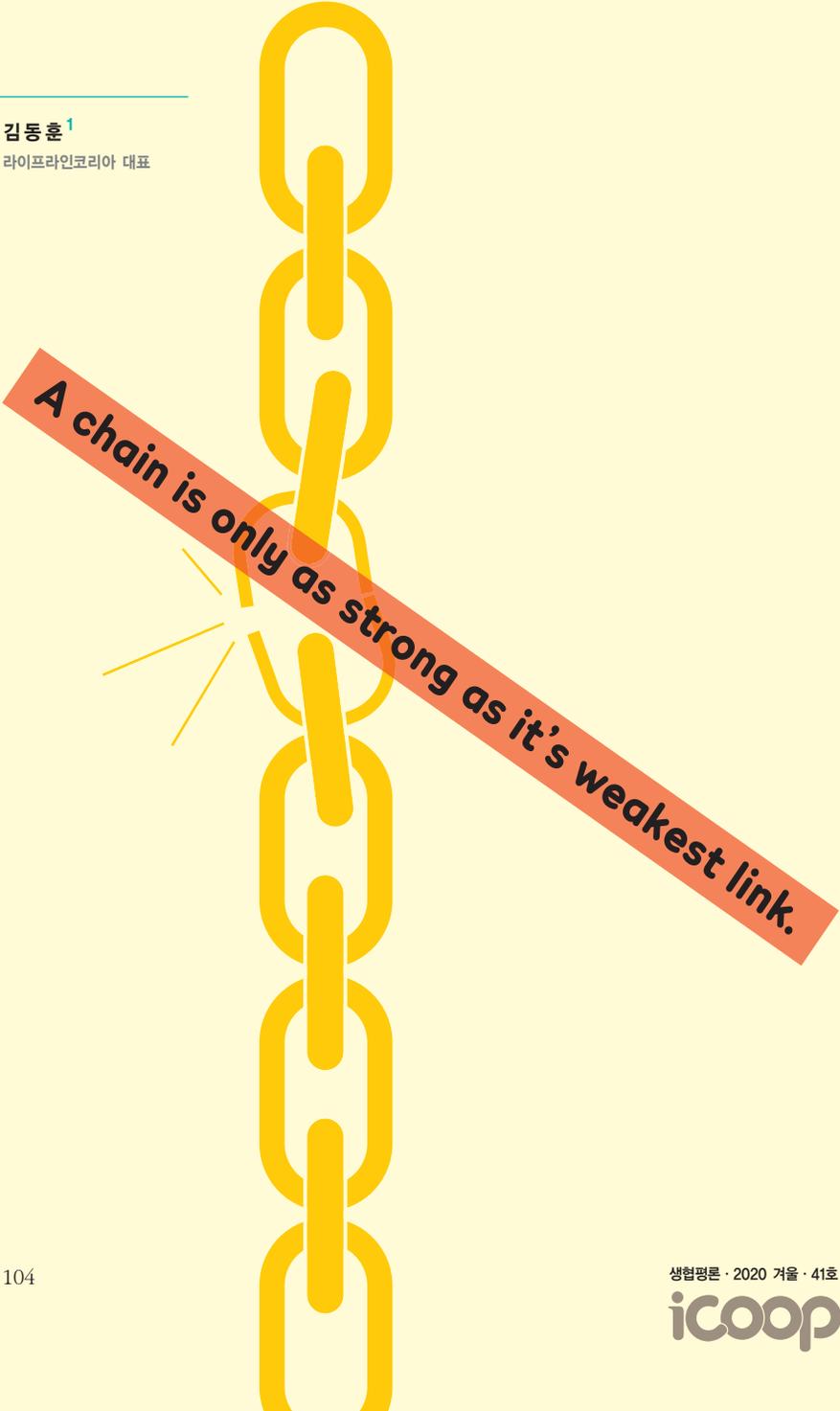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과 사회적 약자

—‘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에 달려 있다’

김동훈¹

라이프라인코리아 대표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들을 언론을 통해 여러 번 들을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재난 경험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재난 약자’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재난 약자’는 행정 용어로 ‘재난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며 주로 장애인, 환자, 임산부 등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재난 약자에 관해서 법적 정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아서,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약자로 전환되면서 그에 따른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는 상태를 생각하게 된다. 미국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난 약자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²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다.

1.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신체적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개인이나 집단 (예 : 장애인, 심신미약 노인 등)
2. 재난 대응 및 복구에 있어 일반인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이나 특수한 수단이 필요한 개인이나 집단 (예 : 영유아, 임산부, 환자 등)
3.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올바른 상황 판단 및 대응 능력이 있어 정신적·환경적 제한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 (예 : 외국인, 정신질환자 등)

1 재난안전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라이프라인코리아(Life-line Korea)’ 대표. 20년간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여러 국제구조사업을 해왔다. 2019년부터 한국의 재난대응 시스템 혁신을 도모하는 소셜벤처를 창업하여 새로운 실험들을 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위원(2019~2021)이기도 하다.

2 김도형·라정일·변성수·이재은, 『대규모 재난 시 재난약자 지원방안』,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2017.12. 39쪽.

이 정리에서 재난 약자에 대한 개념 이해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전혀 새로운 재난 약자들도 알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망자는 청도대남병원의 정신장애인들이었다.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 및 노인들의 생활시설과 요양시설들이 약한 고리로 드러났는데,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감염병에서도 약한 고리가 될 수 있음은 이미 얘기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예견이 가능한 약한 고리가 있었던 반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회적 돌봄의 범위 밖에서도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 코로나19는 콜센터 상담원들을 침범했고, 물류센터의 택배노동자들을 위협했다. 게다가 바이러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면서 영세 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일용직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쉽게 잃기 시작했다.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부모들의 부담도 커지고,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들은 더욱 안 좋은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다. 바이러스가 질병에 걸린 사람들만 위협에 빠뜨리거나 질병에 걸리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서, 경제재난으로 확대되고 교육 재난을 불러일으키는 등 일찍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난 피해를 보여주게 된다.

더불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도 보여주었다. ‘풍선효과’라 부를 만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의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오토바이 사고에 따른 사망자가 13.7%가 증가했다고 한다.³ 교통사고 자체는 줄어들었는데 오토바이 사망사고만 늘어난 이 현상을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수요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추정했다. 이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3 「교통사고 사망자 10% 줄었는데 오토바이 사망자만 증가」, 『서울신문』 2020.8.1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2500038>

직접적인 피해는 아닌 듯하고 그렇다고 간접적인 피해라고 이야기하기에 도 뭔가 모호한 상황인데,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이들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일까,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로 보아야 할까?

2020년 9월 언론에서 일명 '라면형제 사건'이라고 언급했던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다. 인천의 한 빌라에서 10세와 8세 초등학생 형제의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했다. 형이 동생을 보호하려 했으나 둘 다 큰 중화상을 입은 채 입원했고 얼마 후 동생이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이 사건 역시 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날에 일어났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 피해자들은 단순 화재사고의 피해자로 보아야 할까, 또 다른 코로나19의 피해자로 보는 게 옳을까? 코로나19는 이처럼 재난 약자와 사회안전망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수준의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인간이 만든 재난의 시대

코로나19가 일회적인 재난이라면 앞서의 질문들은 어쩌다 발생한 사건에 대한 한 번의 고민으로 끝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러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하나의 변곡점으로 보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코로나19는 이번엔 끝날 수 있어도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도래할 것이며, 꼭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들이 계속해서 닥쳐올 수 있다고 한다. 일종의 '재난 일상화의 시대'에 진입했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에게 낯설고 부담스러운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예상되는 것은 주로 기후변화, 난개발, 세계화 등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상상해보자. 지금이 조선시대이고 중국 명나라의 우한이라는 땅에서 ‘코로나’라는 역병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역병이 조선 땅까지 들어와서 창궐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신단이 몇 날 며칠 걸려 산 넘고 물 건너 명나라 수도 남경으로 가고, 동시에 우한에서 역병에 걸린 누군가가 남경에 와서 우리 사신단과 만나 침 튀겨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신단 일행 중 누군가에게 전염되고 사신단 일행이 한양까지 돌아와 저잣거리에 역병을 퍼뜨려야 한다.

하나의 상상이지만 지금이 조선시대라면 같은 감염병이라도 퍼지는 양상은 이렇듯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주요 도시들이 항공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감염병이 하루 만에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상황이 가능하다. 더욱 깊고 빠르게 세계가 연결되는 것이 이런 면에서는 부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 재난을 가속화시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기후변화는 좀 더 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 많이들 잊고 있지만 2018년도에 폭염이 발생했었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48명의 국민들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추워서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더워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생소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법률에 ‘폭염’을 ‘재난’으로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지금은 폭염이 발생하면 지자체들이 ‘폭염대피소’들을 설치하고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 임무가 기본이 되었다.

2019년의 강원도 산불 역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았다. 겨울임에도 평소보다 눈이 오지 않은 데다가 너무 건조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산불을 직접적으로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여러 이유로 발생하는 산불은 기

후변화로 인해서 대형화되기 쉽다. 올해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졌던 호주 산불도 그런 경우였다. 강원도 산불의 경우에도 산불이 대형화되면서 도시를 덮치기 시작했다. 그동안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진압대와 소방관들이 출동하면 되었지만 사람들을 돕는 구호단체들까지 현장에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강원도 산불부터는 대형화된 산불이 도시를 덮치면서 구호단체들도 현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안동에서 일어난 산불이 대형화되어서면서 아파트단지를 덮칠 뻔했지만 소방관들의 노력으로 직전에 진압이 되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이미 환경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이 갈 데가 없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간 안보’의 문제가 되었다.

재난의 시대와 사회적 약자들

기후변화가 재난의 형태로 다가올 때 그 피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재난은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피해를 입힐 것 같지만 현실은 재난마저도 불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령층과 기저질환 환자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병리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계약직 직원들은 고용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손쉽게 정리되었고,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계층 간 학력 격차는 더욱 커졌다. 자살자가 예년보다 더 많아지는 가운데, 그 중 증가된 많은 수를 20대 청년

들이 차지했다. 가장 폭넓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영세 상인들이었고, 이주민과 난민들은 처음부터 방역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재난의 불평등 현상은 유독 코로나19 사태 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전의 여러 재난 속에서도 늘상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시민 누구나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폭염으로 사람들이 죽을 때도 가장 큰 피해자는 저소득층과 노인들로 나타났다고, 늘 겪어왔던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농촌지역의 노인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사회적으로 취약할수록 재난과 같은 외부의 충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 경험과 연구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런데 재난 대응을 준비하는 분야에서도 불평등은 나타난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더욱 많이 하게 되었지만, 정작 장애 학생들은 안전 훈련을 하는 그 시간에 잠시 쉬고 있으라고 하고 비장애인 학생들끼리만 교육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이라면 재난 훈련이 아무리 많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재난 약자들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또한 국내에서 대부분의 재난 안전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편이고, 남성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서 나름 비슷한 내용을 풍월 정도라도 들을 수 있지만, 성인 여성들은 제대로 된 재난 안전교육을 받아볼 기회조차 없다. 일종의 재난교육 취약계층이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 대도시 지하철 곳곳에 화재 대피용으로 방독면이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 방독면을 보거나 만져본 사람들은 거의 없고 사용법도 알지 못하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활용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도 불평등하게 다가오지만 재난에 대응하는 방식마저도 불평등한 것이 현실이다.

평상시가 아니라 재난 발생 시에도 비슷한 모습은 많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공적 마스크가 판매될 때 약국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줄에서 휠체어를 타고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꼭 휠체어를 탄 사람이 아니더라도 재난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줄에서 보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많은 이재민들이 모여 있는 재난대피소에서도 장애인의 모습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의 모습은 보기 쉽지 않다. 왜 재난의 현장에서 약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그 모든 분들이 따로 특별한 돌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재난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장애인들을 돕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자기결정권이나 자주적인 역량을 무시한 채 ‘도움 주는 사람 관점에서 도와주는 모습’들은 쉽게 이루어지는 사례이기도 하다. 시각장애인의 감각을 무시하고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 하거나, 청각장애인에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경우 같은 것들이다. 재난 현장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조용히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요구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사실은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폐를 끼치기 미안해서 먼저 위축되거나 또는 요청을 해도 제대로 도움 받지 못한 상황이 반복되어서 나타난 모습이기 쉽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는 분들이 대피소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해 재난 현장에서 따로 모여 생활했던 경우도 있었다. 반려동물이 포기할 수 있는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사회적으로는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전문가도 아니고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재난 약자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부 당국의 관계자들이나 소방관 그리고 구호단체 활동가들 같은 사람들은 재난 약자를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 알고 있을까? 불행하

제도 상황이 긍정적이지는 않다. 소방관들이 장애인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흔치 않아서 따로 시간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국내의 구호 전문 요원이나 재난 자원봉사자 교육과정에서도 재난 약자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집단적이고 표준적인 재난 구호 활동을 주로 하다보니 재난 약자들의 세부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다. 누군가 이런 문제에 잘 알고 있어서 계속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주체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선진국이라 불리는 2020년 우리의 현실이다.

재난 현장 시뮬레이션의 필요성

필자가 운영하는 라이프라인코리아⁴에서 2020년 10월 한 달 동안 재난 약자와 관련한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시험해보았다. 행정안전부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교육과정'⁵ 중 하나로 '재난 현장 시뮬레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전국 15개 권역을 순회하며 7명의 전문 강사들이 실시해본 것이다.⁶

프로그램의 내용은 재난 현장에서 시민들을 돌보게 되는 구호 관련 담

- 4 '라이프라인코리아(Life-line Korea)'는 고용노동부 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방재 선진국들에서 주로 사용하는 재난 교육과 다양한 놀이 형식을 결합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DIG(Disaster Imagination Games, 재해상상게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소셜벤처이다.
- 5 국내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는 민관 협력의 통로로써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여 재난 현장에서의 재난 자원봉사 활동을 총괄하게 한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역 자원봉사센터들이 실무 역할을 맡고 있으며 평시에는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자원봉사자를 연결하여 교육훈련을 하며 대비하고 있다. 2020년에 처음으로 행안부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주로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재난 담당자들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실무 인력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시행했다.
- 6 '라이프라인코리아'와 '국제재난심리지원단 이지스'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시험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 맞는 맞춤형 현장 훈련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당자들이 실제 재난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경험하여 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역할극을 하는 것이다. 이 훈련은 본래 ‘아이쿱재난대응위원회’의 2018년, 2019년 ‘아이쿱 재난대응 리더양성과정’ 때 처음 도입되었던 재난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좀 더 발전시킨 것이었다.

모든 참가자들은 각각 재난 담당 공무원, 구호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이재민 등 다양한 범주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참가자들 각자에게 구체적인 캐릭터들이 부여된다. 특히 이재민 역할의 경우에는 지적장애인 자녀와 같이 있는 엄마, 한국어가 서툰 이주노동자, 반려동물과 같이 있는 주민,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 조용히 있는 고령자 등 실제 재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훈련의 여러 결과에서도 가장 고무적인 것 중 하나는 참가자들이 전반적으로 재난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재민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특정한 재난 약자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로,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실질적이면서도 맞춤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입장을 바꾸어 만약 자신이 돕는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자신 같은 재난 약자에게는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도움 주는 지원자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은 쇠도하는 이재민들과 그들의 요구사항 속에서 상식적인 대응 수준으로는 상황이 정리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너무 일률적이고 행정적으로만 행동하려 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다. 이재민들을 집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사람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로 모든 참가자가 모여서 같이 소감을 나누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재민 역할과 지원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대가 생기게 된다. 이들 전체 참가자의 공통적인 진술 중 하나는 직접 역할을 해보니 재난 약자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

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것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더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하는 아이디어들은 바로 현장에 적용하면 좋을 만큼 실제적이 이야기들이 많았다.

실제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나라 재난 현장에서 시민돌봄체계는 집단적이고 표준적인 구호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동일하게 서비스가 되도록 하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이런 방식은 장점이 있는 반면 개개인이 가진 세부적인 필요사항들에 대응하는 부분에는 약하고, 그 중에서도 재난 약자들을 돕는 일이 우선순위를 가지기 힘들다.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만약 후원금을 받아서 재난 지역을 돕는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한정된 자금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돕겠다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게 마련이다. 한 명 한 명의 수요를 일일이 파악하고 거기에 대응하려는 생각은 낫설기까지 하다.

재난은 변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응도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기후변화로 재난은 우리 가까이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코로나19가 긍정적인 점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가진 온갖 모순들을 한꺼번에 다 드러내주었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답변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지역사회 내 관계를 통한 재난 약자 감지 시스템

어떤 한 사회문제를 제기했을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답변이 나올 수 있다. 법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해당 예산을 증액하고, 맞춤형 매뉴얼을 만들어놓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전담 기관도 만들자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방법과 방향들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개인이나 모임, 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의 생활권 내에서 단 하나의 사례라도 만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변화 가능성을 실제로 보여주는 솔루션이나 증거를 만들었을 때 더 큰 인식과 제도 등의 변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을 다 바꾸면 좋겠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시간과 돈, 노력 등이 우리에게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난 약자의 문제에서도 하나의 시작점을 만드는 것부터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시작점은 재난 약자를 발견해내는 일이다. 기후재난의 시대는 재난 일상화의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익숙한 재난의 반복을 넘어 생소한 재난들이 계속해서 들이닥칠 수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렇듯 새롭고도 연속되는 위기의 시대라면 매년 국가나 행정기관이 큰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주면 좋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재난 약자의 안전은 국가나 외부에만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삶의 근거지에 안전이 실현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들이 있어야 한다.

재난 약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 지원을 해주는 것도 나중의 일이다. 우선은 재난 위기로 인해서 한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재난 약자가 발생했을 때 지역사회 자체에서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 때 외부의 구조대가 와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누가’, ‘어디에서’,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서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증상을 보고,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어떤 문제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지역사회의 건강성이라는 것 역시 기본적으로는 지역사회에 나타나는 위험 징후를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

느냐로 알 수 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정도의 관계 속에서는 각자도생만이 실질적인 방법이고 재난 약자들이 설 곳은 없기 마련이다.

일상의 관계를 통한 재난 구호 사례들을 보자. 2019년 강원도 산불은 고령인구가 많은 곳에서 발생했는데, 한밤중에 일어난 화재이고 강풍에 워낙 빨리 번졌기 때문에 제때 피난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았다. 당시 동네를 잘 아는 배달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피해 지역의 골목 구석구석까지 들어가 미처 피난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편의점 왕국이라 불릴 만큼 동네 편의점들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초고령화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물건을 사러 오는 노인들이 어느 날부터 오지 않으면 편의점 직원들이 안부 확인 방문을 하는 지역 연결의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지역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지역사회의 활력 징후를 공동체 스스로가 알아챌다는 의미에서 어떤 이는 ‘소셜바이탈사인(Social Vital Signs)’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지역의 시민들이 스스로 센서가 되어서 지역의 새로운 사실들이나 정보들을 찾아낸다고 하여 ‘시빅센서(Civic Sensor)’라고 하기도 한다.

“지역사회에 새로운 재난 약자가 발생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실천이 기후재난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재난 약자들을 우리 뒤에 남기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일은 외부의 구조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국가라 해도 세밀히 챙기기 쉽지 않다.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은 동네의 사람들로서, 감염병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 약자들에게는 ‘대면’과 ‘연결’이 백신이자 치료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동네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원봉사 모임이, 사회복지 시설이, 주민자치회가, 마을공동체가, 자생 단체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재난 약자들마저도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지 같이 연구하고 도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민들끼리 해볼 수 있는 ‘재난에 강한 마을만들기’를 생각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 ‘재난 자원봉사자 교육’을 발전시키는 곳들이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재난 사회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지역사회, 회복력 있고 공존이 가능한 지역사회를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실천의 시작은 어떤 형태로든 재난 약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관계의 구조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될 것 같다.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듯이 전례가 없고 낯선 활동이라 하더라도 새롭게 시도하면서 사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벌써 일 년

올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옹케 코로나 감염을 피한 이들 역시 '코로나 블루'로 괴롭다. '2021년 1월 1일이 되면 동해 간절곶에서 새해 소원으로 코로나 종식을 외쳐보리라' 계획을 세웠다가 코로나 전파자가 될까 두려워 집에 있기로 생각을 고쳐먹는다. 지난 2018년 1월 1일 중국 지린성 백두산 북파에서 맞이한 새해가 그렇다. 사진은 한국과 일본 관광객들이 중국 현지인들과 함께 구름에 휩싸인 천지 앞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



생협 zoom in

김성광

작가, flysg2@gmail.com



기획
연재

생협평론이
만난 사람

우미숙
『생협평론』 편집위원



‘협동의 도시 진안’을 꿈꾸는
진안협동조합연구소

한명재 소장

공동체성 강한 농촌에서 출발해야 할 사회적경제

아침 6시. 한명재 진안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발작물을 살피며 하루를 시작한다. 목회자이기도 한 그는 농부 이력이 15년이다. 스스로 농부라고 말하는 그는 진안의 시민사회운동 진영에서 꽤 알려져 있다. 사람들은 그를 ‘목사님’으로 부르지만, 목회자보다 케이블카 설치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환경운동가, 청년 귀농자들과 함께 협업농장을 운영하는 농부, 사회적경제 활동가, 동양철학과 역사를 강의하는 훈장으로 불린다.

4년 전 어느 모임에서 그와 밤새 이야기를 나눴던 장면이 떠오른다. 그는 곡주 두어 잔으로 밤새 혼자 이야기를 풀어내는 만담가였다. 새벽 3시가 넘어가는데 그의 이야기는 끊어지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고 듣고 있다보니 잠자는 시간을 놓치고 그의 말에 빠져 있었다. 말이 아니라 글이었다면 여러 차례 댓글이라도 달 수 있었겠지만, 씬 없이 이어지는 그의 이야기에 끼어들기는 허용되지 않았다. 분야를 넘나드는 그의 지식은 진안의 여러 학습모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학습모임에서 풀어내는 이야기 보따리는 ‘협동의 도시 진안’의 터를 일구는 자원이기도 하다.

협동조합연구소 설립으로 진안 사회적경제 길 닦기

그는 2018년 진안협동조합연구소를 세우면서 ‘협동의 도시 진안’을 꿈꾸기 시작했다. 이곳저곳에서 학습모임을 꾸리고, 귀농인들과 함께 발효주 기술을 배우며, 농촌의 밥을 지켜야 한다며 귀농인들과 함께 밥상지기협동조합을 준비한다.

그의 공식 직함은 진안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다. 2018년, 진안을 협동조합의 메카로 만드는 꿈을 꾸던 사람들이

만나 진안협동조합연구소를 차렸다. 회원 70명의 비영리 조직으로 2년간 인건비도 채기지 못하면서 연대 활동을 이어왔다. 그 결실로 올해 4월,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군으로부터 위탁운영 받았다. 사회적경제의 기초를 다지는 데 필요한 일이었지만 막상 시작하는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 부족으로 예산 집행이 늦어져 위탁운영 승인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사업비와 인건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진안협동조합연구소가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주력 사업은 진안군의 사회적경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농업을 비롯한 사회적 자원의 공유를 위한 수요와 공급 여부, 인식조사를 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처음 시작한 프로젝트다. 30명의 조사원을 훈련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지역 이장과 주민을 나이대별로 만나 지역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사회적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자원공유 조사사업은 지역특화사업의 하나로 농촌 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려 자주 사용하지 않는 농기구는 어느 정도인지, 지역 주민과 나눠 이용할 수 있는 트럭이나 차량은 있는지, 또는 빌려서 사용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등 자원의 공유 가능성과 공유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네트워크를 꾸리는 일도 놓칠 수 없는 일이다. 진안에는 40개 정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다. 한명재 소장은 협동조합연구소를 만든 이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심화 교육을 이어갔다. 이에 참여한 조직 대표들에게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현재 15개 조직이 모여 한 달에 한 번 간담회를 열고 네트워크의 활동과 계획을 논의한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공식 기구는 아니지만, YMCA 생협,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외에 협동조합 교육을 받고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5개 단체가 들어와 있다. 이 정도 사회적경제 조직을 찾는



밥상지기협동조합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주거공동체 '그리고 마을'

데 무수히 많은 발품과 시간이 필요했다.

‘진안의 사회적경제가 다른 지역과 어떻게 다른가, 어떤 곳이 있는가?’ 하고 질문을 받을 때면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대답하기 난감했다. “빨래방을 협동조합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자활기업인데 최신 기계도 들여놓고, 빨랫감을 수거하고 배달도 해주는데 사람들은 이런 협동조합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어떤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은 알 도리가 없다는 생각에 지도 제작에 들어갔다. 진안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위치와 주력 상품을 표시한 지도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용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사회적경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면 지도 제작에 포함된 정보를 통합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연구소는 2018년 4월 설립 때부터 금요일 학습모임을 꾸렸다. 매주 만나 협동조합 공부도 하고 관련된 책이나 논문을 함께 읽고 토론한다. 최근에는 군의원 4명이 합류했다. “국민이 바뀌어 세상이 바뀌는데는 10년이 걸리고, 공무원이 바뀌면 2~3년, 군수가 바뀌면 6개월이면 될 겁니다.” 그만큼 지자체의 의지가 사회적경제가 지역에 뿌리내리는 데 중요하다는 말이다.

진안은 가까이에 있는 전주나 완주보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더 그러하다. 그러나 한명재 소장은 인구 2만 5000여 명의 작은 농촌에서 사회적경제의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 “몬드라곤 인구가 2만 3000명 전후인데, 협동조합의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작은 마을은 인구 3000명에 협동조합이 20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진안도 가능합니다.” ‘협동의 도시 진안’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시작으로 30여 가구가 사는 골짜기 마을에서 협동의 도시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골짜기 마을에서 협동의 도시 모델을 찾다

‘협동의 도시’ 마을 모델 중심에 그가 14년간 목회자의 길을 걸어온 좌포 교회가 있다. 오랜 인연을 맺어온 귀농 청년들과 농촌 지킴이를 자처하며 만들고 있는 밥상지기협동조합과 그들과 생활을 함께하는 주거공동체가 미래 협동마을에 대한 밑그림이다. 밥상지기는 농촌을 찾아온 청년들이 농사를 기본으로 하되 다른 사업을 스스로 꾸려가 보자 해서 준비해온 협동조합이다. 한명재 소장도 여기에 참여한다. 이들 중 여섯 가구는 땅을 사 집을 짓고 아담한 주거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름을 ‘그리고 마을’이라고 지었다. 희망과 꿈을 그린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현재 밥상지기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주요 사업은 협업농장 운영과 발효주 만드는 일이다.

협업농장은 배추와 대추 등 발작물과 벼를 기르고, 절임배추 가공사업을 한다. 협업농장은 가능하면 작물들이 자연 그대로 자라도록 퇴비를 뿌리지 않고, 산간 지역의 특성을 이용해 잔가지를 파쇄해서 만든 우드칩을 비닐멀칭 대신 활용한다. 협업농장은 밥상지기협동조합에서 운영하지만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짓지는 않는다. 농사 외에 다른 일로 기여하기도 하고 일하는 시간도 각각 다르다. 그러나 수확물은 똑같이 나눈다.

발효 사업은 사과와 포도를 이용해 와인과 초를 생산하는 것인데 현재 9명이 주조 장인을 모시고 1년간 술 담그는 기술을 배웠고, 그 기술을 발휘해 가양주 대회 본선에도 진출했다. 앞으로 와인과 막걸리뿐 아니라 위스키 제조에도 도전하려고 한다. 발효 사업은 진안군의 경제적 특성을 사업으로 특화한 것으로, 지난해 사과 농사에서 큰 피해를 본 농가를 돕는 마음으로 사과주를 만들기 시작했다.

발효 사업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 협업으로 시작했다. 귀농귀촌



진안협동조합연구소 개소식

종합지원센터는 사업비 지원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교육과 인큐베이팅을 담당한다. 진안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귀농자가 꽤 많은 편이다. 2019년에 326세대가 진안에 내려왔을 정도다. 귀농자가 아니면 진안군 전체 인구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질 만큼 비중이 높다. 귀농자가 사회적경제 안으로 편입된 예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명재 소장은 진안의 사회적경제의 앞날에서 귀농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오는 청년은 별로 없습니다. 이들이 농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발효 사업입니다.” 기술을 배우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농촌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적경제에서 귀농 청년들의 미래를 구상한다. “귀농 청년들이 정착하려면 주거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모델이 ‘그리고 마을’이고 이후 새로 지을 ‘청년지원센터’입니다.” 그는 직접 대지까지 마련해놓았다.

목회자의 길, 사회적경제 운동가의 길

청년 귀농자에 유독 관심을 두는 것은 그가 2005년 진안에 들어올 당시 나이 40대에 갓 접어든 청년이었기 때문이다.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목회자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게 좌포교회에서였다. 교회당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교회를 둘러싼 풍광이 너무 좋아 이곳과 인연을 맺기로 마음을 먹었다.

목회자로서의 삶은 전도사였던 아버지의 소망이었다. 고등학생 때부터 아버지와 신학을 공부할 정도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신학과 아주 다른 분야인 중문학을 전공으로 선택했다. 졸업한 후 그는 회사 생활을 하다가 37세에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리려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다. 신학대학원에서 그는 ‘우리신학회’라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함석헌, 장준하, 원효 등의 종교인들을 공부한다. 그는 ‘신학을 이 땅에 어떻게 아름답게 심을 것인가’를 공부하면서 ‘농촌으로 가야 한다’는 답을 찾았다. 전도사와 부목사를 거쳐 2005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처음으로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에 있는 좌포교회에 부임한다. 이때부터 그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꾸준하게 귀농인들의 농촌 정착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갔다.

2019년 5월, 그는 14년간 목사 임기를 마치고 재야로 돌아왔다. “목사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하면 신도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지요.” 일반적으로 임기 제한 없이 종신제로 목사직을 유지하다보니 그의 임기제 제안은 특별했다. 그는 좌포교회 목사 부임 때부터 임기와 관련해 원칙을 정했다. 7년은 기본으로 재임하고, 신도들이 원한다면 연임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했다. 기본 7년 임기를 정한 것은 중간에 다른 이유로 교회를 떠나 농촌 신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다.

목사 한명재가 사회적경제와 인연을 맺은 건, 2012년 진안의 정론지를 내세우며 만든 <e진안 협동조합>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부터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처음 시행된 시기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몇 년 후 협동조합 활동을 접고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에 들어갔다.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좀 더 알고 싶었고, 목회자의 임무를 마친 후에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할지 답을 찾고자 했다.

한명재 소장은 새로운 길을 트는 마음으로 사회적경제 공부를 시작했다. 입학 후 6개월간 길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동기들과 매주 기숙사에 모여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기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고 답을 찾는 일을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진안에서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찾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의 기초적인 그림을 그려갔다.

몽상이 상상으로, 다시 현실로

그를 아는 주위 사람들은 그를 ‘몽상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 꼭 차 있는 수많은 기획 거리를 풀어놓으면 마치 내일 당장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몽상가로 그치지 않았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10여 년 전에 꿈꾸었던 일들이 지금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다. 좌포교회 목회를 마치고 하고자 했던 귀농자들의 주거공동체, ‘협동의 도시 진안’을 상상하며 마을 모델을 조금씩 만들어갔던 것 모두 오래전부터 조금씩 실천에 옮겨온 일들이다.

그는 오랫동안 꾸었던 꿈들을 잊지 않는다. 비법은 끊임없이 말로 쏟

아내는 일이다. 그는 자신이 구상하는 것을 사람들과 만나 말로 풀어낸다. ‘말로 끝나는 관념론자’로 욕도 먹었겠다 싶다. ‘그냥 하는 소리지’ 하며 무시당하기도 했겠다. 그러나 그는 ‘농사가 근본’이라며 청년 귀농자들을 마을에 정착시키는 일을 ‘말’로 끝내지 않고, 돈을 모아 땅을 구하고 사람들을 엮어냈다. 지금의 주거공동체인 ‘그리고 마을’과 협업농장, 앞으로 지어질 청년지원센터가 이를 증명한다. 진안의 사회적경제를 형성할 사회적경제 조직의 네트워크, 이를 지원하는 지원센터. 그가 그동안 꾸었던 꿈이 하나하나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 그에게 진안의 사회적경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지자체의 호응이 따라주지 않아 힘이 더 든다. 진안 지역 주민들 속에서 열의와 실천을 이끌어내는 일도 더디다. 그러하기에 그는 희망을 본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사람과 돈,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할 일이 무궁무진해 재미있습니다.” 그는 지역에서 가려져 있는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알게 되는 것들이 재미있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즐겁다.

그에게 또 하나의 도전은 청년과 어르신들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이루는 일이다. 진안에는 땅도 많지만 빈집도 많다. 귀농 청년들이 이곳에 자리 잡기 좋은 조건이다. 농사지을 땅이 있고 살 집이 있으니까. 그러나 정착 마을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농부의 자격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고, 빈집을 내어주지도 않는다. 특히 빈집은 어르신들이 머무는 곳으로 추운 겨울이 오면 자식들 집에 가 있다가 4월이 돼야 다시 마을로 돌아온다. 겨우내 사람이 머물지 않는 빈집들이 생긴다.

“좌포에 가면 33세대가 살고 있는데 76명이던 인구가 30여 명으로 줄었어요. 자식들 집으로 떠난 어르신들, 혼자 살기 어려울 정도로 아파 요양원으로 떠난 어르신들의 집입니다.” 한명재 소장이 내놓은 대책은 간단했다. 마을에는 마을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지 않는 마을회관이 있다.

이곳을 개조해서 어르신들이 머물 수 있는 독립 공간을 마련하여 이곳에 함께 살아가게 하며, 보건소를 통해 지자체가 어르신들의 돌봄을 담당한다.

“보건소장이 아침에 한 번 둘러보면서 진료를 보면 심하게 아파도 요양병원에 안 가도 되며, 고독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빈집은 귀농 청년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에게 임대료를 받아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하는 모델이다. 그가 말한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살아가는 마을, 커뮤니티 케어가 이루어지는 마을은 아직 그의 머릿속에만 있다. 이는 누구 혼자 감당할 수 없으며, 지자체와 주민, 중간지원조직들이 함께 쉼야 가능한 일이다. 그는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이 숙제를 내놓는다. 말이 곧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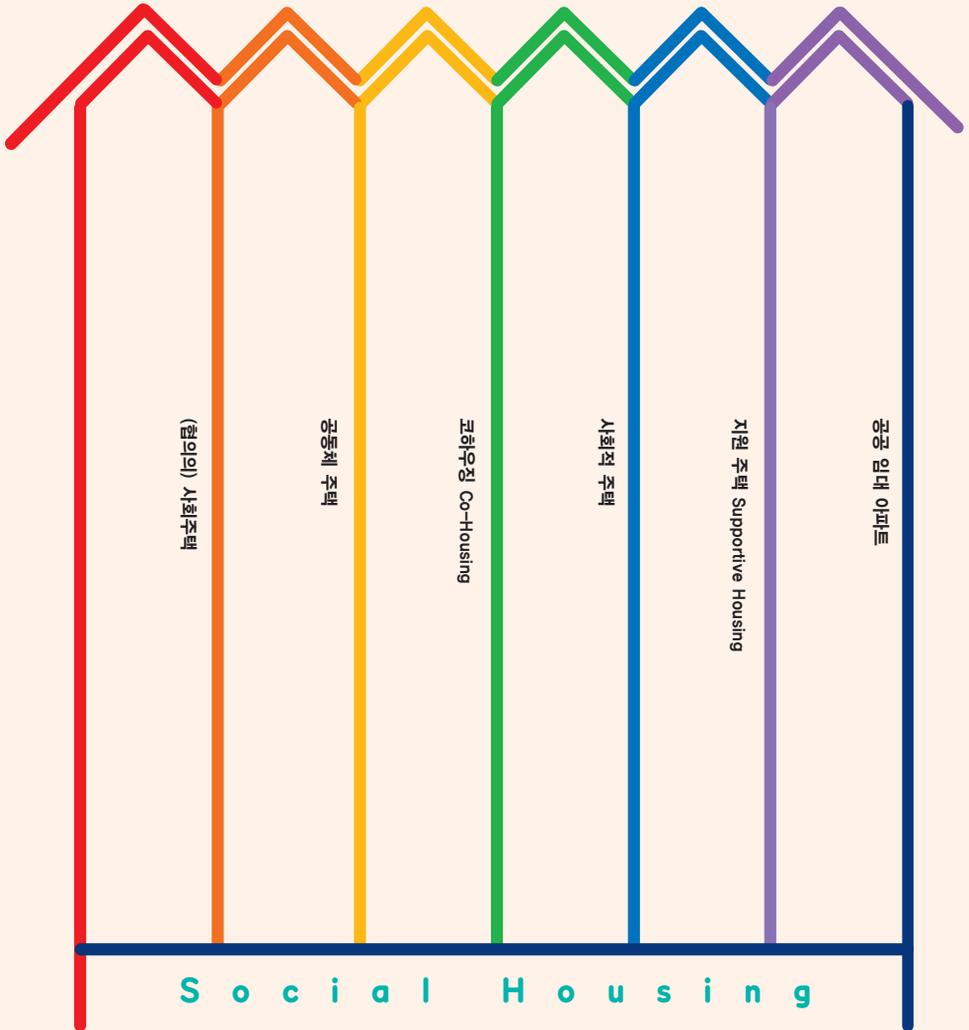
2000년에 펼쳐질 협동조합의 미래와 세계의 전망을 한 권의 보고서,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1980)에 담아낸 레이들로 A. F. Laidlaw는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제안한다. 이 구상은 사람들이 마을 안에서 자신들의 자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 활동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주택과 저축, 의료, 식품과 기타 일용품, 노인 보호와 아동 돌봄과 같은 서비스를 다양한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마을, 청년이나 어르신, 신체장애인 모두 생활과 노동이 가능한 마을. 한명재 소장이 이루고 싶은 협동의 도시 진안의 모습이 이리할까.

“진안의 사회적경제는 농촌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 안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탄생하고 사업을 만들어갈 겁니다. 그 옆에 협동조합연구소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나아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협력해갈 겁니다. 마을 한곳 한곳에서 ‘협동의 도시 진안’의 모델을 만들어갈 겁니다.”

사회주택^{social housing}의 이해

남철관

나눔과미래 지역활성화국장



주거 대란의 시대와 사회주택

집값 폭등과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 추이, 임대료 상승으로 요약되는 한국 주택시장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다. 우리 사회에서 서민 주거 안정은 아직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과제이고, 앞으로 도 미완의 논쟁거리로 남을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든다.

다수가 겪게 되는 난제는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게 한다. 1980년대 영구임대아파트에서부터 태동된 공공임대주택 역시 대규모 재개발과 철거이주민의 발생, 주택 가격의 폭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난 심화, 염가 민간임대주택의 재고 부족과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도입된 정책이다. ‘소셜하우징(Social Housing)’이라 불리는 사회주택도 시대의 산물이다. 유럽의 경우, 산업혁명 이후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위생,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주거 여건에 내몰리는 노동자를 위한 주택 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선의를 가진 자본가, 자원 조직, 노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 간 협력으로 사회적 자원을 모아 건설하기 시작한 주택인 것이다.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기존 주택이 전쟁의 참화로 인해 대거 멸실되고, 주택협회 등 민간 주체에 대한 토지, 금융, 세제 등 국가의 지원이 확충되면서 유럽의 사회주택은 부흥기를 맞이하게 된다. 영국(18%), 네덜란드(32%), 오스트리아(23%), 프랑스(17%) 등을 중심으로 사회주택이 저소득 계층을 넘어서 중산층에게까지 공급되었다.¹ 다양한 주택 수요층과 로컬 단위의 차별적 주거 수요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으면서도 부담 가능한 주거비 수준으로 민간 조직이 공급하는 주택으로의 위상을 공고하게 다져온 것이다.

1 통계 출처는 “Housing Europe Review 2012”(2011)로 한국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5.9%)과 큰 격차를 보인다.

사회주택 정책의 전개 과정

최근 한국에서도 사회주택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2015년 서울시가 ‘사회주택 지원조례’를 만들고 전주시와 시흥시 등이 뒤따르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민간 차원의 노력은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다채로운 사회주택이 등장해왔고 정책과 제도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 필자가 최초의 사회주택으로 보는 목화마을은 1985년에 서울 목동에 살던 주민들이 판자촌 강제 철거로 시흥시 은행동에 집단 이주하면서 빈민운동가였던 제정구 의원과 정일우 신부가 중심이 되어 건립한 주택이다. 자조적 주민 조직이 주거권을 스스로 확보한 사례로 의미가 깊다.

그 이후로 공동체 주택의 효시가 되는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만들기)’가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새로운 실험에 착수한다. 2011년 9가구가 모여 가구별 주거 공간과 공동부엌, 커뮤니티룸을 갖춘 주택을 건립하면서 함께 사는 주거 실험이 본격화되었다. 협의의 사회주택은 서울시 조례에 기초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다. 공공(SH공사)이 토지를 저렴하게 빌려주고 사회적경제 주체가 집을 지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현재 사회주택의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를 잡았다. 사회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상당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의 효시가 된 두꺼비하우징의 ‘공가(共家/空家)’와 같이 공공정책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미 대안 주거를 공급하기 시작한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사회주택의 개념

사회주택의 개념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의 사회주택은 지방정부와 사회경제적 조직 등 등록 사회임대인이 시장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에 공급하는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이고, 네덜란드에서는 민간 주택협회(Woningcorporatie)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공공임대를 포괄하기도 하고 공익적 민간 주체에 의한 주택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국가별로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회주택의 공통점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주택협회, 2017)

- ① 저렴하거나 부담 가능한 임대료
- ② 취약계층 등의 주택 소요(所要)에 부응해 배분
- ③ 지역재생, 사회통합 등 사회적 목적 추구
- ④ 공급 주체는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또는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 ⑤ 공공의 지원(금융, 재정, 토지)을 받아 공급

한국에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넓게 보면 최근 부상하고 있는 공유주택, 공동체주택과 코하우징, 지원주택도 광의의 사회주택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주택 유형

• 공유주택

먼저 셰어하우스로 잘 알려진 공유주택은 ‘가족 관계가 아닌 2명 이상의

임차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실·주방 등 어느 하나 이상의 공간을 공유하여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조 2항)이다. 최근 법제화가 되었고 코로나 이후 급격한 공실의 확대로 어떻게 하면 공유와 안전이 조화되는 집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공간 설계와 거주 문화의 양 측면에서 고민이 시작되었다. 국가적으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셰어하우스에 대한 규제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일부 사업자의 과잉 영리 추구에 따른 지나치게 과밀한 공간 배치와 높은 임대료, 최소한의 프라이버시 보장 문제가 주요 이슈이다.

• 공동체주택

공동체주택은 ‘각자의 독립된 주거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동체 공간과 규약을 통해 입주자 간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공유하는 주택’으로 제도적으로는 아직 서울시와 부산시의 지원 조례 정도가 전부이다.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앞서 언급한 ‘소행주’, 하우징콤플의 ‘구름정원사람들’과 같은 민간의 독자적 실천이 가장 활발한 영역이기도 하다.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독립적인 자치 규약과 커뮤니티 공간, 프로그램 인증을 전제로 건축비에 대한 저리 금융 지원이 되고 있다. 주로 사회적경제 주체 등 민간이 공급자(임대 주체)가 되고 입주자에 대한 소득 제한이 있는 사회주택에 비해 입주자(조합원) 대상 제한이 없는 주택으로 서로 대비된다. 최근 경기도가 사회주택 조례를 만들면서 입주자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 관리하는,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주택을 표방하여 두 주택 유형 간의 융합도 정책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함께주택협동조합이나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 토지임대부, 빈집사회주택의 시행자로 참여하면서 입주자협동조합을 준공 전에 구성하고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거주 생활을 영위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 사례도 공동체주택과 사회주택의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 지원주택 Supportive Hou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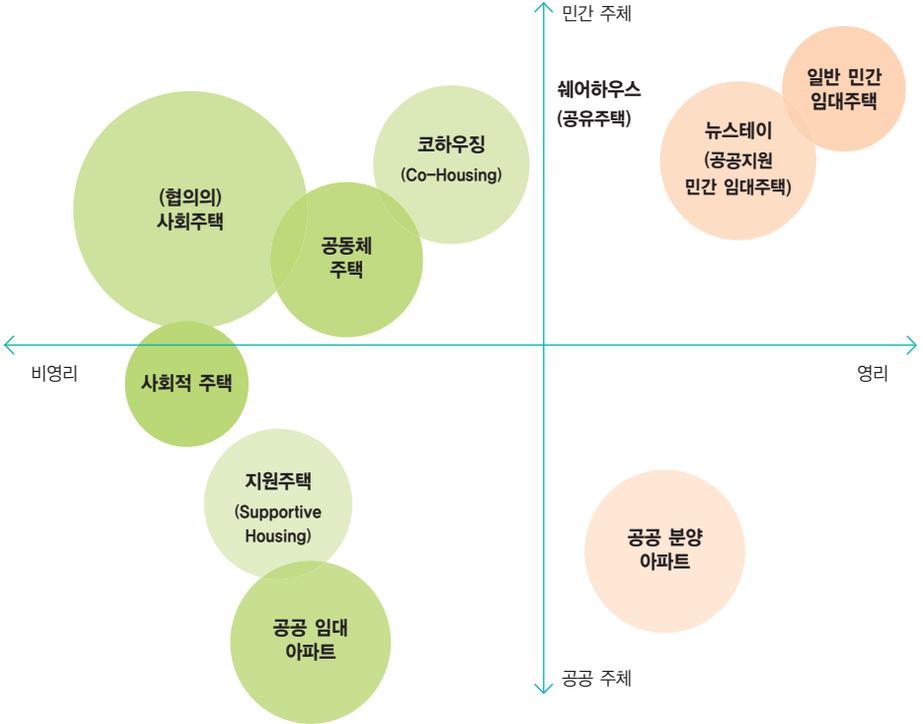
지원주택은 ‘어르신, 장애인, 정신질환자, 홈리스 등 사회적 약자가 시설이 아닌 자신만의 주거 공간에서 일상, 취업, 의료, 복지 등 주거 유지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 주택’으로 입주자별 전용 주거 공간과 사회서비스 공간이 결합된 케어가 필요한 주거 수요층을 위한 주택이다.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탈시설화가 더딘 우리의 현실에서 수용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복지시설 중심에서 지역 사회에 함께 거주하면서 서로 돌보는 지원주택으로 무게중심이 서서히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미 노인, 정신장애인, 홈리스 등을 위한 지원주택을 시범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LH공사도 노인을 위한 맞춤형 안심주택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원주택은 배리어프리barrier free나 더 진일보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지향하기 때문에 많은 건축비가 소요된다. 운영 관리 단계에서도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사업비가 필요한 특성으로 인해 아직은 공공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사회주택과의 차별성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민간 기부와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 비영리 조직 등이 공급하는 서포티브하우징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원주택 공급자로서 민간 주체의 성장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코하우징 Co-Housing

코하우징은 ‘사생활이 보장되는 협동주거 형태로 입주자들이 하나의 건물, 단지에 모여 살며 각자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주택과 공용 공간을 설계하여 거주하는 주택’이다. 1970년대 획일적 주거 형태에 반발해 덴마크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독일 등으로 확대된 주거 유형으로 한국의 공동체주택과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를 경험했고, 근린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유럽 등에서 고독에 대처하고 공간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서로를 심리, 정서

적으로도 돌보는 새로운 주거운동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택과 관련된 주거 유형의 특성을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사회적 주택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LH공사 등이 매입하여 공익 조직에게 운영 관리를 맡기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사회적 주택은 공급 주체는 공공이지만 운영은 민간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와 사회주택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시행, 시공한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고 다시 운영권을 부여하는 매입약정형 사회(적) 주택은 이런 특성을 더 분

명하게 보여준다. 공유주택은 주로 영리기업(개인)의 몫이지만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에서 보듯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경제 조직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기도 하기 때문에 비영리(제한적 영리)와 영리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다.

미래에 사회주택이 어떤 주택으로 자리 잡게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 지원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제도화가 진척되고 있고, 사회적경제기업과 비영리 조직을 필두로 다양한 공급 주체가 등장하여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다채로운 입주 대상을 염두에 두고 실험을 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보자. 머지않은 미래에 소셜하우징이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만의 주거 수요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마을의 주택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된다.

참고 문헌 · 최경호, 「사회주택과 도시재생」 발제 자료, 서울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2017. 7. 19.
· '함께 만드는 사회 더불어 사는 주택', 한국사회주택협회, 2017.

즐겁고 자유로운 비거니즘의 10가지 이야기

『비거닝』

이러영 외 9인 지음, 동녘, 2020.

이미옥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이사



원래도 고기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좋아하던 것도 있었는데 당연히 불편하고 황망하고 씁쓸하다. 난 별로 한 것도 없는 거 같은데 정신 차려보니 지구가 이 모양이 풀이 되어 있는 게 나도 여간 속상하고 억울한 게 아니다. 하지만 어찌겠는가? 환경에 가장 불균형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최대의 단일 인자가 육류라는데?

야생영장류학자 김산하는 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한다. 『비거닝』은 10명의 저자들이 채식을 하게 된 계기와 이것을 지속하는 것의 현실적인 어려움, 그럼에도 예전 상태로는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담담하고 솔직하게 전한다. 기후위기, 동물복지, 건강 등 어느 한두 가지 이슈에서 출발한 저자들은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축산업과 식품산업, 사회 시스템과 같은 복합적으로 촘촘히 얽혀 있는 진실과 마

주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06년 『축산업에 드리운 긴 그림자』라는 보고서를 통해 축산업이 전체 온실가스의 18%를 배출한다고 발표한다. 이후 발표된 여러 보고서들이 더 높거나 약간 낮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축산업이 기후위 기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동물 학대, 위생, 인류의 건강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뒤바뀌지는 않는다. 영국 환경운동가 조지 몽비오^{George Monbiot}¹는 공장식 축산과 같은 대규모 시설이 아닌 산지 농장에서 생산되는 소고기 1kg이 643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양고기 1kg은 749kg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밝힌다.

친구의 권유로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을 번역하게 된 김성환은 그전까지만 해도 맹렬한 육식주의자였다. 동물해방 운동가들의 사상적 기반으로 불리는 이 책에서 피터 싱어는 공리주의 원리에 입각해 동물들에게 도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람들이 즐겨 먹는 동물들은 태어나서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단 하루도 괴로움을 겪지 않는 날이 없을 만큼 비참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무리 애를 써도 책에서 제시한 상세한 과학적 자료들과 윤리적 정당성을 반박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던 번역자는 여전히 고기에 유혹을 느끼면서도 채식을 실천 중이다.

밀레니얼 세대들이 환경과 동물에 대한 이슈에 높은 관심을 가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채식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영국에서 거주하며 지속가능 비즈니스 혁신을 연구하고 있는 박규리는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는 사이 채식이 하나의 엄연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다.

1 조지 몽비오는 영국 『가디언』 칼럼 연재로 유명한 환경운동가이며, 『비거닝』에 칼럼 중 2편이 번역되어 실려 있다.

로스트비프의 나라인 영국에서 2019년 현재 비건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인 60만 명에 이르며, 14% 정도가 때때로 육식을 하지만 대부분 채식 지향인 회색채식인^{flexitarian}으로, 최근 5년 만에 4배가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대체육류와 ‘완전채식’ 인증을 붙인 식품이 늘어나고 비건 메뉴를 포함한 식당이 55%나 된다. 회색채식인 박규리는 ‘음식이 버려질 위기에 처했거나, 직접 만든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 생일 날’ 등 고기를 먹는 세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그 외에는 채식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훨씬 전부터 육식을 즐겼던 영국과 유럽이 이렇게 변할 정도라면, 원래 훌륭한 음식문화를 지닌 우리는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라며 한국 독자들을 독려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채식 인구는 1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 수준이다. 채식하는 의료인들의 비영리단체 ‘베지닥터’ 사무국장인 의사 이의철은 2019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조금씩 느껴지는 채식에 대한 관심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녹색당이 공공 급식에서의 채식 선택권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², 몇몇 사회운동 단체들이 기후위기와 채식을 의제로 삼기 시작한 것, 군대 내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 등을 비롯해 그 역시 많은 언론들의 인터뷰 요청을 받고 토크쇼에도 출연했다.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현대인들의 질환을 치료할 수단으로 ‘채식’을 고민하기 시작한 그는 현재 ‘탈육식’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건강에 좋지 않은 대체육류나 채식 식품들이 각광을 받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한국의 비건운동이 서양의 경험을 답습하기보다는 다양한 곡물과 야채 위주로 구성된 한국 식단의 경험을 통해 건강한 채식 대안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그가 제안하는 방향은 ‘자연식물식^{Whole-Foods, Plant-Based diet}’인데, 이는 동

2 2020년 6월 헌법재판소는 공공 급식 채식 선택권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물성 식품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식물성 기름과 설탕, 고도로 가공된 식물성 식품 등도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온갖 종류의 버터 맛을 구분하고 어디서든 맹목적으로 버터를 찾는 예술사회학 연구자 이라영이 비건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우유로 만든 버터였다. 동물 착취와 기후위기의 시급함에 공감하여 육고기를 치운 그는 해산물, 달걀, 버터를 가끔 먹는 페스코 베지테리언이다. 채식을 하면 먹을 게 없을까봐 걱정하지만 고기에서 눈을 돌리니 더 많은 미식의 세계가 열렸다. 콩비지로 브라우니를 만들고, 캐슈너트, 땅콩, 아몬드 비건 버터를 만들어 먹으며 버터와 이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만들다 보니 주방은 가장 실험적이고 생산적인 장소가 되고, 상품이 아닌 먹을거리를 만드는 과정에 개입하는 경험은 식재료를 대하는 태도를 바꾼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다보니 어느새 비건이 된 강하라는 비건적인 삶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가진 우물의 벽이 얼마나 위협했는지 알게 됐다 고 말한다. 채식 관련 기획 기사를 쓰기 위해 ‘집중단기 비건’을 하고 나서 현재는 실패한 비건인 『한겨레』 기자 신소윤은 다시 고기를 먹지만 조금은 주저하게 되고, 먹는 것부터 입고 쓰는 것까지 동물의 희생을 대체할 것이 있으면 비건을 선택하는 비중이 훨씬 커졌다. 싱어송라이터 김사월 역시 비건 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바쁘거나 우울해지면 폭식과 Non-비건 음식을 충동적으로 먹는다. 매번 옳은 선택을 하며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포기하는 거보다 계속 그 방향으로 향해 간다. 100년도 안 되는 인생 동안 낭비만 가득 찬 삶을 살고 싶진 않기 때문이다.

책 『비거닝』은 ‘채식에 기웃거리는 당신에게’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다양한 관심과 이유로 채식을 해볼까 생각은 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10명 저자들의 채식 생활을 참고 삼아 일단 한번 쉽게 도전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가장 쉽게는 때때로 육식을 하지만 주로

채식 지향의 식사를 하는 회색채식인부터 생선·우유·달걀을 먹는 페스코 채식인, 100% 채식을 하는 비건, 그중에서도 자연 상태의 채식을 하는 자연식물식 비건 등 각자가 선택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젠더와 팔레스타인 이슈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조한진회는 채식을 개인의 욕망과 선택만의 문제로 봐선 안 되며 사회의 여러 요소가 매우 복잡하게 작동하는 정치적 영역이라고 얘기한다.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더 윤리적이라거나 육식에 대한 선부른 비난, 선택의 강요 등은 바람직한 접근 방식이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을 둘러싼 다양한 연결성에 대해 더 이상 못 본 척 눈감지 말고, 모두에게 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이 무엇일지 가능한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보자는 것이다.

권위적인 어른이 될 것인가, 권위 있는 어른이 될 것인가?

『우리는 왜 어른이 되지 못하는가』

파울 페르하에허 지음, 이승욱·이효원·송예슬 옮김, 반비, 2020.

김현숙

『생협평론』 편집위원



“예지 언니가 그러는데 아*폰에는 구* 기프트 카드 사용이 어렵대.”

아이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을 때 나는 놀랐다. 이 부분에 대해 몇 개월 전부터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아이는 내 말을 듣기만 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방 언니의 말은 단번에 수긍한 것이다. 아이가 자랄수록 내 말이 힘을 잃어가는 것을 자주 경험하고 있다. 나는 아이와 평등한 관계 속에서 자율과 통제를 이뤄가는 부드러운 양육 방법을 택했다. 좋은 친구를 자처하며 권위를 내 스스로 내려놓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양육 방법으로는 아이의 기를 살리면서 내 권위도 지키기는 어렵다는 것을 계속 깨닫는 중이다. 친근한 관계를 통해 아이가 자유롭

지만 예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길 원했다. 그러나 미답지 못한 불안한 마음은 아이에게 온전한 자율의 개념도 자율의 작동 방식도 알려주지 못했다. 이로 인해 서로의 기는 통하지 못했고, 통하지 못한 기는 차올랐고, 막혀갔다. 막힌 기운은 혼욕을 가장한 폭력의 모습으로 가끔 드러나기도 했다. 이제 아이는 어설피 배운 자율로 나와 무언가를 ‘협상’하려는 태도를 종종 보인다.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중이다. 많은 가정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정상^{Normal}적인 것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벨기에의 정신분석학자인 저자는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에서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잔혹해진 심리장애의 원인을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부작용이라 말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든다. 『우리는 왜 어른이 되지 못하는가』의 영어판 제목은 ‘Says who?: the struggle for authority in a market-based society’이다. 직역하면 ‘시장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권위를 얻기 위한 고군분투’ 정도이다.

저자는 이 책 서두에서 경제 모델인 신자유주의(시장)가 이제는 사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개인의 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영역으로 세력을 뻗쳐 정상적인 것에 대한 기준^{standard}마저 변질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 사상. 이 흐름이 승자와 패자,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 사람을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운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저주의 시스템이라 말한다.

“어쩌다 연대^{solidarity}가 듣기 싫은 단어가 되었으며, 욕심이 미덕이 되고, 쾌락이 의무가 되었을까? 이런 변화의 근원에 어떤 권위와 권력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 힘이 과거에 존재했던 권위와 어떻게 다르며 그간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22쪽) 저자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대안을 찾

기 위해 노력했고 이 책이 그 결실이다.

모두가 권위를 버리고자 하는 시대에 권위 회복에 대해 논하는 것이 의아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 세대가 권력에 의한 통제는 원하지 않으면서도 전지전능한 무언가로부터 삶의 문제를 해결 받고자 함을 꾀지어낸다. 그 실마리를 힘으로 누르는 권력이 아닌, 새롭지만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방식에서 찾았고, 이를 진보적 관점에서 풀어냈다.

왜냐고? 내가 한 말이니까!

한 CEO가 회의 자리에 참석하자 참석자들은 경청의 자세를 취한다. 대표가 발언을 마치자 구성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한다. 그가 한 말이 옳아서일까? 아니면 그가 한 말이기 때문일까? 우리는 특정인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 사람이 한 말이어서 수궁할 때가 적잖게 있다. 이때 발화자는 구성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닌, 수직적 구조 안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자는 이러한 권력자가 갖고 있는 권위는 유예된 폭력이라 말한다.

권위와 권력은 모두 불평등에 기초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둘은 다르다. 권력은 두 사람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강자가 약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반면 권위는 제3의 요소인 모두가 공통으로 믿는 외부의 원천에 근거한다. 이때 외부적 근거가 꼭 높ی 있거나(기독교) 오래 되었거나(전통)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개인의 외부에서 와야 하며 대다수가 인정해야 한다. 권위가 자발적인 복종으로 세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 외부의 원천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두 세대 전까지만 해도 권위는 제자리에 건재해 있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회 사이에는 예의와 질서가 존재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하향식이자 전통적인 권위가 힘을 갖지 못하면서 삶의 여러 곳이 무질서해져가고 있다. 사람들은 이를 개선해보고자 노력했으나 어른으로서 인정받던 권위는 점점 더 희미해져갔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소진 burn out 되기만 했다. 한나 아렌트는 “권위란, 인간관계를 규제하는 기능을 하기에 권위 없이는 사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한나 아렌트의 말에 따르면 권위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세대에는 권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통적인 권위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권위를 찾아 사회와 삶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새로운 권위는 수평적 권위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에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주 양육자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일정 나이가 되면 아이는 이웃들과 함께 키우게 된다. 이때 이웃이라 함은 가족, 어린이집 교사, 학교 선생님, 방과 후 교사 등을 포함한다. 부모만으로는 아이를 온전히 양육해내지 못한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양육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권위가 이미 존재해왔던 것이다. 저자는 이것을 특정 권력자(부모)에 의한 수직적이고 하향적인 권위가 아닌 수평적 권위(이웃과 함께)이면서 공동체 형식의 ‘집단 권위’라고 말한다. 부모, 교사, 아이가 수평적 네트워크인 집단 권위 안에서 서로를 발견하며 함께 성장하게 만든다. 이 수평적 권위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동함으로 작동한다. 한 주체가 권위를 독점하는 것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권위를 가지며 책임을 나누는 형태인 것이다.

예를 들어 문제로 보이는 행동을 아이가 반복할 때 가능한 빨리 이웃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고, 아이를 포함한 공동체가 해결을 위해 집단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때 목표는 반드시 처벌이 아닌 교정이어야 한다. 이 과정에 참여한 아이는 어른들과 또래 친구들이 보여준 관심 속에서 자신이 비난받지 않고 지지받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이는 자연스럽게 수평적 권위 집단의 일원이 되고, 이런 경험으로 다른 누군가를 돕게 될 것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닌 옆 사람과의 네트워크를 이뤄가는 것이 새로운 권위의 작동 방식이다. 이렇게 형성된 단단한 권위는 애정을 만들어 내며 좋은 현상을 되풀이하게 만든다.

양육, 교육, 젠더, 정치, 경제 등 사회의 모든 곳은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권위를 내포하고 있다. 이 권위는 이제 옛것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때 새로운 변화의 원천은 집단이 되어야 하고, 수평적 권위의 핵심은 개인의 자율성이어야 하며, 이 자율성은 타인과의 연대를 필요로 한다.

저자는 새로운 권위가 육아와 학교에서는 공동체를 통해 구성원을 회복시키고, 경제 영역에서는 협동조합과 같은 커먼즈commons를 통해 지속가능함을 만들어갈 것이며, 정치에서는 선거 방식의 변화를 통해 숙의민주주의를 이뤄갈 것이라 이야기한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2000년대 초 ‘부자 되세요’라는 한 카드 회사의 광고 카피가 유행한 적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심리적으로 위축된 서민들에게 부자가 되라는 덕담은 행복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해 보였다. 많은 이들이 현금보다 편리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소비가 주는 풍족함을 즐겼다. 소비를 줄이면 그

동안 쌓아온 신용의 등급이 내려가기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쇼핑은 계속되어야 했다. 이렇게 신용카드를 사람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빚을 사고 파는 시스템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돈이 아닌 관계가 삶의 많은 부분을 채워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물질을 향한 애정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총기와 지혜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에, 좋은 삶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 또한 사회 곳곳에서 이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나는 수평적 권위가 정말로 새로운 권위의 형태가 되어가고 있음을 굳건히 믿는다. 이 변화가 과연 이뤄질지는 더 이상 의심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이뤄지고 있는 변화를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고, 어떤 세력이 이 변화를 막으려 할지 감시하는 것이다. (305쪽)

모든 것이 넉넉한 시대이다. 그런데 관계는 더 어려워져만 간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 저자는 수평적 권위가 이 변화를 도울 것이고, 이 수평적 권위는 스킬(기술)이나 제도가 아닌 변화에 근거한 신념이라 강조한다.

일본생협의 플라스틱 감축은 지금

이은선
세이프넷지원센터
가치확산팀

일본생협을 검색하다보면 최근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SDGs와 윤리적 소비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Leave no one behind)'라는 SDGs의 슬로건은 생협이 추구하는 이념과 공통된 부분이 많다. 이에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일생협연합회)¹는 2018년 6월 개최된 총회에서 SDGs의 17개 목표를 7가지 행동 목표로 축약한 '코프 SDGs 행동선언'²을 채택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데 생협이 일익을 담당할 것을 약속했다.

이 '코프 SDGs 행동선언'을 실행하는 수단이 바로 윤리적 소비다. 나만이 아니라 환경과 사회까지 생각한 윤리적 소비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윤리적 소비에서 내건 3가지 중점 목표 중 하나가 리사이클 실천이다.

일본생협은 3000여만 명의 조합원과 3.5조 엔의 매출 규모를 가진 일본 최대의 소비자 조직이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 사업에서 시작해 지금은 생협이 가진 인프라를 활

- 1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일본 전국의 319개 생협이 가입해 있는 전국연합회로 조합원 수는 2924만 명이며, 매출은 3.5조 엔이다.(2018년 말 기준)
- 2 김은영, 「일생협연합회, <생협 SDGs 행동선언> 채택」(ICOOP 생협 뉴스, 2018. 7. 27.) 참조.
<http://icoop.coop/?p=7991731>

용해 공제, 육아, 복지, 재해 지원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문제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생협이 근원적 과제로 삼고 2004년부터는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2012년에 발표한 ‘2020년을 향한 생협의 새로운 환경 정책’에서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1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2018년 현재 일본 생협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CO₂로 환산해서 68만 6700t으로 이는 2005년 대비 19.9% 감소한 수치다.³ 공급액 1억 엔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2005년 대비 30%가 줄었다. 이대로 가면 2020년까지 15% 감축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CO·OP 상품의 플라스틱 포장재 방침

이 글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과 관련한 일본생협의 시각 현황과 실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중 42%가 포장 용기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품사업을 하는 생협으로서 플라스틱 문제는 늘 생협이 안고 있는 과제 중 하나다. 상품의 과포장도 문제지만 제품을 손상 없이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일생협연합회는 ‘SDGs 실천 방침 2018’에 근거하여 2030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CO·OP 상품 플라스틱 포장재 방침’을 2019년에 책정했다.

3 일본의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실천에 대해서는 『라이프인』 기사, 김은영, 「일본생협 “환경문제도 생협이 해결해야 할 근원적 과제”」(2020. 11. 30.) 참조.

일생협연합회의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기본 관점은 리듀스Reduce, 사용량 절감, 리유스Reuse, 재사용, 리사이클Recycle, 재자원화 재생, 바이오매스Biomass, 바이오 플라스틱 네 가지다.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코프 상품에는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다.
- 2030년까지 포장 용기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중량을 2016년 대비 25%(약 5,195t) 줄인다(2016년 생협 상품 포장재에 사용된 플라스틱 수치 중량은 20,783t).
- 2030년까지 재생 플라스틱과 바이오플라스틱 사용률을 50%로 높인다.
- 2030년까지 음료 등의 빨대는 100% 플라스틱이 아닌 소재로 전환한다.

원료에서 포장까지 환경을 배려한 상품 개발

일생협연합회 상품 중 플라스틱 포장재 중량을 줄인 대표적 상품은 'CO·OP 탄산수'다. 연간 3700만 개 이상 출하되는 이 상품의 페트병 중량을 31g에서 24g으로(-7g) 줄여 2017년 4월 출시 이래 2년 동안 495t의 플라스틱을 줄였다. 2019년 6월에 출시된 'CO·OP 라벨 없는 물'은 표면에 붙이는 라벨을 제거해 1개당 플라스틱 사용량을 0.86g 줄였다. 작년 1년간 출하 실적으로 환산하면 연간 9.9t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생 플라스틱과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관련해서는 올 9월에 발매된 'CO·OP 무착색 한입 명란젓'을 비롯한 7종의 명란 관련 상품의 트레이와 뚜껑에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20년 11월 현재 발매 상품 중인 195품목에서 재생 플라스틱과 바이오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사업을 추구하는 팔시스템생협

지역생협 차원에서도 플라스틱 저감 노력이 활발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는 팔시스템생협(조합원 158만 명, 매출 2149억 엔)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사업 추진’을 사업이념으로 삼아 상품 개발에서부터 포장 용기의 플라스틱을 줄이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3개년 계획으로 ‘플라스틱 배출 총량 줄이기’에 도전해 PB 상품을 중심으로 120개 품목과 2개 상품군에서 포장재를 개선했다.

REDUCE : 배출 총량 줄이기

팔시스템은 먼저 조합원이 제안하고 참여하여 트레이를 뺀 ‘만두로 하자’ 시리즈를 개발해 연간 약 320만 장의 트레이를 줄이고 있다. 수산 제품인 시메사바(고등어 가공품)의 경우는 포장당 플라스틱 중량(10g)을 30% 줄여 연간 약 1.1t의 플라스틱을 줄였다. 포장재 중량을 줄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생원료 등 보다 친환경적인 재질로 포장재를 바꾸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생수병을 생협 최초로 PET 수지를 100% 활용해 출시했다. 1kg을 원유로 제조할 경우 약 1,577kg의 CO₂가 배출되는데, 재생 PET 수지 1kg을 생산할 경우 약 0.583kg의 CO₂가 배출되어 약 63%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REUSE : 다시 사용하기

‘리유스’ 실천에서는 재사용병 사용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리유스 병을 사용하고 있는 생협은 팔시스템을 비롯해 생활클럽, 토토생협, 그린코프, KuruCo 5개 생협이다. 팔시스템은 1994년부터 재사용 병을 도입해 주로 간장이나 식초 같은 조미료 병과 잼이나 술 등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상품 용기로 사용한다. 재사용 병 회수율은 2017년 현재 60% 정도이

다(연간 약 236만 병). 일반 병을 사용하는 것보다 재사용 병이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재사용 병 사용을 계속 늘려가고자 한다.

RECYCLE : 재활용

팔시스템에서는 쓰레기도 자원으로 생각해서 회수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상품 안내지, 테트라팩을 회수하여 재생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우유갑이나 테트라팩은 조합원이 깨끗이 씻어서 내놓으면 공급자들이 회수해 간다. 우유갑 하루 회수량은 2.4t 정도 되는데 이것은 중간에 심이 없는 롤 휴지로 재생된다. 조합원들은 내가 씻어서 내놓은 쓰레기가 롤 휴지로 변신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순환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어 환경 실천에 참여하고 있다는 실감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팔시스템은 플라스틱 삭감 노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 거래 업체로 구성된 팔시스템협력회와 2019년 5월 ‘플라스틱 저감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례 연구나 노하우를 나누며 플라스틱 줄이기를 강화해갈 예정이다.

생활클럽생협의 그린 시스템

생활클럽생협⁴이 추진하는 ‘그린 시스템(Garbage Reduction for Ecology and Earth’s Necessity, 지구 생태계를 위한 쓰레기 줄이기)’은 병 규격을 몇 가지로 통일해 회수·재사용하는 시스템인데, 2018년에는 환경성이 주최하는 제6회 ‘굿라이프 어워드’에서 환경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총 67개 품목의 상품을 규

4 생활클럽생협은 33개의 회원 생협이 가입해 있는 사업연합으로 약 40만 명의 조합원이 있다.

격이 통일된 8종류의 재사용 병(R병)에 담아 공급하고 있는데, 매년 1600만 개가 회수되어 약 4000t의 폐기물을 줄이고 있다.⁵ 지금(2019년 4월)까지 회수된 병의 개수는 1억 1800만 개로(평균 50회 재사용), 리사이클보다 3만t 가까운 탄소 배출량을 줄인 것이 된다.

재사용 병의 도입과 확대는 생협 간 협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1994년 당시 재사용 병을 사용하던 생협⁶ 네 곳이 모여 ‘병재사용네트워크’(https://binnet.org)를 만들었다. 재사용 병이 좋은 건 알지만 병은 너무 무겁고 깨지기 쉽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병재사용네트워크는 1998년 일본 유리병협회와 협력해 기존의 병보다 가벼우면서 강도가 강한 병을 개발해내기도 했다. 병재사용네트워크를 통해 지금까지 회수한 병의 개수는 2억 2000만 개에 달한다. 재사용 병을 회수할 때는 조합원이 종이 라벨 및 필름 포장을 벗기고 씻어서 내놓아야 하고 병 입구 등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생활클럽생협은 보다 많은 조합원이 회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알리는 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에서 나오는 자원을 재자원화하는 리사이클센터

사업에서 나오는 다양한 쓰레기 중 자원화할 수 있는 것을 상품화하기 위해 생협이 가동하고 있는 리사이클센터가 2019년 12월 현재 14개에 달한다. 상품을 배송하고 돌아오는 생협 차량 편으로 조합원, 매장, 물류센터에서 포장 용기나 물품 안내지, 사업으로 나오는 폐지와 비닐, 음식 찌꺼기 등을 회수해 리사이클센터로 가져와 분리하여 재자원화하고 있다.

5 『생활협동조합연구』 2020. 9.

6 생활클럽생협, 팔시스템생협, 그린코프, 토토생협

온라인에서 효과적으로 연결되는 5가지 방법

서동재
한살림연합 조직지원팀

얼마 전 유튜브로 건축가 유현준 교수의 강의를 들었다. 그는 서울이 코로나 시대에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냅스의 총량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냅스는 뇌 신경세포의 연결망이 아니던가. 100조 개의 시냅스는 전기적, 화학적 작용을 통해 뇌 속에서 정보를 전달한다. 흔히 치매 증상은 시냅스가 손상되면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유현준 교수는 도시와 사람의 관계, 밀도를 시냅스라는 메타포로 표현하면서, 도시가 촘촘하고 많은 사람과 접촉할수록 더 많은 시냅스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도시의 경쟁력이라 했다. 이에 따르면 공간의 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오프라인의 시냅스가 증가하다가,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온라인 시냅스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서울이다. 온라

인을 통한 배달, 택배 문화와 이에 최적화된 주거 형태인 아파트가 시너지를 일으켜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강연을 들으며 문득 ‘시넵스’라는 표현이 친숙하게 느껴졌다. 생협들은 물품을 통해 조합원과 소통한다. 조합원들은 총회, 이사회, 모임,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 높은 밀도의 시넵스를 만들어낸다. 이 같은 조합원에 의한 자발적 활동은 생협의 고유한 경쟁력으로 발휘되어왔다. 생협 조직에서의 시넵스가 어찌면 사회적 자본에 대한 메타포로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코로나 상황에서 생협들의 시넵스는 어떻게 작동했을까. 일단 총회부터 난항을 겪어야 했다. 정관 변경과 규약 제정, 임원 선출, 사업 계획, 예산 승인 등 협동조합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대면 총회를 거쳐야 했기에 일선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조합원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다. 각종 모임이 제한되면서 생협의 조합원 활동도 위축되었다. 하지만 이내 조합원들은 카카오톡과 밴드 등을 통해서 행사와 정보, 활동들을 공유해나갔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 시넵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지향점이 아니라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가까웠다.

온라인을 통한 모임과 회의, 교육, 포럼도 일상화되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화상회의 도구들도 점차 익숙해지게 되었다. 줌을 통해 일방향적으로 전달되었던 교육들도 페들렛이나 멘티미터와 같은 쌍방향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오프라인 진행 못지않은 성과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지난 9월 한살림은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모임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 달간 941명의 조합원과 함께 하루 10분 걷기 모임, 일기쓰기 모임, 채식 모임, 스쿼트 챌린지, 하늘보기 모임 등 다양한 주제로 모임을 열었다. 이를 통해 그간 자주 만나지 못했던 육아맘, 워킹맘 조합원과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 모델을 모색할 수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온라인은 오프라인의 보완재가 아니게 되었다. 온라인 모임은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온전한 생협 활동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생협들이 온라인 시넵스를 강화해나가길 바란다면, 오프라인에서 이룩한 성취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보다는 온라인으로 했을 때 효과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검증하고 적용해나가는 전략이 유용할 것이다.

온라인 모임은 오프라인에 비해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하기에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공유가 필요한 내용을 미리 보내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회의 구조화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올해 여러 가지 온라인 회의와 교육 등에 참여하고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시넵스를 강화하는 5가지 소통 가이드를 정리해 보았다. 이 내용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교육과 포럼, 회의를 설계하거나 진행할 때도 참고해볼 수 있다.

1. 기술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그라운드를 정한다

온라인 모임 특성상 주변 자극에 주의 집중이 쉽게 분산되므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발언하지 않을 때는 음소거를 유지하거나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다음 발언을 하는 등의

그라운드룰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온라인 모임이 처음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모임 시작 전 최소 30분 전에 모임을 개설하고 접속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2. 초반 10분은 가볍게 근황을 나누고, 서로의 상태를 파악하자

온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비언어적인 소통을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명시적으로 서로의 근황을 나누거나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크 도구를 활용해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분위기를 파악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레벨을 1에서 10까지 숫자로 표현해보고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며 상대의 감정 상태나 참여 에너지를 확인한 후, 이를 참고하여 본 안건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3. 문서 화면을 공유하고 하나의 페이지를 같이 보자

온라인 모임을 할 때는 구성원들의 시선을 하나로 모으는 센터가 필요하다. 이때 회의 의안서나 의사결정을 하는 내용들을 시각화하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모두가 동시에 볼 수 있는 한 화면으로 공유하는 등, 집중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이 좋다.

4. 참여를 높이기 위한 기능을 활용하자

참여 촉진 요소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면 수동적으로 되기 쉽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카카오톡 투표 기능, 멘티미터, 구글 스프레드시트 등을 활용해 실시간 투표 기능을 활용하거나 채팅창을 활용해 의견을 명시적으로 작성하게 한다. 온라인 교육을 할 때 10명이 넘을 경우에

는 3~5명 사이로 소그룹으로 분할하여 토론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진행 발언을 참여자가 고르게 하면서 의사소통을 명료하게 하자

‘절차적 회의행동(Procedural Meeting Behavior)’이라는 것이 있다. 회의 촉진과 관련된 행동을 뜻하는데 이를테면 “좋아요, 그러면 주제로 돌아가세요”, “우선은 ○○○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중요한 논의 지점이 ○○○인가요?”, “제가 한번 스프레드시트에 적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였네요” 등 회의 절차에 대한 제안이나 의견을 요약하여 가시화하고 명료하게 해주는 것, 시간을 확인하는 것들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진행자가 하는 발언들이다. 회의 촉진과 관련된 행동이 빈번하고, 모든 참여자가 골고루 할수록 팀워크와 성과가 좋다. 모두가 같이 노를 젓는 사공이어야 하며 승객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온라인 소통 노하우도 궁금하다. 온라인 어디에선가 만나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다.

생협평론 2010 겨울(창간호)

창간 특집 **윤리적 소비, 신자유주의 질서를 거스르다!**

소비가 이념적이고 윤리적이기까지 한 까닭은?

—이정옥(대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윤리적 소비의 경제학적인 이해와 생협의 선택

—김형미(메이지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후기과정)

iCOOP생협과 윤리적 소비

—정원각(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윤리적 소비

—이의남(iCOOP고양생협 이사)

[창간 특집 좌담]

윤리적 소비는 생산, 소비, 노동 모두를 고려한다

—김아영, 김미영, 송정임, 우분주

생협평론 2011 봄(2호)

특집 **경쟁의 생산에서 협동의 생산으로**

WTO-FTA 시대 한국의 농축업정책,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권영근(생명창고·지역순환형 사회형성추진운동협의회 상임대표)

한국 농업의 위기와 협동조합의 과제

—정은미(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협동과 상생의 대안 만들기

: 배추과동을 통해 생각해보는 생협운동의 비전

—허현중(지역재단 기획이사)

아이쿱은 왜 생산의 문제를 고민하는가?

—신성식(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

생산자들에게 듣는다 : 한국농업현실과 아이쿱 생산정책

—김진원, 박석원, 오미예, 유재흠, 주정산

생협평론 2011 여름(3호)

특집

협동조합 제대로 이해하기

협동조합이란? :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기

—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신뢰의 생산이 협동조합의 본성

— 정찬울(친환경유기식품유통인증협회 사무국장)

왜 협동조합은 규모 확대 문제에 더 민감한가

— 장종익(연세대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일본 생협이 직면한 과제와 조합원 참여 시스템

(日本の生協が直面する課題と組合員の参加システム)

— 丸山茂樹(JC総合研究所、客員研究員) / 번역: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좌담]

생협, 규모가 커지면 협동조합 정신이 훼손될까?

— 김영숙, 이금자, 이필구, 김아영

생협평론 2011 가을(4호)

특집

복지사회, 협동과 참여

복지국가운동과 협동조합운동

—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더티 정책위원)

복지사회의 이행전략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

— 장원봉(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협동조합운동과 복지

— 김형미(메이저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선수금 운동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협동조합 경제

— 오항식(아이쿱생협연합회 사무처장)

[좌담]

협동과 참여, 그리고 복지

— 권순실, 김민경, 이미연, 장남희, 김아영

생협평론 2011 겨울(5호)

특집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 김찬호(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두레생협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과 의미

— 권순실(생협전국연합회 전 회장)

지역사회에서, 생활인이, 만들어가는 소박한 복지

: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협동복지사업

— 박계선(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기획부)

나눔과 협동이 건강을 만든다 : 의료생협

— 조병민(대전민들레의료생협 전무이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

— 정규호(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실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이쿱생협

— 김대훈(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장)

일본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協同組合と地域社会への貢献)

— 北川太一(福井県立大学経済学部 教授) / 번역 :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좌담]

지역 활동가들이 보는 협동조합의 나눔 활동

— 김이창, 이진홍, 이혜정, 정경섭, 김아영

생협평론 2012 봄(6호)

특집

민주주의와 협동조합

민주주의 발전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 정태인(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민주주의를 훈련시켜온 유럽의 협동조합들

— 정원각(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협동조합기업 : 경제민주화 구현 현장

— 김현대(한겨레 선임기자)

일본의 협동조합 민주주의 : 그 성과와 과제

(日本における協同組合民主主義 : その成果と課題)

— 杉本貴志(関西大学商学部教授) / 번역 :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970년대 한국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지향성

— 신철영(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좌담]

협동조합이 민주주의를 말하다

— 신종철, 안상연, 오귀복, 이화수, 홍준호, 김아영

특집

세계의 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시사점

—기노채(이탈리에 대표이사, 주택건설협동조합준비모임 대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김신양(한국사회적경제연구원 부회장)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전망과 과제

—김성오(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소비협동조합의 과제와 대안

—전형수(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용조합과 협동조합은행

—김창진(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생산자협동조합의 생성과 진화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특별기고]

살아 있는 역사

: 50년 전, 영국 북서부의 협동조합 매장 근무를 추억하며

(Living History : Working at the Co-op in north-west England fifty years ago)

—로저 리차드슨(R. C. Richardson, 영국 원체스터대학 명예교수)

[좌담]

새로운 협동을 모색하는 협동조합들

—국태봉, 김일섭, 석승익, 조성돈, 김아영

특집

협동조합의 이론과 실제

협동조합과 ‘일다운 일(Decent work)’의 만남

—신호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ODA인턴)

협동조합은 고용 천국을 보장하는가?

—김성오(『몬드라곤의 기적』 저자)

여성의 참여와 도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원칙과 실천전략

—김아영(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여성의 능력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하는 협동조합을 지향하며

—이미연(아이쿱구로생협 이사장)



협동조합 고유의 특성에 근거한 경영전략

—이호중(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연구기획팀장)

나그네 민주주의와 주인 민주주의 :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

—신성식(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

협동조합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기대, 어떠세요?

—권미옥, 김현동, 박주희, 서재교, 김아영

생협평론 2012 겨울(9호)

특집 **자본 조달, 한국 생협의 난제**

협동조합과 '자본'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모델

—조혜경(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협동조합에서 자금의 문제

—정원각(아이쿱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준비위원장)

협동조합 지원금융 역할을 수행해온 캐나다 대잘맹신협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좌담]

한국 생협의 자본 조달 현실

—기노채, 김대훈, 민앵, 조향숙, 김아영

생협평론 2013 봄(10호)

특집 **협동조합 생태계**

한국 사회 경제위기의 대안 하나, 협동조합 생태계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협동조합 생태계에 대한 구상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협동조합 생태계로 다함께 행복한 노동을

—김홍범(아이쿱축산 상무대행)

협동조합 생태계와 조합원 활동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 경우

—권미옥(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활동국장)

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오향식(아이쿱생협 콕서비스 경영이사)

[좌담]

협동조합 생태계, 이렇게 만들어가야 한다

—김동준, 송주희, 유창복, 이대중, 장은성, 조우석, 손범규

생협평론 2013 여름(11호)

특집

생협법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 조합원 외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

일본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 규제 (生協法における員外利用規制)

—関英昭(青山学院大学名誉教授) / 번역 : 이향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를 철폐해야 하는 이유

—김형미(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상임이사)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금지에 대하여

—이재욱(춘천산골마을협동조합 부이사장)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문제에 대한 단상(短想)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좌담]

한국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금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김보라, 김창근, 문보경, 박은경, 김형미

생협평론 2013 가을(12호)

특집

협동조합 법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협동조합 정부지원, 협력적 사회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최유성(전 특임장관실 제2조정관)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이이재(새누리당 국회의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 쟁점 및 대안

—김현미(민주당 국회의원)

협동조합과 바람직한 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강민수(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

—김대훈(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장)

[좌담]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강원구, 박봉희, 손낙구, 정원각, 이항숙

생협평론 2013 겨울(13호)

특집

협동조합 정체성 논쟁 1

[발제]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토론]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서 길을 찾자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소장)

나무로서 협동조합과 숲으로서 협동조합

: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에 대한 단상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화폐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제도 차이를 인식하자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협동조합운동, 천천히 뜯아보면서 나아가기

—김동준(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토론에 대한 발제자 의견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

활동가 입장에서 바라 본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김순희, 정설경, 정현화, 손범규

생협평론 2014 봄(14호)

특집

바람직한 사회적 경제 모델 찾기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

—장원봉(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사회적 경제의 현실과 협동조합운동의 방향

—하승우(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 개발

—김성기(사회적 협동조합 SE EMPOWER 이사장)

한국 사회적 경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김영식(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좌담]

사회적 경제, 어떤 모델이 바람직한가
—김재경, 양현준, 윤호중, 이이재, 김형미

생협평론 2014 여름(15호)

특집

한국사회 친환경농산물의 현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전망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최동근(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한국 친환경농산물의 조명 : 생산·시장·소비 측면에서
—김창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COOP생협 친환경농산물 수급 시스템
—신신일(아이쿱인증센터), 허미영(아이쿱농산)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옥천 이야기
—권단(옥천순환경제공동체 운영위원장)

[좌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이 들려주는 현장 이야기
—김근호, 임영택, 주정산, 홍진희, 이향숙

생협평론 2014 가을(16호)

특집

협동조합 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의 협동, 협동은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
—문영선(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과 사회의 성장
—정원각(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학교에서부터 교육해야
—금현옥(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교사)

학교협동조합에서의 협동조합 교육
—박주희(학교협동조합지원네트워크)

협동조합 교육, 습득이 아닌 참여와 협동의 과정
—김아영(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좌담]

학교협동조합, 그 현장의 소리
—강연수, 김민성, 김현미, 박선하, 황성경, 지민진

생협평론 2014 겨울(17호)

특집

한국협동조합의 성장통

이용자협동조합 임금노동자의 노동 문제

— 김대훈(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

반겨야 할 역설, 협동조합의 민주적 거버넌스

— 윤주일(쿠파협동조합 이사)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인가

— 강민수(쿠파협동조합대표)

협동조합 지배구조에 대한 단상

—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거버넌스 : 역설 시각에서

(The Governance of Co-operatives and Mutual Associations :
A Paradox Perspective)

— 크리스 콘포스(Chris Conforth, 영국 Open University 교수)

[좌담]

소비자협동조합의 거버넌스와 노동의 실제

— 김정희, 이선경, 한금희, 손범규

생협평론 2015 봄(18호)

특집

협동조합기본법 2년, 그 성적표는?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와 향후방향

— 이철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년,

기본법 제정 당시의 정책목표는 얼마나 달성했나?

— 이대중(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제정팀장)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그 성과와 과제

— 문보경(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협동조합의 지형

— 김현하(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 2팀)

[좌담]

협동조합기본법 2년, 우리 마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 김정원, 유영우, 이석우, 정원오, 김형미, 김현대

생협평론 2015 여름(19호)

특집

청년과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그리고 '멤버십 사회'

—이원재(희망제작소 소장)

서울시 청년 협동조합 주택

—이수연(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협동조합과 청년의 만남 협동조합, 청년에게 더 다가가기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청년들의 '사회적 노동' 경험 : 청년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명수민(서울대 교육인류학 석사), 이영룡(연세대 문화학협동과정 석사)

[좌담]

협동조합을 만난 청년들, 위기도 행복도 서로 함께

—김진희, 임소라, 조한솔, 김지만

생협평론 2015 가을(20호)

특집

사회적경제와 행복한 지역 만들기

사회적경제, 지역 발전의 대안인가?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마을과 경제

—유창복(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사회 혁신에 기반한 지역 발전 : 캐나다 퀘벡의 사례

—정준호(강원대학교 교수)

혁신적 협동조합과 지역 만들기 : 구레자연드림파크 사례

—정태인(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젠트리피케이션, 사회적경제로 핵심을 짚어내자

—전은호(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

[좌담]

임대업이 꿈인 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누구의 문제인가?

—안진걸, 김남균, 선민, 위성남

생협평론 2015 겨울(21호)

특집

협동조합 지원, 그 실상과 바람직한 방향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둘러싼 협동조합 관련 언론 보도 심층 분석

—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지원정책과 협동조합 현황

— 정상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과장)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유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기업·운동·정치로서의 협동조합

— 김종걸(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좌담]

비관은 약으로 삼고, 오해는 풀어가며

— 박관희, 이현숙, 장승권, 최혁진, 김기태

생협평론 2016 봄(22호)

특집

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

협동조합의 관점에서 본 농협의 역사

— 박성재(순천대학교 초빙교수)

세계 농업협동조합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 안상돈(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농협의 과제

— 이호중(지역재단 농협연구교육센터 센터장)

도시농협,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소비자를 통해 생존하거나 문 닫거나

— 정연근(내일신문 기자)

[좌담]

농협에 기대하는 변화, 그리고 농협과 생협의 협동

— 장민기, 정기석, 조성규, 조현신, 유재흠

생협평론 2016 여름(23호)

특집

협동조합과 혁신

협동조합은 사회혁신이다

— 이일영(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대안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과 혁신의 과제

— 김동준(성공회대 경영학부 연구교수)

노동자소유기업, 일터를 혁신하고 사회를 혁신하다

— 김활신(안산아이쿱생협 이사)

학교협동조합, 학교를 혁신하다

—주수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좌담]

협동조합, 혁신의 DNA를 찾아서

—김대훈, 김아영, 김홍길, 서종식, 정경섭

생협평론 2016 가을(24호)

특집

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왜 프랜차이즈에 주목하는가?

—장종익(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주임교수)

소셜 프랜차이즈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해

—김정원(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협동조합 · 프랜차이즈 현황과 소상공인 지원정책

—남윤형(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버거킹, 던킨도너츠에서 레베(REWE), 코나드(CONAD)까지

—김현대(한겨레 출판국장)

해피브릿지가 바라본 사회적경제 영역과 프랜차이즈

—윤천(해피브릿지 외식창업센터 센터장)

[좌담]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를 만나다

—김현, 박승룡, 이우용, 박찬선, 강민수

생협평론 2016 겨울(25호)

특집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우리 사회 고령화 문제와 그 해법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정진화(한신대학교 교수)

고령화에 대응하는 일본 생협의 복지사업

—이향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의료협동조합이 만들어가는 ‘노인이 행복한 세상’

—박봉희(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교육연구센터 소장)

여민동락공동체의 일상

—강위원(여민동락공동체 대표 살림꾼)

고령화의 도전과 한살림의 대응

—장지연(한살림서울 돌봄기획팀 차장)

[좌담]

조합원의 눈으로 노후를 꿈꿔보다

—김미선, 김종희, 우미숙, 추경숙, 김형미

생협평론 2017 봄(26호)

특집

불안의 시대,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인공지능과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길

—구본권(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인간 존중의 조직 문화는 가능한가?

—최동석(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협동조합의 고용 실태와 과제 :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이홍택(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재미’있는 일하기, 협동조합에서는 가능한가요?

—제현주(협동조합 롤링다이스 조합원)

[좌담]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에 대한 필요와 열망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김선경, 마성균, 백희원, 서종식, 최혁진

생협평론 2017 여름(27호)

특집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의 제안

‘모두가 행복한 나라’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병학(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 집행위원장)

사회적기업 법제도 분석과 개선 방안

—김혜원(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분석과 개선 방안

—장종익(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동료 시민과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

· <청년> 청년이 웃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바라며

—조금득(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무국장)

· <시니어> 장년층 인생 후반의 새로운 가능성, 사회적경제

—김만희(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 본부장)

- <여성> 페미니즘 관점으로 본 사회적경제의 평가와 과제
— 오김현주(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 공동대표)

[좌담]

- 사회적경제 정책 실행을 위한 첫 걸음
— 김대훈, 김영배, 김인선, 송경용, 서형수

생협평론 2017 가을(28호)

특집

사회적경제와 노동조합의 만남

- 협동조합운동과 노동조합운동 : 연대와 협력의 가능성 탐구
—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 노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의 상생 : 캐나다 퀘백의 사례
— 김창진(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
- 노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협력
— 황선자(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따로 또 같이
— 박경숙(순천광장신문 시민기자), 이종관(순천광장신문 편집장)
- 평화시장의 모범업체
—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좌담]

- 노동운동과 사회적경제는 왜 함께하려 하는가?
— 박강태, 이희수, 조준호, 한석호, 송경용

생협평론 2017 겨울(29호)

특집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활동

- 사회적경제 기반으로서의 사회적 참여
— 김종걸(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 광형모(한국자원봉사문화 교육위원장)
- 생협의 주인으로서 조합원 활동
— 안인숙(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전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 투명하나 총만한 그림자 : 생협 여성 활동가들의 노동을 생각하다
— 임정은(강서아이쿱생협 조합원)
- 조합원의 자부심, 아이쿱 자원봉사
— 이순옥(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자치국장)



[좌담]

열정페이와 자원봉사 사이에서

—김기민, 김수화, 민선영, 박준구, 손홍택, 박범용

생협평론 2018 봄(30호)

특집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문재인 정부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주요 이슈와 우선 추진 과제

—최호진(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조(自助)와 공조(公助)로 쌓는 일본의 재난 대비

—편용우(전주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공동체 회복 실천 경험

—임남희(안산신부종합사회복지관 부설 힐링센터0416쉽과함 사무국장)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는 재난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박선하(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원)

전 세계 협동조합이 난민 끌어안는다

—김현대(한겨레 기자)

안전을 우리 생활공간으로 가져온 사회적경제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생협평론 2018 여름(31호)

특집

순환과 회복의 경제

쓰레기 대란, 해법은 무엇인가?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지구 환경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상생의 관계 맺기

—윤숙희(가자가지살롱협동조합 이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한살림의 실천

—유현실(한살림고양파주 이사장)

지구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사회적경제

—김경하(더 나은미래 부편집장)

과학기술에 '인간의 얼굴'을 새기기

—강양구(지식큐레이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과 사회적경제

—정건화(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좌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한걸음

: 시민 데이터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김성경, 김신범, 오창길, 윤성미, 이정재, 김형미

생협평론 2018 가을(32호)

특집

사회적경제는 사람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뜯아보기

—서종식(의연협동노동센터 소장)

결사체 운동으로서 주민운동과 사회적경제의 만남

—김성훈(한국주민운동교육원 트레이너, 사회적경제 대전플랜 상임대표)

현장 기반 학습으로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활동가

—김유숙(사회투자지원재단 소장)

사회적경제 연구자 육성 현황과 전략

—장승권(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교수)

한살림과 한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7가지 방법

—서동재(한살림연합 인사지원팀)

같이 성장하고, 가치를 성장시키는 협동조합 사람들

—김아영(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좌담]

5인 5색, 사회적경제 인재를 말하다

—김하나, 신철호, 신현상, 원종호, 정찬필, 박범용

생협평론 2018 겨울(33호)

특집

사회적경제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는가

공동체의 진화와 새로운 커뮤니티의 가능성

—김병권(서울시 협치자문관)

공동체는 지역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임경수(전주원도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생생협동조합 상임이사)

아이쿱 모임, 풀뿌리 민주주의로 한걸음 다가가다

—박미정(아이쿱활동연합회 자치활동국장)

청년과 공동체 삶의 가능성

—박희정(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디지털 커먼즈의 위상

—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좌담]

느슨한 연대로 만드는 현대의 공간

— 박동광, 송건, 유한밀, 조완석, 조금득, 장인권

생협평론 2019 봄(34호)

특집 **사회적경제와 세대교체**

[좌담] 세대 갈등을 넘어서는 세대교체, 이렇게 생각한다

— 강성균, 우윤식, 윤하나, 오윤덕, 황명연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청년 리더로 활동하기

— 김진아(대학생협연합회 이사장)

농협 세대교체의 현 주소와 농민 협동조합의 미래

— 이상길(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농정전문기자)

새로운 소비자운동을 위한 아이쿱 리더십의 과제

— 김현숙(사천아이쿱 이사장), 정설경(동작서초아이쿱 조합원)

생협의 세대교체는 어떻게 가능할까?

— 위성남(전 마포시민협력플랫폼 대표, 전 성미산마을 대표)

생협평론 2019 여름(35호)

특집 **사회적경제의 지형과 전략**

[좌담] 사회적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김성기, 김영식, 안미현, 정원각, 김찬호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쟁점들

— 김종걸(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황과 전망

— 김기태((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 그 후 6년

— 문보경(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前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경남의 사회적경제, 그 발자취와 활성화 전략

— 송원근(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정책 : 광주시 광산구의 경우

— 김보라(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 황명연(한국자활연수원 주임)

생협평론 2019 가을(36호)

특집

사회적 가치,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좌담] 현장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

— 강봉심, 지민진, 박기범, 변준재, 주세운

몸무게 재듯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자

— 도현명(임팩트스퀘어 대표)

사회적가치지표(SVI)의 성과와 과제

— 강경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장)

사회적 가치 성과 측정은 조직을 건강하게 만든다

: '사회적 회계와 감사(Social Accounting & Audit)'를 중심으로

— 김유숙(사회투자자원재단 사회적경제역량강화센터 소장)

퀘백 사회투자 네트워크(RISQ)의 '사회적경제 조직 평가 가이드'

소개

— 김진환(C.I.T.I.E.S 연구원)

생협평론 2019 겨울(37호)

특집

민관 협력과 중간지원조직

[좌담] 사회적경제 당사자로서의 중간지원조직

— 정영화, 조인숙, 이원표, 안준상, 황명연

지원이란 무엇인가?

— 김찬호(『생협평론』 편집위원장, 성공회대학교 초빙교수)

한국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생존 조건

: 경쟁 격화와 전문화/지역화의 요구

— 김종걸(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지역에서 경험한 중간지원조직 민관 협력의 현실

— 윤도현(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전 동작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 사무국장)

중간지원조직이 사회적경제 인재를 키우는 산실이 되기 위한 과제
 : 일자리로서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고찰
 —최용완(마을과집 한국사회주택협동조합)
 시민 주체 '새로운 공공'을 위한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의 실천
 : 당사자 조직의 중간지원조직 기능, '협동노동'의 플랫폼 만들기
 —타시마 야스토시(田嶋康利,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옮긴이 : 김형미(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생협평론 2020 봄(38호)

특집

사회적경제 법, 제도의 쟁점과 과제

[**좌담**]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 현장을 돌아보다

—강민수, 박향희, 이경호, 이현민, 김대훈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강민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

생협법 개정이 이 시대에 던지는 5가지 화두

: 협동조합의 상호성 원칙을 전면 제기하며

—박범용(세이프넷지원센터 경영지원팀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과 그 의미

—이선민(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변화 :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박철훈(지역과소셜비즈 연구지원실장)

2020년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을 꿈꾸다

—방태형((사)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운영위원장)

사회적금융 관련 법 · 제도의 점검

—장지연(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도시재생은 사회적경제를 담는 그릇?

—전은호(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생협평론 2020 여름(39호)

특집

재난의 시대, 사회적경제의 길 찾기

[좌담] 코로나19에 비친 사회적경제

—길현중, 변형석, 안인숙, 정태인, 김찬호

코로나19를 이겨낼 소중한 치료제, 협동과 연대의 사회적경제

: 보이지 않는 것들의 공격과 그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

—주태규(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이사장)

코로나19 위기 속 사회적경제의 대응

: 대구 사례를 중심으로

—김재경((사)커뮤니티와경제 소장)

지역과 국가의 경계 없는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

—신재민(해외정보분석연구 협동조합)

재난 속 생활 방역 그리고 돌봄 노동자

—최영미(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감염병 재난, 생활공동체로 살아남기

—정미정(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한국협회(에이팍코리아) 이사장)

생협평론 2020 가을(40호)

특집

생협평론 10년, 돌아보기와 내다보기

[독자 집담회] 더 나은 세상을 잇는 무지갯빛 징검다리

—김성미, 김이, 이선영, 정설경, 김찬호

〈특집 I〉 생협평론과 사회적경제의 길 찾기

생협평론, 협동조합 담론 활성화의 주역

—염찬희(성공회대학교 사회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미디어 지형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사회적경제로 그린뉴딜 하기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비대면 사회와 사회적경제

—김병권(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사회적경제 10년 후, 2030년 우리의 모습

— 김형미(상지대학교 평생교육융합대학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특집II〉 사람책, 사회적경제 일꾼들의 삶과 생각

사회적 금융이 왜 활성화되지 못하냐면요

: (주)비플러스 박기범 대표

— 주세운(생협평론 편집위원)

마음의 소리를 따라 걸어온 10년

: HBM사회적협동조합 MTA코리아 이예나 팀코치

— 김아영(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시련도 매력으로 받아들이는 청춘의 힘

: (주)김태경우리밀베이커리 김태경 대표

— 박범용(SAPNet지원센터 경영지원팀장)

단행본

No. 발행년도 제목/ 저자 및 역자

- 1 2006 『생협 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____일본 21세기코프연구소센터 저 | 한국생협연합회 역
- 2 2008 『iCOOP생협 10년사 : 협동, 생활의 윤리』
____iCOOP생협연대 저
- 3 2008 『일본 위커즈 콜렉티브 활동 사례연구』
____김주숙, 김미영, 김양희, 안세희, 정금수, 이향숙
- 4 2008 『생활 속의 협동』
____오사와 마리 저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옮김
- 5 2009 『세상을 바꾸는 소비자의 힘 2009 윤리적 소비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집』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6 2009 『새로운 생협운동』
____한국생협연대 엮음 (초판 : 2002)
- 7 2011 『뒤영벌은 어떻게 나는가』
____이바노 바르베리니 저 | 김형미·김영미 옮김
- 8 2012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____김형미 외
- 9 2012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
____에드가 파넬 저 | 염찬희 옮김
- 10 2012 『후쿠이생협의 도전』
____일본생협연합회 엮음 | 이은선 옮김
- 11 2012 『일러스트로 배우는 생활협동조합 매장 운영 가이드 북』
____오리토이사와카니시 케이코 저 | 이은선 옮김
- 12 2012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____사이토 요시아키 저 | 다나카 히로시 옮김
- 13 2012 『꺼지지 않는 협동조합의 불꽃』
____와카츠키 타케유키 저 | 이은선 옮김
- 14 2013 『살아 숨쉬는 마을 만들기』
____니시무라 이치로 저 | 번역모임 연리지 옮김

- 15 2013 『로치데일 공정신구자 협동조합 역사와 사람들』
 ____조지 제이콥 홀리요크 저 | 정광민 옮김
- 16 2013 『협동조합 운영 사례집』
 ____서울특별시
- 17 2013 『진짜 가격은 얼마인가요(2013)』(E-Book)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18 2014 『진짜 가격은 얼마인가요(2014)』(E-Book)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19 2014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
 ____김기태, 김형미, 신명호, 장종익, 정병호 외
- 20 2014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
 ____김창진 편저
- 21 2015 『iCOOP생협 2015년 입문협동조합』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22 2015 『사람을 탐하다 : 협동조합 역사에서 살아온 그 사람을 탐하다』
 ____인물탐구동아리 '사탐' 저
- 23 2015 『스웨덴에서 협동조합을 배우다』
 ____아너스 오르네 저 | 이수경 옮김
- 24 2015 『21세기의 협동조합 : 레이들로보고서』
 ____A.F. 레이들로 저 | 염찬희 옮김
- 25 2015 『영국 협동조합의 한 세기』
 ____G. D. H. 코울 저 | 정광민 옮김
- 26 2016 『iCOOP생협 2016년 입문협동조합』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27 2016 『아이쿱 사람들 : 협동조합의 문을 열다』
 ____차형석 지음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28 2017 『로버트 오언 : 산업혁명기, 협동의 공동체를 건설한 사회혁신가』
 ____G. D. H. 콜 저 | 홍기빈 옮김
- 29 2017 『기업 소유권의 진화』
 ____헨리 한스만 저 | 박주희 옮김
- 30 2018 『스무살 아이쿱 : 협동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실천』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31 2019 『이탈리아와 독일 협동조합 100년 성공의 비결』
 ____장종익 외 13 저

- 32 2019 『사회적경제의 힘 : 통계 방법론과 해외 사례들』
___마리J.부사, 다미앙 루슬리에 저 | 이상윤, 윤길순 옮김
- 33 2019 『한국 협동조합운동 100년사 1권, 2권』
___한국협동조합운동 100년사 편찬위원회
- 34 2019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 효율성에 도전하는 연대』
___티에리 장테 지음 | 편혜원 옮김
- 35 2020 『협동조합 클로즈업 : 만들 땐 몰랐던 협동조합의 어려움』
___김현하 지음

연구보고서(일반)

| No. | 발행년도 | 시리즈명 | 제목/ 저자 및 역자 |
|-----|------|-------------|---|
| 1 | 2007 | 연구보고 2007 | 『생활협동조합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보고서 : 한국생협연합회 소속 조합원을 중심으로』 ___김주숙·김성오·정원각 |
| 2 | 2009 | 연구보고 2009 | 『2009년 iCOOP생협 활동가 의식조사 보고서』 ___김아영·정원각·이향숙 |
| 3 | 2010 | 연구보고 2010-1 |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 생협운동을 중심으로』 ___염찬희·염은희·이선옥 |
| 4 | 2010 | 연구보고 2010-2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운영에 관한 연구』 ___장원봉·하승우·임동현 |
| 5 | 2010 | 연구보고 2010-3 | 『생협밸리 커뮤니티 디자인 연구』 ___김찬호 |
| 6 | 2010 | 연구보고 2010-4 | 『2009 iCOOP생협조합원의 소비자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염찬희 |
| 7 | 2011 | 연구보고 2011-1 | 『아이쿱생협의 교육현황, 그리고 교육효과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 ___정해진 |
| 8 | 2011 | 연구보고 2011-2 |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지자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협력방안』 ___장종익·김아영 |

- 9 2011 번역서 2011-1 『일본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리포트 No.62 : 위기에 대응하는 외국생협—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웨덴생협—의 동향』
___김연숙·이주희·정화령
- 10 2011 번역서 2011-2 『일본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리포트 No.64 : 협동조합의 출자금, 자본회계 문제』
___김연숙·이주희·정화령
- 11 2012 기획연구과제 2012-1 『유럽 주요 국가 소비자협동조합의 성패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___장종익
- 12 2013 기획연구과제 2013-1 『지대(地代)가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___장상환
- 13 2013 기획연구과제 2013-2 『2012 아이쿱생협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염찬희·손범규·지민진
- 14 2013 기획연구과제 2013-3 『생협의 사회 가치 :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___이향숙·지민진
- 15 2013 생활과 동향 1 『한국소비자원, 「2013 한국의소비생활 지표」 발표』
___지민진
- 16 2014 생활과 동향 2014-1 『윤리적 소비 속, 업사이클링(Upcycling) 다시 생각하기』
___손범규
- 17 2014 생활과 동향 2014-2 『일본의 유기농업인증제도의 시사점 : 참가형 인증시스템의 의의』
___지민진
- 18 2014 생활과 동향 2014-3 『밀레니엄세대에 동기 부여하기 : 아이쿱생협의 20대 직원의 특성을 중심으로』
___손범규
- 19 2014 기획연구과제 2013-4 『2013 아이쿱생협 직원의 직무만족도 조사』
___손범규
- 20 2014 연수보고서 2014-1 『2014 ICA Research Conference in Pula, Croatia and 2014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 Summer School in Sheffield』
___서진선

- 21 2014 기획연구과제 2014-1 『공정무역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iCOOP생협과 PFTC-AFTC의 파트너십 연구』
____엄은희
- 22 2014 기획연구과제 2014-2 『생협의 사회가치 2014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____이향숙·이문희
- 23 2015 연구원리포트 2015-1 『협동조합 자본조달 방안 중 조합원 차입금과 기금에 관한 사례 조사』
____서진선
- 24 2015 연구원리포트 2015-2 『협동조합의 자본조달과 우선출자제도』
____지민진·서진선
- 25 2015 기획연구과제 2015-1 『iCOOP생협 생산자회원의 특성 : iCOOP생산자회 정회원조사 2014년도』
____정은미
- 26 2015 기획연구과제 2015-2 『2014 아이쿱생협직원의 직무만족도 조사』
____손범규
- 27 2015 기획연구과제 2015-3 『아이쿱생협 통계 2014』
____지민진
- 28 2015 기획연구과제 2015-4 『2015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손범규·이예나
- 29 2015 기획연구과제 2015-5 『2015년 아이쿱생산자회원 실태 및 의식조사』
____이향숙
- 30 2016 흐름을 읽다 1-01 『저성장 시대, 가치소비의 경험』
____지민진
- 31 2016 기획연구과제 2016-1 『아이쿱 통계 2015』
____지민진
- 32 2016 기획연구과제 2016-2 『친환경 우유의 생산 및 소비 확대와 낙농제도 : 아이쿱생협의 판매대행제의 시사점』
____장재봉
- 33 2016 번역서 2016-1 『협동조합의 난제 : 자본』
____윤길순·최은주·서진선
- 34 2016 흐름을 읽다 1-02 『소비, 근심을 덜다 : 저성장기 소비의 질적 변화』
____지민진

- 35 2017 기획연구과제 2017-1 『한국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연구 1』
 ____협동조합 제도개선연구회
- 36 2017 흐름을 읽다 2-01 『소비, 그리고 쉼(休)』
 ____지민진
- 37 2017 흐름을 읽다 2-02 『생활동향연구, 2017. 6』
 ____지민진
- 38 2017 흐름을 읽다 2-03 『생활동향연구, 2017. 7』
 ____지민진
- 39 2017 흐름을 읽다 2-04 『생활동향연구, 2017. 8』
 ____지민진
- 40 2017 흐름을 읽다 2-05 『생활동향연구, 2017. 9·10』
 ____지민진
- 41 2017 흐름을 읽다 2-06 『생활동향연구, 2017. 11·12』
 ____지민진
- 42 2017 기획연구과제 2017-2 『GMO 없는 사료 도입에 관한 일고찰 : 생협 사례
 를 중심으로』
 ____이향숙
- 43 2017 흐름을 읽다 2-07 『경기와 일상의 괴리 : '나'를 찾는 소비』
 ____지민진
- 44 2017 기획연구과제 2017-3 『아이쿱생협의 공급망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____박상선·권영기
- 45 2018 I, B 2018-01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1 :
 한국 GMO 보급 및 표시제 현황』
 ____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46 2018 I, B 2018-02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2 :
 소비자 알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
 ____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47 2018 I, B 2018-03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3 :
 Non-GMO 표시제에 대한 주요 국가의 현황과
 시사점』
 ____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48 2018 I, B 2018-04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4 :
GMO 이력추적제의 도입 필요성—소비자 신뢰와
위해성 차단의 관점에서』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49 2018 I, B 2018-05 『소비자 알권리와 GMO 표시제 이슈브리프 5 :
BT와 GM 시대, 농업의 진로를 다시 생각한다』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0 2018 기획연구과제 2018-1 『2018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1 2018 기획연구과제 2018-2 『2018년 파머스쿱(Farmer's COOP) 조합원 실태 및
의식조사』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2 2018 기획연구과제 2018-3 『한일 협동조합 공제에 대한 일고찰』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3 2019 요약본_인포그래픽 『2018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요약본(인포그래픽)』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4 2019 요약본_인포그래픽 『2018년 파머스쿱(Farmer's COOP) 조합원 실태 및
의식조사 요약본(인포그래픽)』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5 2019 기획연구과제 2019-1 『공공부문과 협동조합의 공동체 활동 비교에 관한
연구 : 주민자치센터와 아이쿱생협 지역조합을 중심
으로』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6 2019 경제소비브리프 2019-1 『어수선한 한국 경제, 다가오는 변화』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7 2019 기획연구 2019-02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생협 이용 결정요인 탐색』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8 2019 기획연구 2019-03 『한국 사회적경제 공제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59 2019 경제소비브리프 2019-2 『2019년 경제 리뷰—새로운 시대로의 도입』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60 2019 기획연구 2019-04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생협 이용 충성도 탐색』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61 2020 기획연구 2019-05 『리뷰, 한국 생협 의 궤적』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62 2020 흐름을 읽다 2020-01 『생활 일기 모음집 : 2017~2019』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63 2020 기획연구 2020-01 『가치 전환 시대의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____(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보고서(수행연구)

| No. | 발행년도 | 시리즈명 | 제목/ 연구자 |
|-----|------|---------------|---|
| 1 | 2014 | 연구원 리포트 | 『훗카이도 지역 밀 산업의 시사점』 ____이향숙 |
| 2 | 2014 | 서울시 기획 연구 | 『학교건강매점 협동조합 모델개발 연구』 ____지민진·최은주 |
| 3 | 2015 | 기획연구과제 2015-6 | 『고양과주아이쿱생협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손범규·신효진 |
| 4 | 2016 | 양천구 기획 연구 | 『양천구 사회적경제 인적 자원 조사』 ____이향숙·김경아 |
| 5 | 2019 | 한국법제연구원 | 『협동조합 관련 주요국의 입법사례 연구』 ____박광동·김형미·Hirota Yasuyuki·강봉준·신창섭·홍성민 |
| 6 | 2019 | 한국법제연구원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개선방안 연구』 ____김용진·김형미·최은주·신창섭·이태영·김재원 |

연구보고서(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 No. | 발행년도 | 시리즈 번호 | 제목/ 편역자 |
|-----|------|--------|----------------------------|
| 1 | 2012 | 2012-2 | 『미국 협동조합 현황(1)』 ____이경수 |

- 2 2013 8-2 『지역사회 만들기와 생협』
___이경수
- 3 2013 9-3 『지역복지·어르신복지와 생협의 역할 (地域福祉·高地域福祉と生協の役割)』
___이경수
- 4 2013 10-1 『푸드 데저트 문제와 지역 커뮤니티』
___이경수
- 5 2013 10-2 『전업주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___이경수
- 6 2013 13 『대규모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조합원 거버넌스 참여 :
코퍼라티브 그룹 형성평가』
___이경수
- 7 2014 2014-13 『이론』 『사례』 『거버넌스』
___이경수
- 8 2015 2015-2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과 식품 : 소비자협동조합의 시각』
___이경수
- 9 2015 2015-3 『2014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모음집』
___이경수
- 10 2015 2015-4 『기후변화와 소비자협동조합 : 도전에 앞서 나가기』
___이경수
- 11 2015 2015-12 『지속가능발전 개발재원과 사회연대금융의 역할』
___이경수
- 12 2016 2016-01 『핀란드 S그룹 : 핀란드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1-7』
___이경수
- 13 2016 2016-02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의 사회적연대경제의 현황』
___이경수
- 14 2017 2017-02 『바르셀로나 시청의 사회적연대경제 추진 정책』
___히로타 야스유키 지음, 이향숙 번역
- 15 2017 2017-03 『이탈리아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 2016 아이쿱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모음집』
___이경수
- 16 2017 2017-09 『사람 중심의 일터 : 사회 혁신 생태계 몬드라곤 사례연구 :
몬드라곤의 경영 탐구 5』
___윤길순

- 17 2017 2018-01 『몬드라곤의 경영 탐구 모음집』
 ___윤길순
- 18 2018 2018-02 『유럽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 유로쿱의 활동과 정책』
 ___가자가지살롱협동조합
- 19 2018 2018-03 『유럽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 유로쿱의 활동과 정책 2』
 ___가자가지살롱협동조합
- 20 2018 2018-04 『협동조합 과제 : 일반적 가이드라인과 문제들』
 ___번역협동조합
- 21 2020 2020-01 『농업과 푸드시스템은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
 : 기후위기시대의 푸드 솔루션』
 ___이미옥
- 22 2020 2020-02 『채식 위주의 식단이 주목받는 이유
 : 기후위기시대의 푸드 솔루션 2』
 ___이미옥

생협평론 정기구독 안내

『생협평론』은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의 공론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청 방법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www.icoop.re.kr) 홈페이지에 있는
‘1년 구독권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 전화를 주시거나 혹은 이메일로 주소와 연락처, 이름을
남겨주세요.

구독료

- 1년 구독료 : 10,000원

입금 안내

- 계좌 : 국민은행 448601-01-449694
- 예금주 :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기타

- 구독 기간에 책값이 올라도 정기구독료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분실이나 반송 등 배달 사고로
『생협평론』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꼭 연락주세요.
- 날권 구매는 연구소 이메일로 개별 신청 바랍니다.

『생협평론』 2020년 봄호부터 우편 발송에 썼던 비닐 포장재를 종이 봉투
로 바꿔 발송하고 있습니다.

전화 02-2060-1373

이메일 icoop-institute@daum.net